

스토리 맵핑, DMZ 그리고 민통선

# 민통선의 싯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저 자** 함광복 DMZ 연구소장

**발행인**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기획 및 편집** 장정룡 강원학연구센터장  
이종미 강원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발행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전화 033. 250. 2982  
홈페이지 [www.gangwonstudies.re.kr](http://www.gangwonstudies.re.kr)

**제 작** 도서출판 산책  
주소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독길 23  
전화 033. 254. 8912

**ISBN** 978-89-5705-742-1

스토리 맵핑, DMZ 그리고 민통선

# 민통선의 삶

## 머리말

민통선은 길입니다. 철원은 그 길의 출발의 땅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송강 정철도 관동 지름길을 철원에서 찾았습니다.

「궁왕(弓王) 대궐터에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홍망(千古興亡)을 아는다 몰으는다.」

관동별곡은 그가 철원성을 지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동주(철원)를 출발해 걸어간, 김화, 회양 안변,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원주는 그 옛날 궁예왕이 원주를 출발해 철원으로 말을 몰았던 바로 그 길의 역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철이 걸어간 관동별곡의 길을 700여 년이나 앞서 궁예왕이 개척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예가 세달사를 떠나던 해는 서기 891년, 철원에 도움 하던 해는 896년입니다. 가사를 벗어던지고 용포를 입기까지 5년밖에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894년 10월 명주를 장악한 그는 군사를 3천500명으로 불러 태백산맥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철원에 입성, 그 이듬해인 896년 마침내 왕이 되지요. 그가 명주를 떠나 어떻게 철원에 이르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친 저족(猪足:인제), 생천(牲川:화천), 부약(夫若:금성)의 고을들을 잇는 옛 길을 따라가면 그는 정확하게 동에서 서로 DMZ를 걸어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98년 송약으로 천도했던 그는 6년 후인 905년 철원으로 환도합니다. 천도와 환도

의 그 길이 한탄강, 임진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지금 DMZ가 흘러갑니다. 정철도 철원에서부터 지금의 DMZ를 비슷하게 걸어간 셈입니다.

12년 후 정철의 그 길을 또 한 무리가 걸어갔습니다. 임진왜란이 난 그해 봄 한성을 수중에 넣은 왜군 4번대 주장 모리요시나리(毛利吉成)는 보급선 상륙지를 찾아 동해안 울진으로 동진하면서 강원도 땅을 유린 하였습니다. 이 악랄한 귀신마져 궁예가 걸어온 그 길, 송강이 걸어간 관동 지름길이 철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길을 낸다고 했습니다.

「소양강(昭陽江) 내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관동별곡은 정철이 원주에서 춘천(소양강)을 거쳐 철원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오래전 몽골이 고려를 다섯 번째 침략할 때 낸 길입니다. 1253년 8월 몽골군은 황해도로 진격하다가 양산성(황해도 안악)을 도륙합니다. 돌연 동쪽으로 말을 몰아 동주(철원)을 장악하고, 9월 초순엔 저항하는 춘주성(춘천)을 무시 무시한 도성작전으로 무너뜨리고 원주에 이릅니다.

정철은 몽골전쟁이 낸 길을 따라 철원으로 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궁예왕이 장정한 그 길을 되짚어 갔고, 다시 그 길을 왜군이 짓밟고 갔습니다.

죽은 왜장이 현몽이라도 한 것일까. 그 침략 속물들은 모든 길이 철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을 빌미로 추가령구조속 좁은 골짜기에 경원선을 놓았습니다. 원산 찍고, 청진 찍고 시베리아, 유라시아로 간다는 대륙 침략의 머릿돌을 철원역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 길 위로 지금 한국전쟁이 빚어낸 DMZ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쟁은 길을 낸다고 한 모양입니다.

길은 인간의 발자국입니다. 흔적의 역사책입니다. DMZ 그리고 DMZ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민통선 지역은 1,100여 년 전 후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얘기들이 적혀있는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과거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냉전시대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스토리의 광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길에 발자국처럼 찍혀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엮어낸 것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의 길을 따라가듯 철원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DMZ를 따라가던 민통선 마을들은 이제 몇 남지 않았습니다.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근남면 마련 1,2리 그리고 김화읍 유곡리만 민통선북방 마을입니다. 양구 해안면 현 1,2,3리, 오유 1,2리, 만대리도 민북마을입니다. 그러나 거길 가기 위해 민통선 검문소에 신분증을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DMZ와 과거 민통선 마을이었던 접경지 일대를 기웃거리며 ‘스토리의 광산’을 일궈낸 ‘이야기 지도(story map)’입니다. DMZ 스토리를 발굴해 엮은 책들 ‘DMZ는 국경이 아니다’,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등과 G1 강원민방이 방영한 ‘300부작 DMZ Story’ 등 영상물 그리고 관련된 강의, 강연 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머리말

<b>1. 천년 고도의 새 주인</b>	13
1 “저기 오리산이 보인다”	13
2 다시 그때처럼 1만 명이 입주했다	19
3 철원평야에 묻힌 ‘전설의 도시’	23
4 자본주의 건축 그리고 사회주의 건축	27
5 관동팔경 그 길에 놓인 금강산전기철도	31
<b>2. 그곳에선 철새도 인간이다</b>	36
1 민통선 첫 입주자 ‘지뢰’	36
지뢰는 생물, 지능을 갖춘 고등생물	39
2 민들레 벌판에 민들레는 피지 않는다	41
창랑정 터에 세워진 세직정	44
“저 푸른 민들레 벌판 위에”	45
3 울진촌 사라호 태풍 유민의 덩빙김치	47
“그들이 유토피아를 일궜다!”	50
4 북으로 간 예술인 이태준	52
철원은 이태준 문학 유적지	55
5 DMZ에서는 철새도 인간이다	58
과부두루미 흥부새	60

<b>3. 역사의 회오리 속을 흐르는 화강</b>	64
1 김화 토박이 ‘금화’로 쓰고 ‘금화’로 읽는다	64
사이비 신흥종교의 발상	68
2 겸재 ‘화강백전’의 증언 병자호란	71
3 백전전투 그 자리에서 재현된 ‘상감령 전투’	76
4 오성산전투 그 밤에 묻은 박수근 그림 향아리	82
박수근의 자전 소설 ‘杼壽根’	83
5 한국전쟁 최초의 전투, 최후의 전투	87
<b>4. 흐르지 않는 강</b>	94
1 화천댐 함재기 어뢰를 맞다	94
2 북한 ‘임남 언제’, 남한 ‘평화의 댐’	98
3 풍악 시냇물의 원조 금강산댐	102
4 흐르지 않는 강의 ‘반달숲’	106
5 북한강에 내려앉은 막간의 평화	110
한강이 1, 2, 3 ‘북파’	114
<b>5.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도 못다 담은 고지전</b>	118
1 “아, 양귀! 거긴 고지전입니다.”	118
2 두타연 계곡의 ‘전쟁의 기억’	126
풍포트 중대의 ‘최후의 한 발’	127
주검으로 옛 전장에 돌아온 노병	128
두타연의 켄터키식 벽난로	129
3 그 깊은 골자기에 숨어있던 문등리	131
4 수입천 ‘카울린 로드’, ‘머스크 로드’	136
5 ‘윤석 구덩이’가 익혀낸 펀치볼 문화	141

## 6. DMZ 자연 제 갈길을 가다 150

- 1 돼지열병 그리고 DMZ 바이러스 2제 150  
등줄쥐가 정복한 DMZ 151  
예방주사를 맞는 야생동물들 155
- 2 서양민들레 돼지풀의 민통선 귀화 160  
'위키'와 상하이 농구화 162
- 3 개느삼, 전쟁을 건너 냉전을 견딘 풀 165
- 4 대암산 용늪에서는 '과거를 물어주세요' 168
- 5 수입천 두타연의 열목어 전설 172

## 7. 모든 길은 金剛山으로 통한다 176

- 1 '하늘내린 인제'에 서린 王氣 176
- 2 청산이 묻고, 바다가 삼킨 두 이야기 182  
백두대간의 빨치산 루트 183  
바다가 삼킨 해상테러 일지 186
- 3 남강 2백리에 펼쳐진 자연사박물관 189
- 4 권력자마저 추억으로 만나는 화진포 193
- 5 해금강에서 해금강 길을 묻다 197

스토리 맵핑, DMZ 그리고 민통선

# 민통선의 삶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 1

## 천년 고도의 새 주인

### 1 “저기 오리산이 보인다”

송강 정철이 그랬던 것처럼, 철원에 왔으면 철원성부터 가 볼 일입니다. 우리가 늘 궁예도성이라고 하던 그 성입니다. 궁예도성, 궁예성, 궁예왕궁, 궁왕도성, 태봉도성, 태봉국 도성, 철원도성... 고려 시대부터 조선 왕조,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성은 이름도 많았습니다. 이 헛갈리는 이름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 강원연구원이 ‘궁예도성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연구할 때이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도성을 부를 때는 ‘왕조명+지역명+성’으로 합성합니다. ‘고구려 평양성’, ‘조선 한양성’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철원성도 ‘태봉국 철원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20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도 ‘태봉국 철원성’이란 명칭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동별곡에서 ‘천고홍망을 어느나 모르느냐’고 한 것으로 보아 정철이 철원성을 찾아갔을 때도 황성옛터는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청준이 생전에 철원 풍천원, 평강고원 남쪽 기슭 DMZ에 묻혀있는 철원성을 와봤다면 아마 이어도(離於島)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설 ‘이어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궁예왕이 세운 태봉국의 수도 철원성, ‘DMZ의 성’도 이어도처럼 늘 거기 있어왔습니다. 그 성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살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궁예궁전의 옛터가 동주(東州, 철원의 옛 지명)의 북쪽 27리 풍천벌에 있으며 지금 그 위성의 둘레는 1만 4421척(4,370m)이요, 내성의 둘레는 1,905척(577m)인데 절반이나 무너졌으며 궁전의 터가 아직도 완연하게 남아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조 지리지 ‘신증동국영지승람’은 안팎의 성 모두 밑은 돌로 쌓았고, 위는 흙으로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보물 고적조사 자료(강원도편)’는 ‘신증동국영지승람’의 기록을 이렇게 정정하고 있습니다. 외성은 6,000칸, 즉, 36,000척(10,908m), 내성은 400칸 즉, 2,400척(727m)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 성은 토석축성이며 높이 4~12척, 폭 12~16척, 안성은 높이 7척, 폭 12척의 토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1년 철원성의 기록은 다시 정정됐습니다.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철원성 답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철원성은 알려져 온 것보다 더 컸습니다. 성은 둘레 1.8km의 왕궁성과 7.7km의 내성, 12.5km 외성으로 된 3중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대문터는 아카시아 군락지가 차지하고 있었고 남벽은 옛 경원선 철길이 허물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높이 1m, 길이 50~60m쯤 성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성 남벽 서쪽 부분에는 길이 20m, 하단 폭 6~7m, 높이 3~4m의 토성이 확인됐고, 내성 남벽의 경우 길이 400~500m 정도의 토성이 연결됐습니다. 외성동벽은 130m 가량은 말짱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성 모습이 확연했다고 합니다. 궁궐터, 미륵전 터는 찾지 못했고, 2007년 가을 문화재청이 흑백사진으로 공개한 일제 강점기 국보 제118호(1940년 7월30일) 석등 2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궁궐터나 남대문터 어디쯤에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철원성은 DMZ 속에서 대체로 남북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대궐 터인 옛 고궐리 한 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가면서 도성을 정확히 남쪽에 반쪽, 북쪽에 반쪽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도성의 어느 한 귀퉁이가 DMZ 밖으로 비쪽 빠져나오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군사분계선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런 구도를 빚어냈습니다. 즉, 정확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던 군사분계선은 궁에도성 앞에서 방향을 남서쪽으로 급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DMZ도 군사분계선의 방향에 따라 남서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



#### 철원 풍천원 DMZ 속의 철원성

습니다. 스키 플레이트를 경차라도 대각선으로 놓으면 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장방형의 도성도 DMZ 속에 들어앉아서 멀리 남서쪽 지평선에 서있는 금학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철원성과 DMZ의 기하학적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궁예가 세우려던 ‘대동방국’의 이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의 통일이상과 그때의 통일천하 이상은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완충기의 궁예의 나라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독립과 분단에서 통일시대로 넘어가는 완충기로 상징되는 DMZ의 역사적 상황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별판은 거기 황성옛터에 새겨진 깊은 뜻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태봉국의 수도가 평강고원 너머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밋밋한 풍천원(楓川原) 별판에 멋없이 세워져 있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봉국이 망하고 고려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던 도참설을 인용해 그 별판의 18년 단명 왕조의 수도건설은 실패작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대동방국의 이상을 잉태한 태봉국의 수도가 평강고원 배꼽산이라고 부르는 오리산(鴨山, 452m) 아래에 건설된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원선 열차가 평강역으로 들어서기 십여 리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낮은 산, 봉긋 솟은 평강고원에 한 줌 흙덩어리처럼 산 같지 않은 산. 백악기라고 하는 먼 옛날 이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한라산, 백두산처럼 용암이 분화구를 통해 뿜어 나오지 않는 대신 벌어진 지각 틈을 따라 쿵쿵쿵 마그마가 흘러 나왔습니다. 오리산이 토해 놓은 용암은 온 천지를 검붉은 ‘핏물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면서 멀리 문산까지 97km나 흘러갔습니다. ‘핏물의 바다’에 빙하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간빙하기가 되어 그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평강, 철원, 포천, 연천, 파주까지 무려 직경 150km에 이르는 용암대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용암대지에서 세계 고고학계를 발각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레그 보웬(Greg Bowen),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경기도 동두천 미2사단 병사. 1978년 1월 20일 금요일, 그에게 세계 구석기 역사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부인이 될 한국인 애인과 함께 한탄강 유원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긴 현무암 강변입니다. 그는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돌맹이 3개를 주워들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가 분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의 눈에 가로날도끼 2개도 마저 들어왔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보물을 확인해 줄 학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구석기 권위자인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에게 유물 사진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이 선복, ‘고고학이야기’에는 그때 보르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면 나는 의심 없이 아슐리앙 문화의 석기라고 말하겠다. 직접 현장을 보고 싶은 중요한 발견이다.”

프랑스의 생 아술 유적에서 처음 발견된 아슐리앙 주먹도끼. 위는 둥글게 다듬고 아래는 뾰족한 날이 서도록 깎으면서 날 옆면은 우둘투둘한 날이 겹겹이 서도록 돌 둘레를 쳐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아주 유용한 당시의 첨단 기구였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보다 더 오래된 고인류들이 쓰던 도구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석기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될 뿐 ‘문화가 저급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슐리앙 주먹도끼가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급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던 가설이 와르

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고고학계가 발각 뒤집혔습니다. 대학합동발굴단은 4천점의 구석기시대 뎀석기(打製石器), 그것도 아슐리앙 주먹도끼들을 발굴했습니다. 전곡리 유적은 급기야 구석기학의 최고 권위자 존 데즈먼드 클라크 버클리대 교수가 전기 구석기에 해당되는 유적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세계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전곡리 유적은 세계고고학지도에 당당히 등재됐을 뿐 아니라 미국 고고학 전공서적에도 포함됐습니다. 보웬이 발견은 고고학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놓는 세계 고고학계의 혁명이었습니다.

궁예왕이 거친 풍천원 벌판을 서슴없이 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습곡단층대가 충돌한 땅의 봉합점, 한반도 인류사를 까마득히, 세계에서 가장 먼 옛날로 깊이 끌어내린 인류를 배태한 산, 그 흔적으로 직경 125m의 분화구를 배꼽처럼 달고 있는 ‘배꼽산’. 왕은 거친 평강고원에서 땅의 기운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리산이 배꼽이면 풍천원 철원성은 단전(丹田)입니다.

## 2 다시 그때처럼 1만 명이 입주했다

정말 철원성은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으면서 1,100년 긴긴 세월을 그곳에 있어왔습니다. 궁예왕의 대동방국 건설의 꿈이 깃든 ‘이상의 섬’, 이승의 고난을 다 내려놓으라고 궁예가 설파하던 미륵신앙의 메카, ‘피안(彼岸)의 섬’. 그래서 이어도라고 하던 도성이 그렇게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레가 12.5km, 30리 쯤 되는 성은 얼마나 큰 성일까요? 태조 4년에 쌓은 한양성의 길이가 59,500척, 18.2km입니다. 철원성이 한양성 만큼 크지는 못하지만 한성백제의 풍납토성(둘레 3.5km)의 3배, 신라의 경주 월성(1.8km)의 5배, 고구려의 국내성(2.7km)의 4배쯤 되는 크기입니다.

태봉국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 이 거대한 철원성을 쌓고 그곳에 살았을까? 역사는 그 해답을 ‘청주 사민 1,000호’라는 대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민(徙民)의 사전적 의미는 ‘백성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적 이주’입니다. 청주 사람 1천호, 당시 호당 인구를 10명으로 본다면 약 1만 명이 청주에서 철원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청주시청에서 철원군청까지 거리를 스마트폰에서는 198.2km라고 가리킵니다. 택시로 2시간 28분, 21만8896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물론 잘 발달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 것이지요. 그 옛날 길도 절도 없던 시절 청주에서 철원이란 지구 반대편만큼이나 먼 거리였을 겁니다. 1만 명을 집단 이주시킬만한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사람들이 후백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 집단인질극이었을까? 이제 궁예왕의 궁궐에서 살게 된다는 수도선민의 자부심 때문이었을까? 풍천원이나 평강고원이 넓기는 하지만 농사짓는 땅은 못되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유는 안 먹였을 게 뻔합니다. 어쨌든 청주인은 철원성이라는 인공도시의 첫 입주민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철원까지 찾아온 1천호 청주인은 결코 후백제에 가담

하지 못하게 끌어온 집단 인질도 아니고, 궁예성 노역에 동원된 부역자도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철원을 찾아온 청주인들이 몰락한 신라 진골의 후손들이라는 기록을 보더라도 그들은 결코 무지렁이들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궁예왕의 이상에 동조하며 이상향을 꿈꾸며 그 먼 길을 걸어온 파이오니어들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철원평야는 역사 속에서 줄곧 유토피아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전하면서 철원평야 6만5,000ha의 땅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1908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일본 사람의 향도(鄕都)농장이 생겼습니다. 그 농장을 관리할 12세대의 일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 야마구찌(山口)현 출신의 범죄자, 부랑자들입니다. 조선시대 ‘조정(抄定)사민’처럼, 일본의 골치 아픈 폭력배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일본의 국책회사 동양척식은 1924년까지 철원일대에 6만ha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민간기업 불이(不二)농장은 1만240ha, 팔랑(八郎)농장은 1,000ha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들 농장은 이 토지를 관리할 일인들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1913년 현재 철원의 일본인 인구는 289호 7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17년 또 다른 정책이주민이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와 장흥리에 정착했습니다. 평안도 용천 정주에서 김, 이, 장, 지 씨 등 4개 성씨의 10여 세대가 불이농장의 소작인으로 모집되어 마을을 이루면서 ‘평양촌(피양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현 동송읍의 오덕초등학교는 1930년 3월1일 동송보통학교로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쟁에 파괴되고, 임시 교사가 남아 몇 차례 다시 지었고, 교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정문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평안촌민들이 그 때 개교기념으로 세운 것이어서 주민들이 철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1927년 불이농장은 경상도에서도 소작인을 모집해 왔습니다. 권, 이, 손, 김씨 등 4개 성씨 10세대가 장흥2리 신촌에 '경상도 촌'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그들의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한국 남부 농촌 인구는 끊임없이 북부 광공업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촌민은 북쪽에서, 경상도촌민들은 남쪽에서 한반도 한 가운데로 가기를 택하였습니다. 철원 평야가 그들을 '여기가 유토피아'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영농은 반드시 갈대밭으로 변해 버린 옛 논과 밭을 개간 할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진 게 아닙니다. DMZ와 민통선북방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즉, 민통선북방지역에 건설된 98개의 자립안정촌, 12개의 재건촌, 2개의 통일촌, 즉 12개 민통선북방마을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가장 많은 전략촌이 생겼습니다. 철원사람들의 일상에는 민통선 북쪽을 지칭하는 '민북'과 그 이남 '민남'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민북은 철원평야 60%가 들어 앉아 있는 노른자위 땅. 그대로 방치되던 이 땅을 농경지로 재가동하고 대북 선전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대적 정책이주가 단행됐습니다.

1959년 4월 10일 철원을 월하리에 72세대 353명이 집단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11월 29일 철원을 관전리에 32세대가 입주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975세대가 집단이주했습니다. 1,100년 전 ‘탈청주’ 행렬이 유토피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철원에서만 1,000호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정책이주를 한 것입니다. 20세기판 정책사민이었던 것입니다.

### 3 철원평야에 묻힌 ‘전설의 도시’

옛 철원, 사라진 그 도시 여행은 수확이 끝난 늦가을이 더 좋습니다. 지뢰밭 숲에서 여름내 보이지 않던 무너진 시멘트 벽체, 주춧돌들이 얼굴을 내밀고, 작은 내에 걸려있는 금강산 가는 녹슨 철교도 이때쯤 선명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농산물 검사소를 벼, 콩, 옥수수, 밀, 보리 등을 검사하는 용도로만 썼을까요? 거긴 한반도의 식량자원 즉, 유전자 자원이 탐색되던 자리였을 게 분명합니다. 겨울에 산명호 얼음을 보관했다가 여름에 내다 팔았다는 철원판 석빙고 얼음 창고는 과거 여기가 얼마나 큰 상업 도시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철원은 한국의 상수도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1936년 1일 급수량 1,500t, 2천500명이 수도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300여 명의 양민을 수장시켰다는 슬픈 얘기를 담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울리리의 철원수도국 저수탱크와 정수장이 철원의 상수도 규모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촌리 565번지 지금의 철원역은 1988년 관광용으로 재현한 이미테이션입니다. 플랫폼, 신호기, 침목과 레일을 마치 옛날 것인 것처럼 그럴 듯 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원역은 서울까지 101km, 원산까지 125km에 이르는 경원선의 가장 큰 경유역이자 내금강까지 116km에 이르는 금강산전철의 시발역입니다. 5만평 부지에는 80명의 역무원이 근무하는 2층 붉은 벽돌 역사와 구름다리, 금강산 전기철도회사와 전철차고가 들어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관전리 100 번지일대 동산에는 철원제일교회유적이 무너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철원제일교회는 동대문 밖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였습니다. 1937년 대지 1,200평, 건평 198평의 2층 예배실과 3층 갤러리가 있는 고딕식 석조건물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공사비 2만7,200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사는 미국인 스톡스. 그는 1905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보리스(Willim Merrel Vories 1880-1964)에게 설계를 맡겼습니다. 보리스, 이화여대 중앙강당을 설계한 당시로서는 탑 건축가였습니다.

화강암 석축을 중국인 기술자들을 불러다 쌓았을 만큼 설계는 물론 시공까지 여간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니다. 철원제일교회는 보리스의 자료에 ‘Chulwon, 1936, Church for Methodist Mission-Dr.M,B.Stocks’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리스는 1938년 목사를 위한 주택(목사관)도 이 부근에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사관은 그의 자료에 ‘Chulwon, 1938, Methodist Mission House’로 남아 있습니다. 두 건물의 설계



무너진 철원제일감리교회

도면은 지금 일본 오사카 예술대학 건축과에 소장돼 있습니다.

무너진 철원제일교회 옆에는 새로운 ‘철원제일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사카 예술대학에서 그 설계도를 복사 해다 참고해 지은 교회입니다. 일제 때 철원중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도 일본 학생들에 섞여 공부했습니다. 철원에는 그때 일본학생들을 동창으로 둔 노인들이 몇몇 생존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설계도를 복사 해 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1937년 발간한 철원읍지에는 당시 철원읍 인구가 4천269가구, 1만9천69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5,

은행4, 행정기관 34, 여관, 식당, 술집은 103군데나 됐습니다. 1990년대 초 발행된 철원군지는 1945년 8월15일 현재 철원읍 인구가 그때보다 2배나 늘어난 3만7천855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등은 그대로였겠지만 여관, 식당, 술집 등은 엄청 늘어났을 것입니다.

일본의 야심찬 그 인공도시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미군 B-29기는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이미 군사물자 공급처이던 철원역을 폭격했습니다. 철원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채 해방을 맞았을 게 틀림없습니다. 38도선 이북 북한 땅에 들어앉은 상처입은 철원이 제대로 치료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전장이 돼버린 이 옛 도시는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핑크스 얼굴에 포사격을 한 무지는 오스만 투르크나 나폴레옹 군대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철원 별판 석빙고, 얼음 창고 벽 안쪽에는 커다란 호박 크기만 한 구멍들이 뚫여있습니다. 무슨 구멍일까요? 지금은 형편없는 재래식이지만 한국군이 토우 미사일이라는 신형 무기를 들여온 적 있습니다. 시멘트 관통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용으로 얼음창고 벽에다 조준사격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까짓 일본 건물인데 어때?”하고 할 수 있겠지만 문화유산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행 건물은 금고가 들어갈 자리를 가장 견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서진 은행건물마다 다 헐려 나가고 금고자리만 남아 있는 이유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철

원제일교회에 대한 증언을 보면 유적은 포탄이나 폭탄만 파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록이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1.4후퇴 때 인민군과 중공군이 예배당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양민을 데려다가 고문도 하고 학살도 했습니다. 그들은 UN군이 교회만은 폭격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던지 하루는 UN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했습니다. 당초 지붕은 그렇게 날아 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수복 후 주민과 군인들이 합작하여 석축한 화강암을 뜯어다 팔아먹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에 되었습니다” (감리교와 역사)

#### 4 자본주의 건축 그리고 사회주의 건축

북한은 해방과 함께 38도선 이북의 철원을 해방공간의 혼란기 바다에서 마치 보물선 인양 송두리째 인양하였습니다. 그리고 1946년 없는 게 없는 이 도시를 잠깐 강원도청 소재지로 삼았습니다. 그 해 노동당철원군 당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있는 접경지역입니다.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된 시점에서 본다면 철원은 남한과 맞닿아있는 북한의 접경지역입니다.

북한은 대남 최전선에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노동당사를 지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욱이 노동당사 이층 테라스에서는 서쪽 정면으로 소이산 중턱의 한 건물터가 바라보입니다. 남대문 신사 다음으로 컸던 철원 신사가 서있던 자리입니다. 북한 정권수립당시 일제잔재 청산을 부르짖었으니까 노동당사의 기로 신사 터를 눌러보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란 짐작도 됩니다.

3층 슬래브는 지붕과 함께 사라졌습니다만 노인들은 이 집의 지붕은 기와를 이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해방 직후 설계해 1946년 초에 착공, 그 해 말에 완공됐는데, 러시아 건축양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아 당시 소련군의 기술지원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직선을 강조한 전형적인 사회주의 건축입니다. 남쪽에 남아있는 유일한 북한 건축 유적일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철원 별관에 일제가 지은 어떤 건물보다도 잘 지었다고 주장했다는 이 건물도 찬찬히 살펴보면 날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34m, 깊이 11.5m, 높이 12m, 연건평 570평이나 되는 이 대형 건물이 ‘무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이 우선 상식 밖입니다. 벽체에는 시멘트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시멘트의 질이나 양생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너질세라 철근으로 곳곳을 떠받친 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일제가 완성한 옛 철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독 노동당사만 전화를 견뎌 독야청청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만큼 잘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썩 잘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아마도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94년 가수 서태지가 노동당사에서 ‘발해를 꿈꾸며’라는 뮤

직 비디오를 찍기 전까지 이 흉측한 건물은 이마에 저주의 머리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의 왕’이라는 풋말을 붙여 조롱했습니다. 노동당사도 30여 년이나 그 머리에 “이 건물은 북괴 노동당사로서 양민을 학살하던 곳이다!”란 붉은 글씨의 풋말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쳐다보기도 싫은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노동당사 34계단에는 탱크가 밀고 올라간 캐터필러 자국이 박혀있습니다. 북진하던 미군의 셔먼 탱크들은 오른 쪽 광장 너머로 증오의 건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탱크 한 대가 대열을 이탈해 공포의 권력기관, 그 저주의 건물을 향해 돌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계단을 무너뜨리며 정문으로 올라가 서서히 포신을 내려 건물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탱크는 경련 하듯 온 몸을 떨며 시뻘건 불덩어리를 토해 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노동당사의 정문 맞은 편 허물어진 벽에는 오래전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탄강에도 사회주의 건축물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남한이 반을 놓고 북한이 반을 놓아 ‘이승만’, ‘김일성’ 이니셜을 따 명명했다는 승일교입니다. 옛날 철원 문혜리에서 이천으로 통하던 463호 지방도에 걸려있는 다리입니다. 높이 35m, 길이 120m, 폭 8m로 당시 철원농업전문학교 토목과 과장 김명여(金明呂) 교사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씨는 일본 구주공전(九州工專) 출신으로 진남포 제련소 굴뚝을 설계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흥미 있습니다.



승일교 그리고 한탄대교

1948년 8월 이 다리는 옛 한탄나루에 ‘漢灘橋’라는 이름으로 착공 됐습니다. 1950년 초, 기초 공사와 2개의 교각이 완성되고 북쪽으로부터 아치형 상부공사가 진행돼 절반 정도 마쳤을 때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다리는 군 작전상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군 79공병대대는 미완성이던 다리 남쪽 아치형 상부공사를 마치고 목조 가교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 다리 공사에 참여했던 한국인 노무자 중 한 사람이 다리 머리에 먹으로 ‘承日橋’라고 멋들어지게 써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1954년 수복과 함께 한국군 5군단 공병대는 목조 가교가 헐

어내고 시멘트 상판을 깔았습니다. 당시 한탄강에는 한국군에 의해 3개의 다리가 새로 놓이거나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5군단 출신의 전쟁영웅들의 이름을 이들 다리에 새겨 놓기로 했습니다. 마침 승일교의 ‘승일’과 이름이 같은 8사단의 한 연대장 고 박승일(朴昇日)대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일교는 한글로는 같은 이름, 한자로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 다리도 8사단의 연대장 고 김근홍대령의 이름을 따다 ‘근홍교’로 명명했습니다. 세 번째 다리도 역시 8사단의 연대장 고 김영로 중령의 이름을 따다 ‘영로교’가 되었습니다.

승일교 옆에는 3개의 다리가 나란히 놓여있습니다. 낮은 시멘트 난간의 오래된 다리는 1948년 북한이 착공한 승일교, 오렌지색의 철제 아치형 다리는 1996년 남한이 놓은 한탄대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리를 본 따 최근에 놓은 크고 우람한 다리입니다. 본의 아니게 ‘자본주의 건축’과 ‘사회주의 건축’의 비교전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승일교는 일본 구주 공대 출신 북한 엔지니어가 설계했으니까 일본식 다리입니다. 또 미군과 한국군이 마저 놓았으니까 일·북·미·남이 차례로 놓은 다국적 다리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 5 관동팔경 그 길에 놓인 금강산전기철도

철원평야는 평강고원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가다 굳어 버린 현무암대지입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위 밭을 일군

태봉국을 왕건이 점령했습니다. 고려왕국은 옹고집에 포획하기  
 그지없었던 애꾸눈 왕 궁예의 황성옛터를 돌아다보지도 않았습  
 니다. 역사도 그 땅을 궁예와 함께 내팽개쳐 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벌판에서 일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검은  
 현무암 곶보돌, 구멍 송송 뚫린 구멍돌이라고 부르다가 그  
 냥 명돌이 돼버린 그 명돌의 가볍고 다루기 쉬운 효용성이었을  
 지 모릅니다. 궁예왕이 쌓은 철원성도 안쪽은 명돌입니다. 최고  
 의 건축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철원제일교회도 시멘트 벽체 속  
 은 명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수한 건축자재가 무진장으로 나뒹굴고 있  
 는 철원이 관동과 관북의 관문 그리고 유라시아의 교두보, 무엇  
 보다 금강산의 현관이란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일제는 동  
 해안 강릉, 삼척, 울진으로 가기 위해 철원에서 시작한 송강의  
 관동별곡의 여정을 눈 여겨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임  
 진왜란 때 왜군 4번대 주장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가 울진 지  
 방의 보급항을 찾기 위해 달려갔던 한반도 침탈의 길이 철원서  
 시작됐다는 사실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전 기념물처럼, 1914년 9월, 서울~원  
 산을 잇는 길이 223.7km의 경원선을 개통했습니다. 이어서 동  
 해안 안변에서 흡곡, 고성, 양양까지 철도를 이었습니다. 양양  
 군 서면 장승리 자철광광업소로 이어지는 자원수송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느새 관동과 서울을 잇는 여객교통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강릉사람들이 양양 역까지 와 서울 가는 기차를 타

기도 했으며 원산여고나 원산사범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길이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새벽 5시에 출발하는 첫 열차와 10시, 오후 4시와 9시 등 하루 4차례 운행하였습니다. 금강산 외 금강 역을 지났기 때문에 금강산 유람객, 수학여행이나 소풍가는 학생들도 이 철도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삼척·울진·포항까지 연장하여 동해남부선을 통해 부산까지 연결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안변으로 돌아 동해안으로 남하하는 그 길 대신 금강산을 관통하는 철도가 구상됐습니다. 처음엔 창도 일대의 풍부한 철을 철원을 경유해 경원선을 통해 흥남제련소로 수송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1921년 철원~김화~금성~창도 구간에 철도부설이 착수됐습니다. 5년 만에 완공된 철도 개통식에서는 증기기관차가 테이프를 끊었다고 합니다. 1931년엔 내금강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태백산맥의 등뼈를 넘어가는 51.6km의 난 구간이었습니다. 해발 1,000m의 단발령, 가파른 그 고개를 곧바로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거듭하는 스위치 백 시설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해 금강산수력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회양군 화천(花川),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고 한 관동별곡의 그 강에 일본의 실업가 쿠메다미노스케(久米民之助)가 건설한 동양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입니다. 7월 1일 이 발전소가 금강산철도 111.6km 전구간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철도는 금강산전기철도로 개명됐습니다.



끊어진 금강산전기철도

금강산전기철도는 금강산을 관통해 통천에서 동해북부선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접히고 말았습니다.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이 철도는 1942년 경성전기주식회사가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44년 10월엔 2차 대전 군수물자 조달용으로 창도~내금강 간 레일을 걷어내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송강의 관동별곡 여정을 따라가던 금강산전기철도는 '1937년 기준 여객 15만 3,092명, 수화물 16,420매, 화물 1만 423톤을 수송, 운행횟수는 1일 8회, 요금 7월 50전(쌀 1가마)'란 기록을 남기고 내금강에서 발을 멈춰야 했습니다.

금강산전기철도는 전노선이 38선 북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철도는 8.15광복 이후 북한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 시장을 잃은 후였습니다. 관광철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철원, 사요, 동철원, 동송, 양지, 이길, 정연, 유곡 등 본역 3곳과 간이역 4곳은 DMZ 남쪽에 있습니다. 김화, 광삼, 하소역은 DMZ 속에 들어가 있거나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항정, 백양, 금성, 경파, 화감, 남창도, 창도, 기성, 현리, 하파, 화계, 오랑, 단발령, 내금강역은 북한 땅에 있습니다.

DMZ 남쪽의 금강산전기철도의 레일이 사라진 것처럼 DMZ 북쪽의 레일도 사라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사라진 금강산 전기 철도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철둑, 철교, 옛 역사터 심지어 전력을 공급하던 송전탑이 지금 그 자리에서 유적이 되어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레일만 다시 깔면 전철이 복원될지 모른다는 꿈은 항상 유효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DMZ 남쪽 철원~유곡간 24.5km 구간을 복원하려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DMZ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 북쪽의 나머지 구간 87.1km를 연결하면 그 철도는 복원되는 셈입니다.

안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고성 온정리에서 끊긴 동해북부선은 동해선으로 이름을 바꿔 DMZ너머 고성 저진역까지 남하해 있습니다. 송강의 관동별곡의 길은 이제 철도로도 완성되는 찰나인 것입니다. 곧 관동별곡의 그 길을 열차로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2

## 그곳에선 철새도 인간이다

### 1 민통선 첫 입주자 ‘지뢰’

민통선 검문소를 넘어오는 순간부터 빨간 역삼각형 ‘지뢰 Land main’ 표지판. ‘지뢰미확인지대’란 경고 표식이 쫓아옵니다. 저 표지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DMZ 일대를 여행하는 동안 줄곧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 잘 때도, 잘 다듬어진 트레킹 코스를 걸을 때도,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사색할 때도 여지없이 저 표지판의 감시를 당합니다.

민통선에서는 ‘지뢰’가 삶입니다. 민통선이 70여 년을 앓고 있는 고질적인 지병입니다. 암(癌)은 아직도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뢰도 밟기만 하면 무조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민통선 주민 가운데 지뢰를 밟을가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통선 사람이 모두 지뢰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민통선엔 지뢰가 첫 입주자입니다. 개척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먼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텃세를 하듯 민간인을 괴롭힙니다. 민통선의 악성 종양인 것입니다. DMZ가 아름답다, 평화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악성 종양의 공포에서 벗어났을 때의 얘깁니다. DMZ를 자연의 보고라고 하기도 하지만 역시 지뢰를 빼어놓고 얘기할 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뢰 때문에 숲이 보호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뢰가 인간의 접근을 막아 자연이 보존된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 보존의 역설입니다.

한때 민간인 통제구역 속에는 대규모 지뢰 미확인지대가 65군데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69km<sup>2</sup>에 이릅니다. 여의도의 8배 쯤 큰 면적입니다. 어떤 것은 들판을 횡단하는 기다란 띠 모양이며, 어떤 것은 작은 동산, 작은 벌판 하나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지뢰가 묻혀있을까?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뢰밭 숲이 천연덕스럽게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그곳을 막연히 온갖 동식물이 맘껏 뛰어 노는 자연의 천국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뢰는 태생적으로 비겁한 존재입니다. 덩치 큰 대전차용 지뢰가 세상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말기 지뢰는 탱크 잡이 무기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크

고 무거웠습니다. 기껏 물어두면 적군이 파내다 아군 탱크 길목에 물어 놓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전차 지뢰를 흠치러오는 적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은 지뢰가 필요해졌습니다. 대인지뢰는 그런 필요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무기입니다.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80%가 민간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희생자가 20%나 됩니다. 지구상에서 162만 7,000마리의 코끼리, 호랑이, 레오파드, 사슴 등이 지뢰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는 야생동물보호단체도 있습니다.

지뢰의 주성분은 플라스틱이나 쇳덩어리와 화약 덩어리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생명체, 그것도 지능을 갖춘 고등생물인 게 틀림없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는 지구에 기생하는 독충(毒蟲)인 것입니다. 지뢰가 생명체라는 것은 우선 그 엄청난 번식력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에 출현했으면서도 그 세기가 가기도 전인 1999년 이미 87개국에 1억 1,000만발이 매설돼 있다는 랜드마인 모니터의 보고입니다. 2억 5,000만 발은 어디선가 분쟁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대기 중인 비축 지뢰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지뢰는 약 3억 6,000만 발. 지구인 17명당 1발씩의 지뢰를 갖고 있을 만큼 왕성한 번식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뢰는 걸어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강원도 양구군 해안분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모 여인은 7살짜리 아들을 지뢰로 잃었는데 자신도 발목을 잃는 불운이 겹쳤습니다. 마

을 앞 개울에 밭을 담그는 순간 지뢰가 터졌습니다. 밭으로 갈 때 늘 건너던 곳이며, 빨래를 하거나 채소를 씻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지뢰가 걸어와 그곳에 숨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며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지뢰는 정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강화도 남쪽 외딴 섬 세어도에서, 2000년 9월과 10월 석모도에서 민간인 세사람이 지뢰를 밟았습니다. 100g짜리 폭풍지뢰들입니다. 지뢰들이 홍수가 난 강을 따라 DMZ를 벗어나 수 백 리 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도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대교천 등 DMZ의 강에서 해마다 수십 발, 많게는 수백 발의 유실지뢰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 지뢰는 생물, 지능을 갖춘 고등생물

지뢰는 생각하는 쇳덩어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대체로 커다란 나무의 땅속 깊은 뿌리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이 큰 나무를 자를 텐가, 나를 제거할 건가?”

그들이 민통선지역 지뢰미확인지대에서 마치 자연환경보전에 목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듯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숲을 포기하더라도 지뢰를 제거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인간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지역에서 송전탑 설치 공사 중 불가피하게 지뢰 제거 작업을 벌릴 때였습니다. 약 28억

원의 지뢰 제거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겨우 13발의 지뢰를 수거하였습니다. 지뢰는 인간하게 톡톡히 몸값을 챙긴 셈입니다. 정말 지뢰는 생각할 줄 아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 잔혹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놈들이 DMZ 전역, 민통선 곳곳에 묻혀있습니다. 돌 틈, 나무뿌리 사이, 갈대 밭 속, 가랑잎 밑, 진달래꽃 그늘, 짙레꽃 넝쿨 속, 곰취밭, 큰길가, 오솔길, 두더지굴 옆, 실개천, 모래밭, 심지어 웅달샘 가재 집에게까지 외계에서 온 생명체처럼 은신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것일까? 국방부가 집계한 남한 지역의 대인·대전차 매설지뢰는 112만 5,000발. 이중 7만 5,000발은 수도권 이남의 후방 군부대 주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는 DMZ 와 그 인접지역에 묻혀있습니다. 매설 면적은 대략 2억 9,700평. 지뢰미확인지대의 43배나 되는 면적입니다. DMZ 북쪽도 비슷한 양이 묻혀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통틀어 약 200만 발의 매설지뢰. 그것은 한국이 지뢰 다매설 지역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전 세계 20%가 넘는 2,300여 만 발의 지뢰가 묻혀있다는 이집트, 그리고 이란(1,600만발), 양골라(1,500만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각각 1,000만발), 쿠웨이트(500만발), 보스니아(300만발), 베트남(350만발), 모잠비크(300만발)에 이어 랭킹 10 위입니다.

놈의 머릿속에는 오기와 단기의 생명인자가 입력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는 자신을 땅에 묻어

새 삶을 준 당사자라 하더라도 무차별 다리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는….

## 2 민들레 별판에 민들레는 피지 않는다

옛 금강산 전철이 지나가던 길목에 민들레 별판이라는 들판이 있습니다. 옛 철길이 DMZ 철책선과 나란히 빈 별판을 달리고 있어서 더욱 가슴 아픈 곳입니다. 옛날 평강 남쪽, 김화 서쪽, 철원 동쪽 끝이 만나는 꼭지점이고 평강에서 남쪽으로 흘러오는 한탄강과 북쪽으로 흘러가는 김화 화강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곳입니다. 지금은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 눈이 모자라게 넓은 별판이고 금강산전철도 횡단하는 곳이어서 철원 사람들은 언젠가 남북이 합의해서 평화시를 세운다면 “바로 여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길 왜 민들레 별판이라고 부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의 어느 아침, 병사는 속절없이 피어있는 샛노란 민들레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별판 가득 민들레 꽃밭이었습니다. 노랑. 그것은 평화의 색깔입니다. 민들레들이 이젠 전쟁을 끝내라고 부르짖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민들레 별판’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민들레 별판이 되었다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민들레는 전쟁터에서 쓰는 지뢰의 은어일지 모른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마침 민들레 별판에서는 북동쪽으로 중공군이 요새로 만든 오성산이 뻗히 바라보

입니다. 그들이 언제 저 별판으로 달려 내려올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은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 저 별판에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흩날리듯 지뢰를 뿌려라. 아니 민들레를 뿌려라! 적군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 후 민들레는 피지 않아도 민들레 별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들레 별판이 온통 지뢰밭인 것을 보면 일리가 없지 않지만, 민들레가 지뢰의 은어였다는 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1987년 여름, 철원군지(鐵原郡誌) 편찬위원들은 ‘민들레 별판’이라는 지명을 놓고 머리를 가웃거렸습니다. 도대체 민들레 별판의 지명 유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향토사학자 김영배 위원이 “그 별판에 나뉘구는 현무암 덩어리, 천연두 자국보다도 더 박색으로 얽은 송송 구멍 뚫린 구멍돌, ‘곰보돌(variolite)’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돌은 고열에 견디다 못해 온 몸에 다닥다닥 발진을 일으키는 천연두를 앓은 아이처럼, 바위는 새까맣게 타다 못해 온 몸에 가스가 빠져나간 구멍으로 박박 얽어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남남서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양분하고 있는 추가령 구조곡, 언제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협곡에서 그 옛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평강 서남쪽 5km 거리에 솟아있는 오리산(鴨山, 452m)과 경원선 검불량역 부근 해발 680m의 고지였습니다. 분출한 용암은 철원과 평강, 이천, 김화, 회양에 엄청난 넓이의 현무암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철원 북쪽 현무암 대지를 비집고 흐르는 한탄강이 이 곰보돌들을 끊



민들레 벌판 한탄강철교

임없이 남쪽으로 굴러 내렸습니다. 평강, 철원, 김화 땅이 경계를 이루는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맞은 편 한탄강과 남대천이 만나는 벌판에 현무암 돌덩어리들이 쌓였습니다.

눈이 모자라게 넓은 벌판에 나뉘는 그 현무암 덩어리를 철원사람들은 '구멍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있으니까. 나중에 '구'자는 빼고 '명돌'로 고쳐 불렀습니다. 명돌로 뒤덮인 벌판이니까 '명돌밭'이 됐을 것입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명돌밭' 들판은 어느 마을에서나 멀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곰보돌 벌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판을 가리킬 때는 ‘먼 명돌뜰’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구명돌’에서 ‘구’자를 빼고 ‘명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먼 명돌뜰’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먼뜰’, ‘먼들’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 지방의 방언음운은 ‘ㄱ’ ‘ㅋ’를 ‘ㄱ’로 발음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로 시작되는 동요를 아이들은 ‘아제씨, 아제씨 우체부 아제씨’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이들이 듣기에는 ‘먼들’도 ‘멘들’로 들렸을 것입니다. 미군은 주민들에게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이 별판의 이름을 물었을 것입니다. 주민은 ‘먼들’이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멘들’로 들렸을 것입니다. 군사 지도에 이 들판이 ‘Mendle’로 표기된 이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이들 귀에는 영어로 옷을 갈아입은 ‘Mendle’이 ‘민들레’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걸 ‘민들레’로 읽기도 했을 것입니다. 민들레가 피지 않는데도 그 별판은 그런 이유로 ‘민들레 별판’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 · 창랑정 터에 세워진 세직정

민들레 별판을 동서로 가르며 한탄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와 금강산전기철도가 한탄강을 건너 민들레 별판을 남북으로 가르며 동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DMZ와 금강산전기철도와 한탄강이 만나는 그 언덕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월탄(月灘) 황근중(黃謹中)이 정사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랑의 물 맑으면 갯끈을 빨 것이요’라고

한 굴원의 어부사를 슬쩍 빌어다 ‘창랑정(滄浪亭)’이라는 편액을 달았습니다.

창랑정은 혼자 몇 부리기가 쑥스러운 듯 주변에 육모정(六牟亭), 무릉정(武陵亭), 적벽(赤壁), 약수(藥水), 월탄(月灘), 백운봉(白雲峯), 풍혈(風穴)을 모아 정연8경을 두었습니다. 병자호란에 불타고, 6.25전쟁에 포화를 맞으며 수난을 겪은 그 정자가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살기등등한 DMZ에서는 그 아름다운 정자의 풍광이 남아있는 것보다 남아있지 않는 편이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정연8경은 그대로 있지만 칠푼쿨, 다래 줄기에 얽혀 어디 내세울 데 없는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창랑정이 그 자리에 남아있어도 아마 옛 사람들의 감동하던 그런 풍광은 아닐 것입니다.

창랑정 자리에 6개 시멘트 기둥의 정자가 들어섰습니다. DMZ는 수많은 별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이 흘러간 자리’에는 으레껏 송덕비, 공덕비, 기념물 등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민들레 별판도 ‘유성이 흘러간 자리’입니다. 장군은 창랑정 자리에 시멘트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강원도 관찰사가 그랬듯이 자신의 한자 이름을 따 ‘世直亭’이란 편액을 달았습니다.

#### · “저 푸른 민들레 별판 위에”

지금 창랑정 맞은 편 민들레 별판 언덕에서는 ‘전선휴게소’가 천연덕스럽게 금강산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범·김순

희 민통선 부부는 지금 반세기 민들레별판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통선 동네 오빠와 동네 동생은 남몰래 한탄강 멧돌 바위 뒤에 마주 앉았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희망이 뭐야?”

“나는 저 푸른 민들레 별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평생 살 거야.”

마침 남진의 노래 ‘님과 함께’가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사랑하는 우리 님은 누군지 참 좋겠다.”

동생은 그가 누군지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오빠는 웬지 숨이 막혀 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생도 웬지 숨이 막혀 더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영산홍 흐드러지게 핀 한탄강 멧돌 그늘에서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은 뒤였지만 남편은 연애시절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들레 별판이 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면장을 찾아가고, 군수, 사단장을 찾아가 아내와 연애시절 약속한 ‘저 푸른 민들레 별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멋진 사내의 뜨거운 가슴이 면장, 군수, 사단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1992년 옆구리에 ‘금강산 90km’란 글을 단채 서있는 끊어진 금강산철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정연8경 한가운데에 농막(農幕) 한 채를 지었습니다. 정말 ‘푸른 민들레 별판 위에 세워진 그림 같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전선휴게소’라는 ‘편액’을 달았습니다. 언젠가 끊어진 저 철길이 이어져 열차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미리 휴게소를 지었을까.

전선휴게소의 진짜 행정구역은 평강군 남면 정연리. 평강군은 휴전선 남쪽에 정연리 만 달랑 떼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철원군 갈말읍에 서자처럼 붙어있는 마을이지만 그 옛날 시인묵객의 체취가 묻어나던 마을입니다. 정연 8경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 옛날 금강산 유람객이 귀향길에 “여기도 금강”이라며 발길을 멈췄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길목에 ‘전선휴게소’가 서 있습니다. DMZ 그곳에서도 노인은 죽고 아이는 태어나며 젊은이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 3 울진촌 사라호 태풍 유민의 덩벙김치

철원군 서면은 군청소재지 갈말읍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쪽의 면을 의미하는 서면인 것은 거기가 전쟁전 김화군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철원군 근남면도 과거 김화에서 가까운 남쪽에 있는 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남면 마현리는 옛 김화 땅입니다. 마현리가 울진촌이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발단은 태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Sarah)는 성서에서 경건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59년 추석명절에 흠탕물 끼얹은 ‘태풍 사라’는 양칼지고 표독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물난리 사상 가장 혹독한 피해를 안겨준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59년 9월 16일 중앙관상대는 이날 오전 방송을 통해 905밀리바의 제14호 태풍 사라호가 이날 오전 3시 반 현재 동지나해 남부해상에서 시간당 20~25 km 속도로 북상 중이며 이날

밤 12시께 우리나라 남해 해상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풍은 우리나라 내륙까지 상륙하지 않을 것이며 큰비도 없을 것이고 17일은 대체로 맑아 오는 추석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보였습니다. 사라호 태풍은 사상 최고의 피해를 입힌 끔찍한 재해를 몰고 왔습니다.

태풍의 중심권이 동해로 빠져나갈 때쯤입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태풍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 경북 울진을 강타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는 울진이 강원도 땅이었습니다. 태풍이 쓸고 간 뒷자리로 곧 겨울이 닥쳤습니다. 모진 겨울을 보내고 해를 넘겨 3월이 되었습니다. 수재민들은 김화 땅에 6.25 전쟁이후 어마어마한 논과 밭이 묵고 있으며 이를 개간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1960년 4월 4일 예순 여섯 세대 300명의 수재민들이 유토피아의 꿈을 안고 김화 땅으로 떠났습니다. 군용 트럭 25대에 나눠 탄 이들 앞에서는 헌병차가 에스코트 했고 뒤에서는 엠블런스가 뒤따랐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 달려 4월 5일 오후 춘천에 도착했고, 6일 밤은 화천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7일 말고개를 넘어 마현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유토피아는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순 여섯 채의 천막을 쳐주고 가마니 두 장씩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길이어서 가재도구를 모두 버리고 떠났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전선마을의 꽃샘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황량한 지리밭

이었습니다.

12일 후 이번엔 정변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4.19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한 높은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장관, 도지사, 군수, 면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뢰밭 속에 데려다 놓은 3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연대장이 쌀 2가마를 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을 담가보라고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술을 빚어 조상께 마지막 제사를 지내라는 최후통첩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술 익는 냄새가 들판을 건너고, 지뢰밭을 건너 군막사로 흘러갔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수재민의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며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술독을 책임지고 있던 도씨 할머니는 오래전 작고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이 술은 우리가 먹고 죽을 겁니다. 못 팔아요.”

“할머니, 우리도 먹고 죽을 겁니다. 맛이나 보여 주세요.”

막무가내로 폐를 쓰는 바람에 도씨 할머니는 안주도 없이 막 걸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군인이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도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이 왔다간 날 밤은 부대에서 예외 없이 ‘기압’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몽둥이 찰질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군인은 “뺨따를

맞아 뿔따구 난다”며 술을 달라고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도씨 할머니가 패러디하여 부른 자작 시조 한 수를 옮겨봅니다.

‘지뢰밭 달 밝은 밤에 천막촌에 홀로 앉아/술 향아리 부여잡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어디서 기압 받는 소리 나의 애를 끊나니’

· “그들이 유토피아를 일궈다!”

연대장이 술독으로 써보라고 빌려준 드림통이 텅 비었습니다. 대신 주민들의 손에는 돈이 주어졌습니다. 장정들이 그 돈으로 멀리 육단리에 나가 쌀을 사들고 왔습니다. 첫 봄을 그렇게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나눠 마을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천막촌 논갈이나 밭갈이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습니다. 10사람이 한 조가 되어 9사람은 소가 되어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을 쟁기질을 했습니다. 남정네들이 밭갈이를 하는 동안 아낙네들은 돈이 될 만 한 쇠붙이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법입니다. 궁리 끝에 여인들은 허리에 고철자루를 두르고, 그 위에 아이를 업었습니다.

이 뚱뚱한 행색의 정체가 무엇인지 검문소의 군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눈감아 주었습니다. 영문 모르는 갓난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검문소를 넘었다가 다시 이웃집 아주머니 등에 업혀 넘어오고, 다시 고철자루를 찬 다른 이의 등에 업혀 그 고개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울진에서 군용트럭에 실려 오던 화천초등학교 마지막 날 밤에 태어난 여자 아이도 있었

습니다. 화천에서 태어났다고 ‘화천’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화천’이 또래 갓난아이도 일을 한 것입니다.

60년 전 일이니까 아이는 자라 60세 중반이 넘었을 겁니다. 그 장년들이 지키고 있는 마을은 현재 220여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민통선 1세대’로부터 분가한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속의 ‘경북 울진군 사람들’이 되어있습니다.

울진촌에서는 이 마을 개척 당시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상짓개’, ‘샘밭고개’, ‘이둔지’, ‘뱀청골’ 같은 옛 지명은 이 동네에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울진촌 사람들에게 옛 지명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대(部隊)골’, ‘사격장골’, ‘큰길가’, ‘관사 마을’같은 울진촌에서만 통하는 신식 이름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폐교됐지만 마현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울진을 가본 일조차 없으면서도 경상도 말을 하였습니다. 텃밭 김치는 김장숙 대신 양념물을 풀어 놓고 텃밭 김치를 담갔다가 꺼내 익힌 김치입니다. 김장철 가난한 집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김치 담그



마현리 울진촌 입주민들

는 법입니다. 울진촌은 그 덩빙김치의 원조입니다.

지금 울진촌에서 과거는 기억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촌입니다. 1천 평당 1억5000만원이 든다는 비닐하우스를 가구당 최소 3동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가 3분의 1이 철원에서 생산됩니다. 철원군 생산량의 3분의 1이 울진촌에서 생산됩니다. 울진촌, 살아 있는 민통선의 역사입니다.

#### 4 북으로 간 예술인 이태준

2018년 11월 20일, 남북 군사당국이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상호 조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도로연결 작업 과정에서 전유광 육군 5사단장이 북측 지휘관과 조우했다”고 우리 지휘관 이름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단장은 비무장인데 북측 지휘관은 권총을 찼습니다. 자신이 커 보이려는 듯 언덕에 서서 손을 내민 것도 거슬립니다. 어쨌든 2018년 DMZ 명장면입니다.

남북한이 지뢰를 제거하고 인력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도로를 냈다는 데 그 길이 옛날 쓰던 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한국 단편문학의 완성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던 상허 이태준의 수필집 무존록에서 슬픈 소년이 안협 5촌 당숙집을 찾아가던 그 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필집엔 이렇게 씌어있습니다.

‘산은 슬프다. 철원 용담이란 촌에서 안협 모시울이라는 촌까지 70리 길은 내가 열살, 열한 살 때 여러 차례 걸은 길이다. 산협길이라 산 넘어 물이요, 물 건너 산인 데다 제일 큰 물더우네를 건너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새수목 고개는 올라가기 십 리, 내려가기 십 리의 큰 영이다. 그 영을 나는 여름철에 혼자도 몇 번 넘어보았다.’

안협은 지금 북한 철원군의 군청소재지입니다. 안협에도 상허의 5촌 당숙이 살았는데, 아마 부모를 잃고 용담 오촌 집에 와 살던 고아 삼남매는 안협과 용담의 오촌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섯 살 어린 소년이 더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모시울은 임진강 지류인 평안천변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더우네는 더운물이 흘러 겨우내 얼지 않는다는 온천리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 새수목 고개는 더우네를 건너 하창참리로 넘어가는 지루한 고개라고 합니다. 용담에서 모시울을 가자면 이렇게 큰 산 두 개와 큰 내 두 개를 넘고 건너야 됩니다. 소년이 걸었다했다는 그 길 위로는 DMZ가 오랜 세월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철원을 울리리 614번지, 속명으로는 용담 밤가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용담은 궁예의 첩인 용녀가 지금의 동송읍으로 물을 길어오다 물동이를 내던졌는데 그 자리가 연못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상허의 생가는 지금 없습니다. 밤가시마을 앞으론 지금 민통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장편 ‘제2의 운명’에서 상허는 자기의 옛 집을 ‘철원역에서 내려 철길로 약 5리를 걸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에 있는 철원역 자리에서 남쪽으로 철길이 이어졌다고 가장하고 남쪽을 바라보면 길게 산 뿌리가 나와 있는데 그 산허리 뒤가 용담입니다.

그의 월북동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4년 2월 14일 휘문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상허 대신 그의 장조카가 대신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휘문은 상허가 동맹휴업 주모자로 제적당했던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상허문학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월북동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허의 월북동기를 밝혀줄 만한 비화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38선을 넘어간지 얼마 후 그는 휘문고 동창인 홍보식을 찾아갑니다. 홍보식은 그의 사랑채에서 상허와 왕자호동을 집필하기도 했던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에게 상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쪽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북쪽은 과연 어떤지 살펴보고 싶었다. 마침 정동의 소련대사관에서 소련 여행 기회를 주선 해줘 소련도 견문하고 싶었고, 미군정 당국이 방미 문화인단을 주선했다면 나는 미국엘 먼저 갔을 걸세.’ 한 가지 장이 식솔을 끌고 간 월북동기로는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과장을 보면 그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했으며, 얼마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허의 부친은 구한말 개화기의 엘리트였습니다. 개화당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상허는 5살 때 망명한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아버지가 객사하자 일가는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허의 어머니는 귀국선에서 둘째 딸을 낳지요. 함경북도 이진에 정착했으나 이듬해 겨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허의 나이 6살 때입니다. 삼남매는 철원 용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촌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 · 철원은 이태준 문학 유적지

오촌 아저씨 이봉하는 철원봉명학교를 설립한 신교육과 독립 운동을 했던 선각자였습니다. 상허는 이 봉명학교를 졸업하고 농업학교에 입학했으나 한 달 만에 그만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14살 때입니다. 함경도 평안도 일대를 돌아다닌 그는 2년 후 서울로 가 배재학당에 합격했으나 입학금이 없어 포기하고 이듬해 휘문고에 들어가 고학으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학년 때 동맹 휴교 주모자로 제적돼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6월에 제적당한 그는 그해 가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서 처녀작 ‘오몽여’로 조선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그 후 동경 상시대 예과에 입학했으나 2년 간 다니다 중퇴해버리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조선예술상’을 타면서 절필하고 고향인 용담에 칩거합니다. 해방이 되자 이튿날 서울로 올라갔고, 46년 7월 부인과 장녀 소명, 장남 유백, 차녀 소남, 차남 유진 막내 딸 소현(2남 3녀)을 이끌고 월북했습니다. 그의 나이 마흔 두 살 때입니다. 참으로 숨 가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맨 것 같아요.

그런 그의 성품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더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련 여행을 하고 은율에서 소련기행을 집필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작품을 발표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 월북작가들과 함께 그도 6.25 이후 숙청됐으며, 60년대에 작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월산 유격대의 ‘이태준 귀순 작전’ 비화가 공개 됐는데

요, 상허는 6.25 때 문화공작대로 서울에 왔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9.28 수복 때 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월북을 크게 후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월산 유격대가 두 차례나 이태준 구출작전을 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의 구출작전명은 그의 단편 ‘가마귀’의 이름을 딴 가마귀 작전이었습니다. 첫 작전은 52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상허는 평남 대동군 서포의 한 농가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허는 북한 문예총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이화여전 음악과를 나온 부인은 평범한 촌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격대가 갔을 때 부인은 양덕이라는 곳으로 약을 구하러 가고 없었고, 맏아들은 인민군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태준은 혼자서 돌아올 수 없었지요. 그 때 유격대원이 서해의 상취라도에 있는 작전본부로 보낸 전문 내용이 너무 애잔합니다. ‘까마귀는 날아오고 싶어 했지만 어미 까마귀가 병들어 있다. 새끼 까마귀도 흩어져 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 상허는 늘 미제 파커 만년필로 글을 썼는데, 그 때도 그는 파커 만년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구출작전은 53년 5월에 있었습니다. 유격대원이 서포에 갔을 때 부인과 자녀들은 집에 있었으나 정작 상허는 어디론가 불려나간 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철원 용담엘 가면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담은 그가 러시아에서 돌아와 14살 때 무작정 집을 나갈 때까지 소년기를 보낸 곳이자, 그의 문학이 완성된 곳이기도 합니



대마리 상희 이태준 문학비

다. 그의 용담 집에서는 경원선 철도가 바라보입니다. 오른쪽이 남쪽으로 가는 방향, 왼쪽이 북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는 그 철도를 따라 두 번의 우향우, 두 번의 좌향좌 끝에 북으로 갔습니다.

상희의 철원은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회생했습니다. 그의 문학비가 민통선 마을 대마리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흉상은 영원한 경계인을 상징하듯 한쪽 어깨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역곡천과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안협 5촌집을 다녀오던 때를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상희는 그의 글 속에 많은 철원을 담아 놓았습니다. 사라진 철원이 그의 글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 절필을

하고 용담에 와 칩거하고 있었을 때는 역곡천에서 낚시로 여름 오후를 보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맹이가 까딱도 안 하는 때는 건너편 산에 자지러지는 매아미 소리나 들으면서 도회에 남기고 온 그리운 사람의 생각도 괜찮을 것’이란 글귀로 역곡천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수필 「용담 이야기」(1932)에는 이런 글이 실려있습니다.

‘용담은 아름다운 촌이다. 금강산과는 먼 곳이지만 그와 한 계통인듯하게 수려한 산수는 처처에 승경(勝景)을 이루어 있다. 뒤에는 나지막한 두매봉 재가 조석으로 오르기 좋은 조그만 잔디밭 길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는 언제든지 구름을 인 금학산이 창공에 우뚝하니 솟아 있다. 손을 씻으려면 윗골과 백학골에서 흘러나오는 옥수천이 있고 수욕(水浴)이나 천렵이나 낚시질이 하고 싶으면 선비소, 한내다리, 쇠치망, 진소, 칠송정 모두 일취일경이 있는 곳이다’

용담의 지명엔 이태준의 어린 시절 추억뿐 아니라 철원이 담겨있습니다. ‘선비소, 한내다리, 두매봉 재, 금학산, 윗골, 백학골, 옥수천, 쇠치망, 진소, 칠송정’. 이런 지명들은 그의 작품이 없었다면, 지금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곳들입니다. 기막힌 문학 유적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 5 DMZ에서는 철새도 인간이다

겨울철새들에겐 DMZ가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거긴 시베리아 아무르강이나 중국 흑룡강에서 날아오는 겨울철새의 첫 기착지입니다. 침병은 기러기. 그 가운데도 창백한 긴 다리를

지난 쇠기러기가 선발대입니다. 9월말은 아직 철원평야의 추수가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쇠기러기는 벌써 별판을 기웃거리됩니다. 10월 초순, 드디어 기러기는 본대를 편성해 철원평야를 점령합니다. 20만 마리가 날아옵니다. 세계 기러기의 40%가 철원평야에 날아는 것입니다. 쇠기러기는 “끼룩, 끼룩”, 몸길이가 76~86cm나 되는 큰기러기는 “과하한, 과하한”하며 바리톤 울음을 읊니다. 그 큰기러기도 4,000마리나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무렵 우리나라 두루미는 고작 100여마리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 3,000여마리의 두루미 중 그 절반인 1,500여 마리가 우리나라에 날아오고 대부분 철원평야를 가장 ‘따뜻한 남쪽나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재두루미도 부지런한 철새입니다. 9월 말이면 어김없이 선발대 50여 마리가 찾아옵니다. 이어 기러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때가 되면 이 세계적인 희귀조는 철원평야에만 7,000여 마리가 날아옵니다.

청둥오리, 가창오리는 철원평야 겨울철새의 후발대. 그러나 10월말이면 이들도 20만 마리가 평야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대머리독수리 떼도 검은 바위처럼 큰 몸집을 웅크리고 앉아 수백 마리가 두리번두리번 평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루미, 쇠기러기, 큰기러기, 흰기러기, 가창오리, 호사비오리, 대머리독수리... ‘철원평야의 새들’이 저녁 해가 백마고지 남쪽 능선으로 넘어가는 10월 말이면 다 모이는 것입니다.

두루미 한 마리의 서식 면적은 무려 1만㎡나 된다고 합니다. 철원평야는 철새들이 휴식하고 잠을 잘 수 있는 DMZ가 있습니

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드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들이 철원은 가장 ‘따뜻한 남쪽나라’라고 여기는 것은 그곳에 가면 흥부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 · 과부두루미 흥부새

제비다리를 고쳐 준 흥부에게 제비들이 보은의 뜻으로 박씨를 물고왔지요. 철원평야에도 철새들을 돌보는 흥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흥부새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1993년 1월 17일 철원평야에서는 ‘Seoul Korea19930117 KBTA’라는 암호문 가락지를 발목에 낀 두루미 한 마리가 자신의 고향인 시베리아 양카호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 두루미는 92년 12월 철원 사망지리에서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 두루미였습니다. 전선의 한 병사는 눈 덮인 별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두루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레 째 되던 날 두루미가 사라졌습니다. 쌍안경으로 두루미를 찾던 병사는 깜작 놀랐습니다.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달려갔을 때 두루미는 남편 두루미의 시신 옆에 누워있었습니다. 남편은 꽤 오래 전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류협회회원 한 사람이 탈진한 두루미를 안고 갔습니다. ‘미꾸라지 보양식’으로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한 달 만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조류협회 회원들은 이 슬픈 여인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루미

는 조류보호협회 김성만 회장에게 다가오더니 부리로 김회장의 손을 툭툭 두드리더랍니다. 그는 한 달 동안 한 시도 두루미 옆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루미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루미는 일어서면 키가 160cm 이상 되는 큰 새입니다. 이 같은 큰 새들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몇 발작 달려 나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윽고 발을 내딛어 비상한 두루미는 2백여 명의 환송객 머리 위를 다섯 바퀴나 돌다가 까만 점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 최무영씨는 즉흥 송시를 낭독했습니다.

「오늘/ 얼어붙은 철원벌에서/목메인 방부가를 듣는다/ 이레 낮/  
이레 밤을 지새워/하늘에 사무치고 땅을 울리던/뜨거운 울음 소리 듣  
는다/ 삭풍보다 맵고/눈보라보다 치열한 정절로/망부의 시신을 지키  
며/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넘나들던/네 거룩한 사랑/ (중략) 잘 가라/  
비록 남은 생애가/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다 해도/ 산다는 것은 좋은  
일/ 살아 있음은 하늘의 축복이므로」

사람들은 남편 두루미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비목도 하나 세웠습니다. 그날 떠난 미망인 두루미가 이튿날 그 무덤가에 와 있더랍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사라졌더랍니다. 무덤가에는 그녀가 차마 떠나지 못하고 남편 곁을 서성인 발자국이 가득 찍혀있었습니다.

그 후 철원평야에서 'SEOUL KOREA · 1993017 · KBT'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철원사람들은 그 두루미가 흥부새로 변신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망두루미 사건이 민통선 밖으로 알려지면서 두루미가 사는 양지쪽 맑은 물로 농사를 짓는 민통선 오대쌀이 으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국의 농촌이 쌀을 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 유독 양지리쌀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된 것은 이때 즙입니다.

양지리 ‘철새 보는집’ 민박집 주인 백종한씨 앞으로 전화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두루미는 깨끗한 눈에만 내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꼭 그런 지는 모르지만 1,000년을 산다는 그 영물이 오염된 눈에 내리겠습니까?”

백종한씨가 반문하자 전화기 너머의 사내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는 쌀 도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기왕이면 좋은 쌀을 공급하고 싶어 수소문 중이었다며, 우선 100가마만 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종한씨가 사정 이야기를 털어냈습니다. 100가마 정도는 혼자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쌀을 팔지 못해 고민인데, 철새 먹이주기 회원이 10명이니 회원 한 집이 10가마씩 100가마를 모아주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쌀 도매상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두루미가 내리는 깨끗한 눈에서 생산된 쌀 위해 철새에게 먹이를 주는 마음,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마음씨까지 엿어 판매했습니다. 이듬해 봄 모내기를 막 끝냈을 무렵 기분 좋은 연락이 또 날아왔

습니다. 가을 수확량 전량 선매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철새먹이 주기 회원 한 사람이 이미 논떼기로 팔려나간 논이지만 청둥오리를 키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리 쌀값을 보내준 사람에게 더 좋은 쌀로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청둥오리는 해충 잡아먹고 논김매고, 정말 도랑치고, 가재잡고였습니다. 청둥오리 덕분에 쌀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듬해는 모내기를 하기도 전에 논 떼기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양지리에는 흥부가 사나? 흥부새가 돈을 물고 왔다. 우리도 철새들에게 먹이를 줍시다.”

아랫마을 윗마을에서 겨울 별판에 철새 먹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연천 사람들도, 새떼를 부르며 먹이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철새 탐조도 재미있지만 주민들이 ‘새밥’을 주는 것도 볼거리라며 철새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이젠 철새 없는 민통선은 말도 안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DMZ에서는 철새도 인간인 것입니다.

# 3

## 역사의 회오리 속을 흐르는 화강

### 1 김화 토박이 ‘금화’로 쓰고 ‘금화’로 읽는다

김화 토박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김화’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뜨내기입니다. 토박이들은 ‘금화’라고 부릅니다. ‘금화’는 김화 토박이를 알아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김씨(金氏)’를 ‘금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해 평야, 북한의 김책지구처럼 지명에서도 쇠 금(金)자가 앞에 올 때는 대부분 ‘김’이라고 읽습니다. 유독 김화사람들만 ‘금화’라고 쓰고 ‘금화’로 읽습니다. ‘金化’는 ‘쇠가 된다’는 모진 담금질의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김화’의 부드러운 어감으로는 모진 담금질의 맛이 안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 때문일까? 이 토록 팔자 드신 땅이 또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팔자소관은 지정학적 이유에 더 기인하는지 모릅니

다. 유체가 좁은 통로를 빠져나갈 때는 에너지가 증폭되며 속도가 빨라집니다. 베르누이(Bernulli)정리에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김화는 사통팔달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 모양의 땅입니다.

옛 김화군청소재지였던 김화읍 일대는 집 한 채 없는 폐허입니다. 화강에는 총탄 자국을 ‘명돌’ 자국처럼 뒤집어쓰고 주저앉은 암정교가 걸려있습니다. 그 다리 북쪽으로 금강산전철 김화역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난간 옆에는 일제 때 세운 도로원표가 총탄 자국을 용케 피해 ‘화천 43km, 원산 153km, 회양 57.4km’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천 43km, 원산 153km’은 제5번국도(거제~중강진) 상의 거리표시입니다. ‘회양 57.4km’는 제43번국도(세종시~고성) 상의 거리표시입니다.



김화 화강 금강산 철교 교각

여기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것은 분단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통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981년 신설된 제56번국도(김화~양양)는 김화읍이 시발점입니다. 화천 춘천 홍천 구룡령을 넘어 양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같은 제56번 국도에 이어지도록 제56번 지방도(김포~김화)는 언젠가는 국도로 승격될 것입니다. 같은 해 신설된 제47번국도(안산~김화)도 김화가 종점입니다. 도시는 사라졌는데 국도들이 와 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길은 김화 골짜기의 좁은 통로를 경유해야 합니다. 그 좁은 통로에 역사의 베르누이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있습니다. 정말 김화가 어떤 땅이기에 역사는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그곳에 새겨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화 골짜기에 베르누이 역사를 새긴 최초의 인물은 아마 궁예왕일 것입니다.

- 북원에서 양길을 뿌리치고 동진한 궁예는 울진, 삼척을 거쳐 894년 명주에 입성하고 그해 상달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이듬해 895년 8월 철원에 출현한다. 역사는 그가 어디로 어떻게 철원으로 갔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신앙의 아버지 중 진표가 금강산에 묻혀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철원 가는 길'을 가능케 했다. 명주에서 그는 미륵신앙의 메카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금강산에 갔다면 철원 가는 길이 보였을 것이다. 고성 남강 안목 해발 500m가 안되는 잘록한 삼재령을 넘으면 옛 인제인 저쪽 서흥리. 그리고 해안분지 서희령을 넘으면 양구 방산 수입천을 따라내려 오면 옛 화천인 낭천 그리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금성, 화강을 따라 내려오면 김화 그리고 철원이다.

- 
- 고려 공민왕 10년(1361) 20만의 병력으로 고려를 침입한 홍건적은 원주의 영원산성에서 1차 패전한다. 그 뒤 북쪽으로 후퇴하던 대부대는 김화의 근남면 마현리 일대에서 고려군의 포위작전에 대패한다.
- 
- 고려 우왕 9년(1383) 왜구의 대부대가 강원도 내륙의 깊숙한 곳인 회양과 평강까지 진출한다. 하지만 남시좌(南時佐) 등이 이끄는 고려 관군에 의해 역시 김화에서 대패한다.
- 
- 김화는 남으로 가는 길목. 1253년 5차 몽골침입. 예케(也窟)가 이끄는 몽골군은 강화도를 함락하지 못하고 동주(東州 : 철원) 춘주(春州 : 춘천) 양근(楊根 : 양주) 양주(襄州 : 양양) 등을 공격한 다음 충주성에 이른다. 그들은 김화에서 지금의 5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였다.
- 
- 1637년 병자호란. 김화를 잣나무밭에서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洪命耆)와 평안도 병마절도사 유림(柳琳)은 인조를 남한산성에 묶어두고 여유만만하게 함경도로 진출하려던 청군 기동군 팔기군(八旗軍)을 무찌른다. 역사는 광교산 전투와 함께 병자호란 단 두 번의 승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 1580년 선조 때 송강 정철은 소양강을 건너 철원에서 강원도 순시를 시작했다. 금강산 가는 모든 사람처럼 그도 김화를 통해 회양 내 금강 그리고 울진에서 원주로 갔다. 정철은 700여 년 전 궁예가 철원 가던 그 길을 역순으로 걸어갔던 셈이다.
- 
- 1592년 임진왜란. 정철의 관동별곡의 길을 왜군 4지대장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가 따라갔다. 그때도 김화는 우회할 수 없는 경유지가 됐다. 선조 25년(1592) 6월19일, 강원도 조방장 원호(元豪)가 이끄는 부대가 모리 휘하 20대 약관의 왜장인 시마즈 다다오요(島津忠豊)의 전락에 휘말려 참패한다. 안개 낀 화강이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 왜군은 전사한 원호의 목을 김화현청에 걸어놓고 ‘조선의 군민들이 이미 모두 다 귀순하였는데, 원호(元豪)만 홀로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대들었다’고 써붙였다고 한다.
-

- 19세기 말, 영국의 지리학자 이자벨라 버드 비숍은 금강산 가는 물길을 개척하려고 했다. 북한강 화천쯤에서 물길 개척을 포기했다. 관동별곡의 길을 따라 김화를 빠져나가 내금강으로 들어갔다.
- 6.25 전쟁 남침의 선봉이던 북한군 2사단 원산 부근에서 경원선으로 철원까지 내려온다. 다시 금강산 전철로 김화로 이동, 그때 징기스칸 군대처럼 5번 국도를 따라 남하 38선을 돌파했다.
- 20세기 재기가 번뜩이는 일인 사업가 쿠메타노스케(久米民之助)도 관동별곡의 그 길을 따라갔다. 관동별곡에서 “화천 시냇물이 풍악으로 뿔어있다”고 노래한 북한강 상류에서 그는 “해발 500m에 흐르는 저 자연 에너지를 1,200리 서해로 흘려 낭비해야 하는나?”고 무릎을 쳤다. 북한강을 동해로 역류하는 동양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를 생각해 냈다. 금강산 전기철도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발이 시동 걸리던 순간이다. 김화를 지나면서 그는 금강산전기철도 노선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는지 모른다.

### · 사이비 신흥종교의 발상

김화는 참 한 많은 땅입니다. 그 좁은 골짜기는 모반의 회오리를 역사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숙종 14년(1688) 8월 승려 여환(呂還)이 관련된 변란사건입니다. 여환은 양주목 청송면에 본거지를 두고 경기도 황해도 여러 곳을 오가며 신도를 포섭했습니다.

여환은 “일찍이 칠성님이 강원도 김화(金化) 천불산(千佛山)에 강림하여 내게 3가지 국(麴·누룩)을 주었는데 국(麴)은 국(國)과 음(音)이 서로 같으니 짐작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로 새 왕조의 임금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본래 강원도 통천의 승려였습니다. 어느날 그는 “석가모니의 운수가 끝났

으니 이제 미륵이 세상을 주관한다.”며 미륵세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고 했는데, 지관 황회, 평민 정원태 등을 동원해 많은 신도를 끌어 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7월에 큰비가 퍼붓듯 쏟아지리라. 그러면 큰 산도 무너지고 서울도 재난을 입어 축대밭이 되리라. 그러면 그해 8월이나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가라. 대궐 한가운데 보좌를 차지하리라.”

무진년(1688) 7월 15일 여환은 참모들을 비롯해 양주와 영평의 광신자들을 거느리고 서울에 잠입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큰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는 불발했습니다. 여환을 비롯한 신도 50여명이 체포됐고 그 중 11명이 사형을 받았다고 속중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반의 주 무대는 경기, 황해도입니다. 왜 하필 김화 천불산을 끌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불산(千佛山). 김화에 천 개의 불상이 있는 산이 있다는 사실은 토박이 ‘금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맞은편 산잔등으로 DMZ 철책선이 흘러갑니다. 보기는 부드러운 능선인데 올라가면 제법 가파르고 험악합니다. 승리전망대가 서있는 능선 끝 부분에 불쑥 숲에 가려진 바위산이 솟아있습니다. 찬찬히 보면 일부러 산을 꾸민 석가산(石假山) 조경처럼, 갖가지 형상을 한 크고 작은 화강암 바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한 천개쯤 된다는 뜻 일까요? 그래서 천불산이라고 부르게 됐을 것이란 짐작입니다.

다섯 개의 별이란 뜻의 오성산(五星山)도 사교가 출현하기에 좋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1930년대 회대의 연쇄살인사건을 일으켰던 백백교(白白敎)의 본거지도 김화 오성산이었습니다. 이 사교의 전신은 전정운이 함경남도 문천에 세운 백도교(白道敎)였습니다. 전정운은 백도교가 사이비라고 탄로나자 철원 보개산에 숨어 있다가 1912년 김화 오성산으로 본거지를 옮겨 백백교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백백교를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이 교에 들어오면 병마에 걸리는 일이 없이 영생불사하고 가족 권속들이 모두 번영한다. 요즈음 세계 인류는 모두 전쟁의 화중(禍中)에 빠져 학살되게 되지만, 우리 백백교도만은 대원님의 힘에 의하여 전화(戰禍)를 면할 수 있다. 대원님은 곧 계룡산에 도읍하고 조선의 군왕이 된다. 그때 신도는 현금액의 많고 적음, 신앙의 깊고 얕음에 따라 높은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전세계의 인류는 마침내 백백교를 믿고 대원님은 전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뱀의 혀 같은 백백교의 이설은 암울했던 1930년대에 가혹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가난과 질고에 찌들어 희망을 잃고 있던 민중에게는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도 중 묘령의 부녀들을 징발하여 60여 명의 첩을 거느렸고, 저항하는 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시켜 가차 없이 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해당한 희생자 숫자는 밝혀진 것만도 314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37년까지 백백교에

서 살해되어 암매장된 사람만 총 284명에 이릅니다.

그 악명 높은 백백교의 본거지였던 오선산 조차 김화땅입니다. 백백교가 성산으로 삼았던 오성산을 지금 중국은 한국전에 서 전설적인 전투를 벌려 승전한 성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 2 경제 '화강백전'의 증언 병자호란

‘김화(金化)’, ‘쇠가 된다’는 모진 담금질의 의미가 새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김화의 그 모진 이야기 하나가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제(謙齋) 정선(鄭愼)의 ‘화강백전(花江栢田)」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화강은 김화를 가로지르는 강이름이지만 예전부터 김화의 별칭이었고, 백전은 글자그대로 잣나무 밭



백전전투 현장의 총열사

입니다. 그러니까 화강백전은 김화에 있는 잔나무밭을 그린 그림입니다. 김화읍 생창리 민통선이 시작되는 검문소 앞 백수봉(栢樹峰) 높이 238m의 야산입니다. 나무심기를 좋아하는 강릉 부사가 잣나무를 심어 백수봉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선은 그 잣나무 우거진 백수봉을 대경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백수봉을 북한군이 오성산에서 뺀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DMZ 철책선이 마주보이며 검문소 바리케이트는 옛 금강산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 너머 옛 김화읍은 집 한채 없는 폐허입니다. 북한군이 대남 선전방송을 하는 때는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이 거친 풍광을 어떻게 바꿔놓아도 진경산수의 소재는 아닙니다. 그때 잣나무가 뺨뺨하게 우거졌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절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풍광을 정선은 왜 그렸을까. 이 밋밋한 소재를 왜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도 밋밋합니다. 왼쪽 아래 누각과 같은 작은 집이 한 채서 있고 위로 잣나무가 뺨뺨합니다. 층렬사 건물이 왼쪽하단에 반쯤 보이게 그려졌으며, 잣나무 둘러싼 산언덕에는 벗가리처럼 무더기 무더기 흙더미가 쌓여있고, 산언덕 아래는 돌무더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게 맨땅 위를 뒹굴던 백골을 상징하는 것 같으며 그림이 무섭다고 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미술 평론가 최완수 선생은 그 그림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정선은 ‘화강백전’을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그림의 소재가 될 만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강렬하게 순

국한 님을 기리기 위해 이 성스러운 옛 전쟁터를 화폭에 담은 것이라고.

정선은 화강백전을 지금부터 270년 전에 그렸습니다. 정선은 그로부터 1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지금부터 380년 전 백수봉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637년 음력 1월 28일 이곳 화강 잣나무 밭에서 조선군은 청나라 팔기군에 맞서 전투를 벌여 승전했습니다. 수원(용인) 광고산 전투와 함께 여기가 병자호란 2대 승전지인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병자호란은 치욕의 기억만 원체 강렬한 까닭입니다.

화강 전투 이틀 후(1월 30일) 조선 임금(인조)은 47일간 머물던 남한산성에서 나왔습니다.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무릎 꿇어 세 차례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 항복 의식입니다. 서울 잠실 인근 삼전도(三田渡)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삼전도 삼궤구고두’는 우리 역사에서 강렬한 치욕의 기억입니다.

청나라 13만 대군은 1636년 12월 8일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해 곧바로 서울로 내리 달았습니다. 조선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일전을 각오했지만 청군은 본체도 안하고 서울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저항하며, 전국 각처의 군사들에게 임금을 구하러 오라고 전갈했습니다. 평양성에서 청군을 놓친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와 평안도 병마절도사 유림은 근왕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가기 위해 김화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이미 강화도까지 함락한 청군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 일부를 뽑아 함경도 지방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당대 아시아 최강이라는 말 잘타는 만주 및 몽골족으로 구성된 팔기병이었습니다. 그들이 김화에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남하하고 청군은 북상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두 군대가 김화에서 조우한 것입니다.

무신인 평안도 병마절도사 유림(柳琳 · 1581~1643)은 잣나무 무성한 백수봉 언덕에 군사 5000명을 지휘하며 진을 쳤습니다. 문신인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洪命喬 · 1596 ~1637)가 이끈 3000명 병사는 현 충렬사 앞쪽 평지에 군사를 세웠습니다. 이때 유림은 “지세가 낮아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우니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구는 “ 옮겨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홍명구는 “높은 곳에 진을 치면 청군이 공격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병력을 분산시킨다는 전략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1월 28일 새벽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조선군과 청군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평지에 진을 친 홍명구는 전사했습니다. 유림 군대는 잣나무 숲 언덕에서 적을 향해 포를 쏘았습니다. 청군은 조선군 진지를 향해 거듭 진격했습니다. 조선군은 그때마다 적을 모두 죽여 시체가 성곽에 가득히 쌓였다 합니다. 남구만은 약천집에서 “아군은 굶어보고 저들은 우러러보는 지형에서 잣나무 숲이 뻗뻗하여 오랑캐 기병들이 돌격할 수 없었고 적이 쏜 화살도 대부분 나무에 맞아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

다”고 적고 있습니다. 박태보는 ‘정재집’에서 “이 싸움에서 적병은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적은 그 시체를 모두 거두어 태웠는데 3일이 걸린 뒤에야 끝내고 돌아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림은 전투 승리 후 밤을 틈타 남한산성을 향해 군대를 이동했다. 그러나 이틀 후 임금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싸움터의 잣나무 숲은 사라졌습니다. 그림 속 울창한 숲을 이룬 잣나무가 이제껏 있었다면 적어도 수령 40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전장을 증언할 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선의 화강백전이 유일한 당시 전투의 증언입니다.

정선은 옛 전쟁터를 막역한 사이인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이 김화현감으로 있을 때 찾아갑니다. 1712년 8월 금강산 길목의 현감 이병연은 정선을 금강산으로 초대할 때입니다. 옛 전쟁터를 동행하며 오랑캐 흉도 보았을 것이란 짐작이 그의 시에 새겨져 있습니다.

‘쓸쓸하구나 잣나무밭 / 아득하구나 전쟁터 / 오래 산 늙은이 만나 문  
답하니 / 고목의 푸르름만 손짓하네’

이병연은 정선을 정연리 창랑정(滄浪亭)자리에도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 정자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월탄(月灘) 황근중(黃謹中)이 조선조 광해군 원년(1608) 광해정란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정연에 지은 정사입니다. 그는 굴원의 글귀를 따다 ‘滄浪亭’이라고 편액했습니다. 인조 13년 육진(六鎭)서 돌아오던 월탄의 외손 정대화(鄭大和)는 외할아버지가 지은 창랑정에 투

구와 갑옷을 벗어 걸어두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김화 토성리에서 진을 치고 있던 청나라 팔기군은 백전으로 진군하면서 “조선 장수의 집”이라며 정자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정선이 정연리 창랑정을 찾아갔을 때는 그 정자는 불타고 없었습니다. 그가 그린 정자연(亭子淵) 그림에는 창랑정이 없습니다.

### 3 백전전투 그 자리에서 재현된 ‘상감령 전투’

김화 생창리 백전전투 그 자리에 가면 어쩌면 이 전투가 우리에게 오래되고 낡은 역사이지만, 오히려 중국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전전투 현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전설적인 전투를 벌인 최대 승전지라고 내세우는 오성산과 삼강령이 뻗어 쳐다 보입니다. 오성산과 상감령이 어쩌면 “그때의 패전을 이렇게 양값음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눈을 내리깔고 내려다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11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환영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히 중국인 피아니스트 랑랑을 초빙했습니다. 연주곡은 랑랑이 골랐다. “나의 조국”이라는, 중국 제2의 국가, 15억 인구 태반이 안다는 중국군의 영웅적인 한국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 미군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상감령 전투를 소재로 했습니다. 오바마는 자국의 군대에 쓴잔을 강요한 전투를 기리는 노래를 안방에 앉아 들은 셈입니다.

상감령전투의 중국 명칭은 ‘상감령전역(上甘嶺戰役)’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저격능선(Sniper Ridge)전투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원도 철원군 오성산 남쪽에 있던 저격능선에서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2일간 국군 2사단이 중공군 15군과 치열한 격전 끝에 아군이 승리한 전투’인 것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상감령전투는 전투 범위에서 약간 우리와 다릅니다. 철원 오성산(五聖山 1062고지)과 남대천(화강) 사이에는 상감령과 하감령 2개의 고개가 있습니다. 두 고개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산줄기가 2km 간격으로 나란히 남쪽으로 달려내려오고 있습니다. 능선 서쪽이 삼각고지(598고지)이고 동쪽이 538고지입니다. 그 538고지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고지군이 바로 한국에서 저격능선, 미국에서 스나이퍼 리지(Sniper Ridge)라고 부르는 능선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저격능선전투와 삼각고지전투를 통틀어 상감령전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과에 대해서도 중국의 주장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중국군사과학원에서 출간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사, 즉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운 전쟁사를 보면 상감령전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2년 10월 14일에서 11월 25일까지 43일간 벌어진 전투이며 6만명의 UN군과 남조선군이 참여했고 무려 19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은 일대 전역. 이에 맞선 용맹한 중화인민지원군 4만 명은 40만발의 전례 없는 화력으로 맞서며 2만 5000명의 적을 살상하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을 구하고 미국을 꺾은 결정적 전투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천성 출신 황계광은 미군의 기관총을 파괴하기 위해 특공대로 나섰다. 총탄에 맞자 과감하게 미군의 기관총구 앞에 몸을 내던져 총구를 몸으로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고향 가면 거창한 기념관까지 서 있습니다. 황계광 이외에도 신화는 많습니다. 1개 연대가 16명으로 줄어들었어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사과 한 알을 두고 8명의 병사들이 나눠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감령 전투는 50년대 중국인들에게 “상감령 전투 정신으로!”는 즐겨 외쳤던 구호가 됐습니다.

상감령 전투는 우리가 저격능선전투라고 부르는 전투입니다. 철의 삼각지대, 이른바 철원, 김화,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에서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벌어진 전투입니다. 공산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 태세를 취하자 이쪽이 선수를 친 작전이기도 합니다. 저격 능선이라는 이름은 1년 전 미군이 이 고지를 점령할 때 중공군 저격병에게 피해를 봐서 스나이퍼 리지(Sniper Ridge)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국의 황계광과 거의 똑같은 전쟁 영웅이 등장합니다. 2사단 17연대 2대대 5중대 황석운 이병은 고지전 와중에 분대장이 돌격하다 쓰러지자 수류탄을 들고 악착같이 포복으로 접근해서는 기관총좌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자신도 산화했습니다. 공교롭게 두 영웅이 황씨입니다.

오성산(1,062m)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5개의 별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성흥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때문에 중국은 오



오성산과 상감령

성산 줄기 상감령 전투를 미국을 패퇴시킨 승전지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또는 그들이 전쟁 중에 구축한 ‘지하의 만리장성’ 때문일까?

이기환 기자의 흔적의 역사 블로그에 따르면 “중국군은 1951년 10월 21일 “주요진지는 반드시 갱도식으로 하되 깊이는 5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한다. .... 공산군은 1952년 말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250km 길이의 모든 전선에 총으로 20~30킬로미터의 두꺼운 방어선을 갖추고 땅굴을 거점으로 한 거점식 진지방어체계, 즉 지하갱도가 구축됐다..... 총 갱도수 9,519개, 갱도길이 287km, 업체호 78만 4,600개, 업체호 총 길이 3,683km, 그리고 각종 시설물 10만 1,500개. 지하장성의 총연장만 해도 4,000km에 육박하는 철옹성인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UN군이 고지를 점령해도 그 아래는 우리 것이라고 호언하던 마오쩌둥의 말은 허언이 아닌 셈입니다.

영화 ‘상감령’은 상감령 전투를 영화로 만들라는 마오쩌둥 주석 지시에 따라 창춘 영화제작소가 1956년 내놓은 작품입니다. 2시간 짜리 흑백 영화인 ‘상감령’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영화 주제가인 ‘나의 조국’입니다. 전쟁 영화에 걸맞지 않게 느릿느릿한 리듬을 가진 이 곡은 작사자(차오위)가 고심 끝에 양쯔강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과 감격을 담아내 결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대의 히트곡이 됐습니다. 중국의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결코 빠질 수 없는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교롭게 중국군이 승전했다는 이 전설적 전투현장이 백전전

투 현장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김화읍 생창리 유림장군이 승전한 백수봉일대, 홍명구 관찰사가 전사한 개활지 그 백전전투 현장 북쪽 정면으로는 중국군의 영원한 승전 성산 오성산, 아직도 중국인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상감령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성산에서, 그리고 상감령에서 백전전투 현장을 바라보면 어떤 경관일지 궁금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선명할지 모릅니다. 우선 2018년 남북간의 군사합의로 철거된 남북한군 GP가 보일 것이고, 어지럽게 이어지고 있는 작전도로와 긴뚝으로 이어진 DMZ와 남북방 한계선의 철책선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넓은 개활지는 옛 김화군청 소재지 김화읍 읍내리입니다. 금강산가는 전기철도, 평강, 금성으로 가는 국도 그 사이 웅크리고 숨어있는 군사시설 등이 뻗히 내려다보일 것입니다. 잣나무숲 사라진 백전전투 현장은 밋밋하고 보잘 것 없는 발떼기일 테고, 홍명구 유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열사는 육안으로는 식별도 안되는 작은 집일 것입니다. 2013년 북한의 김정남도 오성산 까치봉에서 이 풍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중국군은 병자호란의 유일한 패전의 기억을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경관으로 달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오성산 상감령을 사수하려했고, 미화 포장해 아직도 영웅적인 전투로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 4 오성산 전투 그 밤에 묻은 박수근 그림 향아리

김화는 정말 남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화가, 박수근. 그도 그의 그림과 함께 김화의 베르누이 좁은 통로로 남하했습니다. 박수근은 금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북진해 오는 틈을 타 먼저 월남했습니다. 부인 김복순씨는 인숙, 성남 두 자녀를 업고 걸리고, 시동생 박원근(朴元根) 부부를 채근하며 뒤늦게 월남길에 오릅니다.

피난민 행색이 좀 특이합니다. 원근씨가 새우젓 독 같은 향아리를 지게에 지고 있었습니다. 박수근이 금성집에 남겨놓고 떠난 그림들을 맡아 담은 향아리입니다. 아내는 그림들을 종이에 싸 향아리에 담고 뚜껑은 진흙을 발라 밀봉했습니다. 그냥 피난길이 아니고, 어두운 밤을 틈타 도망치는 북한 탈출길입니다. 향아리는 여간 짐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찾으러 오면 되겠지. 우선 목숨부터 구하자.”

김복순씨는 김화로 내려가는 신작로변 언덕 소나무 밑에 그림 향아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아니면 미군이 있을 것 같은 김화를 향해 칠흑같은 남대천(지금의 화강)을 건넜습니다. 마침 그 시각, 그들의 피난길 오른쪽 오성산 능선에서는 저격능선을 선공하려는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 작전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승리전망대에 오르면 그때 피란길이 그림지도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그리고 오성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상감령 하감령 삼각고지 저격능선이 작전지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바라보입니다.

사람들은 박수근의 그림을 ‘갈색과 재색이 주조인 그의 그림은 늘 공간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수많은 애기들을 그는 어두운 공간 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 공간처럼 그의 생애도 묻어둔 큰 공간이 있습니다.

박수근은 19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예술생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6.25 전쟁의 휴전 직후에서 정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춘천 약사리고개 일대에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그림을 그리던 1940년대 초까지 십 수 년 동안은 빈 공간입니다.

그의 그림의 토양이 되던 젊은 시절 그림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8번 번째나 선전에 입선했고, 평양도청 서기 시절엔 주호회관 동인그룹을 만들어 평양화단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처가집이 있던 강원도 금성에서 살며 크리스천이자 자유사상가인 그가 번민 속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음직 하지만 해방공간과 6.25에 이르는 기간의 그의 그림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6.25와 함께 남으로 온 사람이고 그 시대 그의 그림세계는 사실상 북쪽에 묻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박수근의 자전 소설 ‘朴壽根’

박수근의 자전적 소설 ‘박수근’이 지난 1992년 간행됐습니다. 이 소설은 소설가 정현웅씨가 박수근의 장녀 인숙씨, 친인척,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썼는데, 소설이라기 보다는 한 화가의 일생을 추적하는 다큐멘타리에 가까웠습니다. 더

구나 전강원도민일보 전무이사인 한영달씨의 현장취재까지 가미돼 실존 인명과 지명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될 만큼 형식만 소설이지 오히려 기록물에 가까운 글입니다.

이 소설에 따르면 금성에 살고 있던 박수근은 6.25가 터지자 홀로 남행길을 택해 월남합니다. 이어 52년 10월 부인은 당시 여덟 살이던 딸 인숙씨를 걸리고 아들 성남씨(당시 네 살)를 업고, 박수근의 동생 원근씨 부부와 함께 월남합니다. 금성에서 김화까지는 50리 길밖에 안되었고, 김화 일대에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는 김화였지요. 부인은 남편의 그림 500여 점을 종이에 싸고 항아리에 담아 옹기뚜껑을 덮고 진흙으로 밀봉해 원근씨의 등에 지켜 견고 있었습니다. 금성에서 김화로 가자면 아침리, 하소리, 감봉리를 지나 남대천을 건너야 합니다. 당시 이 일대는 미군과 중공군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었기 때문에 일행은 일단 야산의 소나무 밑에 이 그림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을 건너자마자 미군들에게 붙들렸다는 것이지요.

부인 김복순씨는 지난 1979년 작고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찾으러 몇 차례 김화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딸 인숙씨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한 말을 구술해 밝혀진 것인데,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우선, 부인의 구술 가운데는 그림 항아리를 묻고, 남대천을 건너자마자 미군에 붙잡혔고, 곧 별 2개를 단 미군 장군이 직접 심문을 했으며, 월남을 하면서 중공군들을 보았던 사실

들을 자세히 알려주자 “이 피난민 가족을 특별히 배려해 인도하라”고 명령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1952년 10월 한국전쟁의 전선은 현재의 DMZ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오성산을 거점으로 금성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은 제 15군과 111군 예하 4개 사단이었습니다. 당시 저격능선에는 한국군 2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은 통상적인 전선 배치대로 800~900m 앞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은 당시 소련혁명 기념일입니다. 중공군은 이날을 기해 저격능선 일대에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8군 사령관 팬플리트는 10월 8일 글라크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모종의 재가를 받습니다. 작전명은 ‘쇼우 다운’, 10월 14일 선제공격하라는 것이지요. 이 전투는 42일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박수근 부인의 남행길에서는 수많은 중공군 진지를 목격했으며, 남대천을 건너자 마자 잠복중이던 미군에 붙들려 작전상황실로 안내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미군은 저격능선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던 때지요. 즉 10월 14일 이전이지요. 당시 이 일대는 미 7사단이 주둔해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사단장은 스미스 소장이이었습니다. 아마 부인을 심문했던 별 둘짜리 장성은 바로 스미스 소장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당신 작전 지도를 다시 재현하면 박수근 부인이 남대천을 건너 온 지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내를 건너기 전에 야산 소나무 밑에 그림 향아리를 묻었으니까 그 야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물 단지는 현재 DMZ 안에 묻혀 있을 게 분명합니다.

누가 심심풀이로 향아리 속 그림 값을 계산해 봤더니 수조 원이 되더라고요. 박수근이 작고하기 전 미국인 여류 저널리스트 마가렛에게 팔려간 그림 값은 호당 1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 값은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작품 중에는 금성에서 그렸던 두고 온 작품들을 회상하며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엄청난 그림 값 때문에 화제가 됐던 ‘빨래터’도 금성에서 그렸던 그림의 ‘재탕’일 가능성이 많지요. DMZ 그림향아리 속에는 그 ‘빨래터’의 오리지널이 담겨있을지도 모르지요.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에서 태어났지요. 유복한 가정이었지요. 그러나 부친 박형지는 광산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양구지방의 유일한 개발광산은 현재 DMZ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문등리 형석광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그의 부친이 이 광산에 투자했을 거라고 해요. 박수근이 춘천 약사리 고개일대에서 노동판을 전전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부친은 내금강에서 시계수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다시 금성으로 이사해 명신당이라는 시계점을 냈지요. 집은 금성우편소 맞은편의 초가였지요. 박수근은 평양에서 도청서기를 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않아 금성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0년 2월 10일 뒷집 처녀 김복순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부인은 춘천 고녀를 나온 당시로는 엘리트여성이었습니다.

그의 금성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철원군 김화읍엘 가면 한영균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이야

기를 빌면 박수근은 한영균씨의 중학교 도화선생이었지요. 물론 북한이 공산치하에 놓여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수근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대목도 재미있습니다. 한영균씨는 박수근이 금성감리교회에서 한사연 목사의 주례로 기독교식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사연 목사는 한영균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목사는 6.25와 함께 말살된 북한 최후의 교회에서 순교한 분이기도 합니다. 박수근은 바로 이교회의 집사직분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사연 목사는 만주에 독립운동 기금을 보낸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공산치하에서는 반공주의자로 낙인찍히기도 했습니다. 실례로 50년 봄 그는 민주당 김화지역 당수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수근을 김화군 대의원, 부인 김복순을 김성면 대의원으로 출마시켜 당선 시켰지요. 공산당의 나라에서 민주당은 애당초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반공산주의자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제거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한영균씨의 증언으로는 박수근의 남행 결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그가 늘 제거 표적이 돼왔고, 실제로 수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5 한국전쟁 최초의 전투, 최후의 전투

박수근의 ‘나무’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잎을 떨군 고목의 모습입니다. 그가 월남하기전에 살던 금성에는 그가 자주 찾아가던 ‘십리장림’이란 긴 숲이 있었습니다. 금성천변에 눈이 모자르

게 띠를 이룬 이 숲은 그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나무’은 바로 십리장림의 어느 고목이라고 합니다. 겸재 정선의 피금정(披襟亭)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에 ‘옷깃을 풀어 젖히는 정자’란 뜻의 피금정이 서있습니다. 정선도 십리장림을 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십리장림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은 우문입니다. 금성은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그 시간까지 피 터지는 전투를 벌린 한국전쟁 최후의 전투현장입니다. 중공군이 스스로 상감령에서 전설적인 전투를 벌인 후 그들의 항미원조전 대미를 장식하는 최후의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마오쩌퉁이 “한국군을 1만 명이 상 섬멸하라.” 고 특별명령을 내렸을 만큼 중공군이 작심하고 벌인 전투 현장입니다. 그때 숲이 산불처럼 타버렸다고 합니다.

금성전은 북한강 제1지류입니다. 평화의 댐 상류 DMZ 속에서 북한강에 합류합니다. 바로 이 북한강에서 한국전쟁 최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6사단도 이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이 최후의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북한강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최초의 전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진강은 북한강의 옛 이름입니다. 이때도 한국군 6사단은 모진강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했습니다.

지금의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모진강에는 일제가 놓은 시멘트 다리 모진교가 놓여 있었습니다. 38선 팻말은 다리 북쪽 300m쯤, 말고개 밑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 6사단 7연대는 300m를 위하여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칠 수는 없다고 판단

했던 것 같습니다. 강북을 포기하고 모진교 남쪽에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1950년 6월 23일, 북한강 가는 태풍 ‘엘시’가 몰고 온 가랑비가 30년 만에 최악이라는 봄 가뭄을 해소시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홀연히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다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화천으로 출가한 딸집에 살고 있는 장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소원은 38선 남쪽 춘천에 살고 있는 아들집엘 한 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다리 한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팡” 소리와 함께 노인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노인이 국군 6사단 7연대 수색대가 설치한 폭발물을 건드린 것입니다. 다리 건너에는 인민군 2사단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산부근에서 경원선으로 철원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금강산전철로 갈아타고 금성으로 갔으며 며칠 전 은밀히 말고개 뒤 신포리 별판에 와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전과 함께 자신들이 건너야 할 모진교에 한국군이 어느 정도 방어시설을 해놓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그 리운 노인을 찾아내 희생물로 삼은 것입니다.

6월 25일 새벽4시. 북한강가엔 폭우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폭풍!”

인민군에 외마디 명령이 떨어졌다. 인민군의 122mm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U76 자주포가 모진교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모진교 건너편에 설치된 38선 팻말을 아무런 저항 없이 짓밟고 일찌감치 모진교 앞에 대기하며 날이 밝기

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군의 방어시설이 별 볼일 없다는 사실은 이미 노인의 희생으로 증명됐습니다. 북한군은 북한강을 38선이 가장 먼저 무너진 비운의 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6사단은 3일 동안이나 춘천대첩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구해내는 북한강 전설을 쓰게 됩니다. 6사단의 북한강 신화는 또 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의 중국인민지원군(抗美援朝志願軍)이 압록강을 도하합니다. 중공군은 모진강에서 6.25전쟁 초전을 치렀던 국군 6사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 그때 모진강의 7연대는 가장 먼저 압록강변에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중공군은 그들의 길에 덮을 놓았습니다. 6사단의 퇴로를 3중 그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밤중 전력을 다해 기습적으로 공격해 버렸습니다.

6사단은 그때 압록강에서 당했던 참담한 기억 때문에 중공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소위 중공군 4차공세를 막기 위해 김화를 향해 진격하던 부대는 광주산맥 광덕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조우합니다. 그러나 부대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광덕계곡, 가평을 지나 북한강 건너고 장락산맥을 거슬러 올라가 용문산까지 퇴각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는 맘먹은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까지 쫓아와 북한강, 그리고 흥천강 북쪽 강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은 마치 축 쳐진 부대자루처럼 뼈죽하게 남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자신들이 너무 남

쪽 멀리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즈음입니다. 6사단은 그 부대자루 끝에서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차례입니다. 부대자루가 가평에서 춘천에 이르는 경춘가도에 묶어버렸습니다. 중공군은 쫓기고 밀리며 금성까지 밀려가 있었습니다.

1953년 여름, 이번엔 북쪽으로 비쪽 솟아있는 부대자루의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용문산에서부터 무려 80km를 중공군을 쫓아온 6사단도 수도, 5, 8, 11사단과 함께 이 북한강 지류 금성천을 건너 부대자루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953년 여름, 1951년 7월 8일 시작해 만 2년을 끝낸 판문점 휴전회담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전보다는 협상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자유진영은 ‘말로 싸우는 전쟁(A Talking War)’이라고 하고, 공산군측은 ‘싸우다가 쉬고, 쉬다가 싸웠다(打打停停, 停停打打)’고도 했습니다. 6월 8일, 어렵사리 “송환을 원하는 모든 포로는 60일 이내에 송환한다”는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됐습니다. 이제 정전협정 조인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종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자 승전 기념물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보호국, 우호국 내지는 속국에 대한 지배 지위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공산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이는 중국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당군 출신자들을 전선에 앞장세워 청소하는 소득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강 유역의 부대자루 돌출 전선을 주목했습니다. 한국군 뒤쪽으로는 험준한 광주산맥이 미군의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공군 54군의 주력부대 130사단 등 135만 명, 북한군 45만 명을 이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입니다.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후려치는 경악할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18일 새벽, 이승만대통령은 기습적으로 2만 693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당시 북한 출신포로 9만 명 중 40%, 남한 출신 포로 5만 명 중 50%, 중공군 포로 2만 명 중 75%가 반공포로로 분류되어 부산, 마산, 광주, 논산, 대구, 영천, 부평 등 7개 지역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친공포로는 계속 거제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격노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은 중공군 포로 대부분을 대만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19일 중공군 사령관 평더화이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군대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의서를 던졌습니다. 북쪽을 향해 불룩하게 솟아있는 금성의 부대자루 전선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7월 13일 밤, 중공군 12개 사단이 동시에 문제의 금성 지역 돌출부를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투는 7월 27일 휴전당

일까지 치러졌습니다. 중공군은 한국전쟁 중 가장 큰 희생인 6만 6,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대신 한국군 1만 4,000명을 희생시키며 40km 정면에서 4km를 전진해 금성천에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강화도 절반만 한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 전쟁의 대미를 승리로 장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6.25 전쟁 마지막 전투도 그렇게 북한강이 치러졌습니다.

# 4

## 흐르지 않는 강

### 1 화천댐 합재기 어뢰를 맞다

1953년 여름, 한국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승전 기념물이 필요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지만 정말 기념물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금성전투에서 강화도 절반만 한 땅을 뺏어갔지만 이 전투에 최고의 희생을 치르면서 전력투구했던 것은 목표가 다른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천수력발전소이었습니다. 당시 남한 전력생산량의 30%를 차지했던 이 발전소는 남북 모두에게 보물이었습니다.

화천군 대이리 북한강변 국도를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지만 화천댐은 감춰진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명을 한 파란만장한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4년 10월 북한강에 이 댐이 완공됐을 때 일입니다. 북한

강 계곡에 육지 속의 거대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잘록한 북한강 허리가 시멘트 독으로 막힌 댐의 모습은 뾰족한 새 부리를 연상케 합니다. 호수는 남쪽으로는 간동면 유촌리로, 북쪽으로는 화천읍 동촌리로 펼쳐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깃을 활짝 펴놓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강의 지류 서천을 따라 양구 상무릉리로 뻗은 물길은 비상하는 새의 쪽 뺨은 두 다리 그리고 월명리의 구부러진 물길은 오므린 발톱처럼 보였습니다.

진정 커다란 새 한 마리였습니다. 저렇게 긴 꼬리는 금강산 기슭에 닿아 있지 않을까. 북한강에 내려앉은 무지하게 큰 파랑새. 물결이 일렁이자 그 큰 파랑새의 등에도 귀갑(龜甲)이 무늬져 일렁이었습니다. 파랑새 날개 위로 구만리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영락없는 봉(鳳)이었습니다. 아니 바다만 한 새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상상의 새, 봉(鵬)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상상의 새, 대봉을 토목공사라는 자연개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강에 대봉을 창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시멘트 독은 ‘대봉제(大鵬堤)’, 봉(鵬)이 그려진 호수는 ‘대봉호(大鵬湖)’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본은 대륙침략을 하기 위한 동력 동원 목적으로 화천댐을 건설했습니다. 수탈 목적으로 건설한 댐에 그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속내를 증명하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1987년 여름 화천댐 아래 강바닥에서 대봉제(大鵬堤) 표지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그 한자는 ‘대봉제(大鵬堤)’가 아니었습니다. 큰 새는 큰 새인데 대봉보다 작은 새 ‘대

명제(大鵬堤)’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감쪽같은 이름 바꿔치기는 이 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8.15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자 38선 이북의 이 댐은 북한 소유가 됐습니다. 북한은 일본 제국주의가 붙인 이름을 떼어냈습니다. 화강암 표지석은 그때 댐 아래 까마득한 강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을 것입니다. 북한은 댐 이름을 ‘화천언제’로 개명했습니다. 대봉호란 호수 이름도 일제 냄새가 풍겼습니다. ‘화천저수지’로 개명했습니다.

5년 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화천수력발전소는 남북 쪽 어느 쪽이나 보물덩어리였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하고, 남한으로서는 기필코 탈환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1951년 5월 흥천강까지 내려왔던 중공군은 패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천수력발전소 일대로 집결했습니다. 북한강을 따라 진격하던 UN군은 만수위에 이른 화천저수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중공군은 수공(水攻)의 귀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1950년 겨울 개마고원 장진호 수문을 열어 미군의 발을 묶었으며, 철원 역곡천을 범람시키며 삼국지 같은 수공작전을 편 경험이 있습니다.

UN군은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화천언제의 수문을 열어 공격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침 동해에서 미7함대 항모 프린스턴호가 작전 중이었습니다. 어뢰를 탑재한 함재기 A-1 스카이라이더 4 대가 엄호기 편대와 함께 이륙했습니다. 항공기는 화천저수지 계곡으로 비집고 들어와 호수 위에 어뢰를 떨어뜨렸

습니다. 어뢰는 수문 4개를 박살냈습니다. 과연 전쟁사에서 어뢰로 육지의 시설물을 공격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뢰를 항공기에 실어 호수에 떨어뜨리는 공격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어뢰공격은 6.25전쟁 최초이자, 유일한 어뢰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공군의 북한강 수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북한강 계곡에서 6만 2,000명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살됐습니다. 승리의 전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이들 ‘항미원조군’을 ‘오랑캐’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랑캐를 깨부순 북한의 화천저수지를 ‘파로호(破虜湖)’로 바꿔 명명했습니다.

1987년 2월,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해 화천댐 상류에 평화의 댐이 착공됐습니다. 화천댐은 또 한 차례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새 댐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1988년 9월 17일 개막 예정인 올림픽까지는 1년 남짓 남은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북한 금강산댐이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12억 4,000만t. 일단 금강산댐에서 방류되는 물을 차단하는 마지노선을 화천댐으로 선택했습니다. 화천댐의 파로호는 10억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그러나 큰항아리에 담긴 12억 4,500만t의 물을 10억t 용량의 작은 항아리에 받아 담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화천댐 수위를 화천수력발전소의 터빈을 돌릴 수 있는 한계수위를 148m까지 낮춰 파로호 저수량을 3억 5,000만t으로 감량키로 했습니다. 즉, 파로호에 6억 5천만t의 물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억 9,000만t은 1988년 5월 1단계 공사가 끝나는 평화의 댐에서 가둔다는 계산입니다. 그렇더라도 금강산댐에서 순식간에 물이 방류된다면 정상적인 수문 조작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천댐의 자연방류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화천댐 몸통에 굴을 뚫는 것입니다. 수문 30m 아래, 해발 150m 지점에 댐 몸통을 관통하는 직경 5m, 길이 150m짜리 터널 5개를 뚫어 언제라도 수위가 터널 입구까지 올라가면 파로호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물길을 막기 위해 댐을 쌓는 것입니다. 그 댐에 다시 물길을 내는 이 기상천외한 공법으로 화천댐은 세계 유일한 구멍 뚫린 댐이 돼버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물을 빼내야할 필요가 없어지자 터널 입구에 문을 해 닫았습니다. 화천댐은 몸통에 문 달린 터널이 뚫려있는 댐,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댐이 돼버렸습니다.

## 2 북한의 '임남 언제', 남한의 '평화의 댐'

구멍 뚫린 화천댐. 그것은 전흔입니다. 북한강 계곡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치른 물전쟁의 흔적입니다. 사실 1987년 이래 20년 동안 이 계곡에서는 국민의 단 한마디 격려는 커녕 비난과 비아냥거림의 눈초리만 받는 고독하고 치열한 물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꼭 동화에 나오는 옛날 아이들의 '보(洑)싸움 놀이' 같았습니다. 두 편으로 갈리어 한 편은 도랑 위쪽에 보를 막

고, 다른 한 편은 아래쪽에 보를 막아 위쪽의 보를 터뜨려 아래 쪽 보를 무너뜨리는 놀이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남북한이 북한강에서 정말 그 ‘보싸움 놀이’를 쏙 빼 닮은 실전을 치렀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1986년 10월, 북한은 DMZ 남방한계선인 북한강 오작교에서 북쪽으로 정확하게 11km 지점, 강원도 창도군 임남리에 임남 언제(堰堤)를 착공했습니다. 남쪽은 금강산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댐이 들어서는 곳은 조선조 초 강희백(姜希伯)이 “땅이 독속같이 편벽하여 숨어살기 알맞다”고 지목했던 땅입니다. 금강산댐 프로젝트는 북한강에 5개의 댐을 막고, 임진강에 2개의 댐을 막아 두 강의 물을 그 움푹 파인 독 속에 가뒀다가 동해안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 독 같이 움푹 파인 골짜기 끝에는 인공수로를 의미하는 통구(通溝)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었다. 통구에서 안변청년발전소까지 45km나 되는 장거리 수로터널을 뚫어 북한강, 임진강의 유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토개조였습니다.

만일 천재지변으로 그 댐이 붕괴된다면 북한강 하류 화천, 춘천, 가평, 서울은 어떻게 될까? 그 보다 홍수기에 수문조작 실수로 일시 방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은 남북관계가 삐걱될 때마다 북한이 대규모 수문을 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강변의 88서울 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1987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상리 비수구미에 평화의 댐

이 착공됐습니다. 대응댐이었습니다. 보싸옴 놀이 범칙대로라면 위쪽 보가 쌓이니까 아래쪽에서도 대응보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강의 비장한 현실과 달리 밖의 반응은 시큰 등 했습니다. 더러는 북한강가에 유난히 많은 예언적 지명에 더 흥미 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의 댐 후보지를 중심으로 옛 사람들은 그 상류를 수상리(水上里), 하류를 수하리(水下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댐을 막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강산댐이 건설되는 창도군 임남리의 임남은 맡길 임(任), 남녘 남(南)으로 씁니다. ‘(북한강이) 남쪽으로 흘러가도록 맡겨두라’는 예언인데 북한이 거기다 댐을 막아 물줄기를 돌린다니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댐을 막은 자리 ‘비수구미’의 한자 ‘비수구미(備水九尾)’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은 한 지방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평화의 댐은 수해를 대비해(備水) 한강에 세워지는 마지막 9번째 댐(九尾)이라는 것입니다. 한강의 댐을 건설 순으로 보면 청평댐(1943년 7월), 화천댐(1944년 5월), 춘천댐(1965년 2월), 의암댐(1967년 8월), 팔당댐(1973년 12월), 소양강다목적댐(1973년 12월) 그리고 7번째가 충주댐(1986년 10월)입니다. 당시 홍천강의 홍천댐은 건설이 ‘0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은 마지막 9번째 댐입니다.

1988년 5월, DMZ 남쪽 8km 지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상리에 평화의 댐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무렵 보싸옴 놀이가 매우 싱겁게 되어간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강산댐 공사

에 동원됐던 북한군이 돌연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댐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연히 남쪽만 바벨탑을 세우느라고 온 나라가 법석을 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금강산댐 건설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수로 터널을 파기 위해 땅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1998년 어느 날, 그들이 금강산댐 공사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북한강 바닥에 개미처럼 달라붙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보싸움 놀이를 하다 뿔뿔이 헤어진 아이들처럼 강 상류에서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아무도 북한강 상류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입도 병긋하지 않았습니다.

방심과 자위와 자만의 2년, 그 사이 금강산댐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 10월 어느 날, 백암산의 한국군 관측병은 DMZ 너머 북한강에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토목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편의 색깔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강산댐은 1단계 공사가 완공됐을 뿐, 아직 공정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댐 뒤편 계곡이 나날이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 미완성 구조물이 어느새 담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금강산댐은 없다”고 목에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은 “잘 못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겨울, 북한강이 DMZ를 넘어오자마자 만나는 오작

교는 밤새 얼음장이 뒤집히던 물속으로 숨바꼭질하다가 급기야 온통 흙탕물의 바다 속에 잠겨버린 처참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작교 용사들이 까마득히 높은 진지 위까지 뛰어 올라갔을 무렵 그들은 겨우내 허영게 얼어붙었던 북한강이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몸부림치는 것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금강산댐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그 댐이 터질까봐 비상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든 아니든 예고 없는 물폭탄은 분명 수공이었습니다. 예견했던 대로 우리 머리맡의 금강산댐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2002년 9월, 대응댐 평화의 댐을 45m나 높이는 2단계 증축공사를 착공한 것은 그 흙탕물 사건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드디어 높이 125m, 길이 601m, 저수용량 26억 3,000만t짜리 석괴형 평화의 댐이 태어났습니다. 금강산댐은 높이 121.5m, 길이 710m, 저수용량 26억 2,000만t. 저수용량에서 평화의 댐이 1,000만t 더 많습니다. 철저한 ‘보싸움 놀이’의 법칙이었다. 위쪽 보(洑)보다 아래쪽 보가 커야 놀이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금강산댐에 가둔 물을 깡그리 받아 담을 그릇이 마련된 셈입니다.

### 3 풍악 시냇물의 원조 금강산댐

금강산댐은 누구의 발상일까? 북한강은 통구의 수로터널을 빠져나가 안변청년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산일대의 농업용수로 공급됩니다. 전략적 용도도 탁월합니다. 이미 북한은 ‘인도적

차원'임을 강조하며 두 차례나 금강산댐의 수문을 열어 말라붙은 북한강과 파로호에 '생명수'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수공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했을까?

그러나 금강산댐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댐을 축소한 것 같은 댐이 이미 오래 전 북한강 상류 화천에 건설돼 있었습니다. 그 '원조' 금강산발전소를 건설한 사람은 초대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사장 쿠메 타미노수케(久米民之助)입니다. 공학박사인 그는 1915년 회양군 안풍면 반유리에서 북한강 상류의 큰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인 때, 화천(花川)의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고 한 관동별곡의 회양 땅에서 꽃내(花川)란 이름으로 흐르는 북한강 상류를 발견했습니다. 강은 표고 500여m 높이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되어 서해에서 바다를 만나기까지 320km의 여정입니다. 동해까지는 48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한반도의 등뼈산맥 태백산맥이 가로 놓여있었습니다. 쿠메에게는 그게 매력 있었습니다. 산맥에 굴만 뚫는다면 수 백m의 낙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허리에 터널을 뚫어 북한강을 동해 쪽 가파른 경사지로 떨어뜨리면 최소한 1만kW 정도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바로 나왔습니다. 물줄기를 바꾸는 유역변경은 일본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21년 9월, 화천(花川)에서 통천군 백양면 중대리까지 추지령밑으로 터널을 뚫기 시작했습니

다. 중부 영서지방에서 관동과 관북지방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은 해발 643m의 추지령을 넘어 통천읍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쪽 70리의 철령(685m)과 함께 국도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유명한 고개입니다.

착공 2년만인 1922년 9월 4일, 추지령 밑으로 길이 1,442m 짜리 터널이 뚫렸습니다. 회양군 회양면·풍안면의 북한강 상류의 물이 땅 속에 묻힌 철관으로 관통해 동해안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11월 14일, 중대리 발전소 1호기가 완공되고, 166.9km 거리에 66kV를 송전할 수 있는 목주(木柱)송전선로가 세워졌습니다. 이듬해 1월 30일부터는 경성전기가 금강산 전철로부터 수전(受電)을 개시했으며, 그해 8월 1일 철원~김화 구간에 전기철도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 4월, 중대리 발전소가 7,000kW 규모로 마저 준공됐습니다.

태백산맥 동해안 쪽 산비탈에 매달려 있는 발전소들은 계단식으로 건설됐습니다. 1927년 2월, 720kW 규모의 판유리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판유리 발전소는 저수지의 방수를 이용하는 방법인 언제식 발전소입니다. 계단식 발전소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발전소였습니다. 1928년 11월 22일, 중대리 발전소에서 1차 발전을 끝내고 방수된 물을 이용한 향천리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3,250kW 규모였습니다.

1931년 7월 1일 철원역에서 내금강산역에 이르는 116.6Km의 전철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금강산수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전기가 이 구간에 공급됐습니다. 1936년 11월 20일,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는 4번째 발전소인 신일리 발전소(2,600kW)를 준공했습니다. 전력은 실컷 쓰고도 남아돌았습니다. 서울방면으로 2,005kW와 철도연변 2읍과 29개면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철원·포천·평강·통천 일대의 8,800여 호와 광산, 정미소 등 모두 2만 9천여 호가 금강산발전소의 전기혜택을 받았습니다. 금강산, 신문명까지 열린 그곳은 전기불과 관광, 돈과 환락,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다. 평양 명기 선우일선은 그 무렵 '조선팔경가'를 내놓았다.

「에 금강산 일만 이천 봉마다 기암이요  
한라산 높아 높아 속세를 떠났구나  
에헤라 좋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좋다  
명승의 이 강산아 자랑 이로구나」

관광열차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 막차까지 7회를 운행했습니다. 성수기엔 8회까지 연장 운행했습니다.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소요시간은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요금은 6원이었다가 대동아전쟁의 전쟁자원으로 내금강 일대의 철로를 걷어가 마지막 관광열차가 운행되던 때는 최고 7원 56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경원선을 타고가다 철원역에서 금강산 전철을 갈아타자면 자그마치 운임은 21원 42전이나 됐습니다. 당시 목수 일당이 1원 90전, 쌀 1말 값은 3원 50전이었습니다. 최초의 금강산수력발전소는 온 땅의 꿈과 낭만과 사치의 상징으로 태어나던 금강산관광산업을 가동할 에너지원으로 탄생했습니다.

#### 4 흐르지 않는 강의 '반달숲'

한묵령(寒墨嶺)은 늘 청산입니다. 화천 풍산리에서 한묵령의 긴 고개를 넘어오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북한강입니다. 강마을 안동네(內洞)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옛날 금강산에서 뗏목이 내려오다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때론 돛을 필력이며 소금배가 와 닿기도 했습니다. 그때 ‘안동네’에 뗏목이 들어오고 배가 닿자 ‘네’ 자를 빼고 ‘안동포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배 뜨지 않는 ‘안동포구’로 북한강을 건너는 좁고 높은 철제 조립식 다리가 놓였습니다. 다리 이름이 새겨져 있지도 않은데 자연스럽게 ‘안동철교’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아래서 군부대가 북쪽하늘을 향해 포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동포 포부대는 자연스럽게 ‘안동포대’입니다.

강 건너로 아름다운 양이대 별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별판 고라니나 멧돼지는 4바퀴 자동차를 혹시 자기들처럼 동물이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겨운 소리를 지르며 강기슭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동차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남한의 북쪽 끝 DMZ입니다. 광주산맥의 준령 사이를 마치 조각칼로 예리하게 도려내듯 깊은 살점이 패인 틈새로 강이 숨어있듯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곤두박질해 내려온 DMZ가 그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색 바랜 시멘트 다리가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서있는 두 진지의 용사들이 밤새 몇 차례나 만났



북한강 흐르지 않는 강

다 헤어지고, 또 만나는 순찰로입니다. 초승달 뜬 밤, 다리 한 가운데서 만나 하이파이브를 하고 발걸음을 되돌리는 두 기지의 순찰병들은 문득 자신들이 견우와 직녀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럴 때면 금빛 은빛 별빛을 가득 담은 북한강은 꼭 은하수 같았을 겁니다. 북한강 오작교(烏鵲橋)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DMZ 용사들은 오작교 밑에 황금색 몸빛의 커다란 물고기 ‘전역어’가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보면 ‘제대 특명’이 떨어진다는 말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역어는 말년 병장이나 볼 수 있는 고참병과 동격인 물고기인 셈입니

다. 신참병사가 몸이 아파 전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부대를 떠나면서 사실은 오작교에서 전역어를 보았다고 하는 바람에 전역어 신화는 병사들 사이 실화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실은 천연기념물 190호 황쏘가리입니다. 그 귀하신 몸이 북한강 상류 오작교 일대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전역어 얘기가 들리지 않던 2000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오작교 용사들은 오작교 교각이 하루가 다르게 빠죽하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어디론가 빠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해 10월부터 담수가 시작된 금강산댐이 원인이었습니다.

한 달 후인 2000년 11월, 북한강은 초당 7.6t의 물을 오작교 밑으로 흘러 보내고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초당 40t이 흘러 갔으니까 한 달 만에 강이 체중을 5분의 1로 감량한 것입니다. 그 후 1년 동안 통계는 눈을 휘둥그레 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간 18억t의 물을 흘러 보내던 북한강에서는 17억 7,000만t의 물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실종된 물을 금강산댐이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통구에서 시작되는 수로 터널을 통해 안변청년발전소의 터빈을 돌리고 있었을 겁니다. 영겁을 흐르던 강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강산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19km 구간, 그곳에 ‘흐르지 않는 강’이 누워있었습니다. 유대광야의 와디처럼 남북한은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사이 50리 북한강 골짜기를 인공 하곡(河谷), 마른 골짜기로 개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강은 그곳에서 아

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처럼 느끼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강산댐에서 강이 막힌 그날 이후, 화천댐은 파로호에 가둔 물을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방류란 남는 물을 호수 밖으로 쏟아 버리는 것입니다. 북한강 본류가 잘려나간 파로호엔 한 방울도 쏟아 내버릴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이 북한강을 거슬러 평화의 댐 여수로로 역류하고, 안동철교를 거슬러 올라가 오작교 교각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0여년 째 북한강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슬픈 강이 멀리 산굽이를 돌아 말고 활처럼 크고 둥글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낮은 강 언덕이 불룩 배를 내밀어 강 허리를 구부려 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봄 강엔 그 허리와 강 언덕 사이에 연두색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누가 연두색 펜스를 쳐놓았다고 생각할만큼 구조물은 아주 선명합니다.

가을강엔 갈색 구조물이 생깁니다. 누가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구조물은 부드러운 곡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긴 버드나무 숲 띠입니다. 그 숲 띠가 금강산댐 담수 때부터 생겼으니까 갯버들 나이는 20여 세가 돼 갑니다. 반달숲이 형성된 낮은 언덕은 상류에서 강물에 실려 흘러오는 흙가루가 차곡차곡 쌓이는 바람에 강을 향해 둥글게 배를 내밀고 있는 곳입니다. 상류에서 갯버들의 어린 씨앗들이 무작정 떠내려 왔다면 대부분 그 강 언덕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달숲

은 DMZ 너머 북한 땅 어느 버드나무 숲에 떨어졌던 어린 씨앗들이 남쪽에 터전을 잡은 ‘새터민 촌락’이라고 불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숲 띠는 둥근 강안(江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상현달처럼 곱고 정교하게 구부러놓지는 않았지만, 숲 띠는 마치 갯 빗어 놓혀 놓은 송편 모양으로 북한강 상류를 향해 2km쯤이나 펼쳐져 있습니다. 강을 향해 앞쪽으로 나서있는 갯버들은 당당하게 허리쯤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도화지에 푸른 물색을 칠하고 한쪽에 연록의 물감을 반달처럼 그려놓은 영락없는 수채화입니다.

오작교 용사들은 매일 저 수채화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명의 도사들이 반달처럼 떠있는 숲을 반달숲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오작교 아래 떠있는 반달숲을 그들은 은하의 상현달 나룻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이 흐르지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래도 영겁을 흘러온 북한강은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북한강의 슬프게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 5 북한강에 내려앉은 막간의 평화

‘평화의 종’이 평화의 댐 종공원에 매달려 있습니다. 종 머리에서 동서남북을 향해 앉아 있는 비둘기 4마리 중 1마리의 날개가 꺾여있습니다. 세계 60여 개 분쟁국에서 보내 온 탄피들과 함께 유리관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 꺾인 날개의 무게가 1관. 이 때문에 평화의 종은 세계에서 가장 큰 1만관짜리 종이



평화의 댐 비목공원

되고 싶은 욕망을 통일이 되어 그 날개를 다시 붙일 때까지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평화 메시지, 그들이 악수를 청하고 있는 핸드프린팅, 수십 개국에서 보내온 온갖 종들이 전시된 그 공원에서 새삼 아직은 미완성 평화라는 소리가 가슴에 젖어드는 것은 그 꺾인 비둘기 날개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의 댐 감상법은 먼저 그 댐이 2단으로 쌓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단은 1988년 5월 27일 1단계 공사가 완료됐을 때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2단은 2006년 6월 15일 2단계 공사가 끝나 준공했을 때의 높이입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무려 5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28일 전두환 정권이 이 댐을 착공했고, 노태우 정권이 1단계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평화의 댐을 국민의 기억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 댐을 미워 하던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는 2002년 9월 30일 2단계공사를 착공했으며,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는 그 댐을 북한 금강산댐보다 더 크게 완공해 준공했습니다.

평화의 댐의 2단 계단, 그것은 지난 정권들의 영욕이 그려진 얼룩이자 흔적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금강산댐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그 후 노태우 정권은 금강산댐에 대해 말하기를 ‘회피’했고, 김영삼 정권은 ‘침묵’했으며, 김대중 정권은 ‘축소’, 노무현 정권은 ‘무관심’이었을까?. 눈 여겨 보면 평화의 댐은 댐 위에 댐이 쌓인 것 같은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국제공항 활주로를 비스듬히 세워놓은 것 같은 그 댐의 정교한 2단 벽면은 수공이든 사고든 금강산댐의 물 폭탄을 막아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댐은 당태종이 하북의 반란자 흑달을 칠 때를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의 땅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낚낚이 차단해 말려버렸던 건갈 공법을 알기나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던 교활한 전쟁을 평화의 댐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5월 31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전화통지문 한 통을 남쪽으로 보내왔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임남언제의 물을 6월 3일부터 뿜는다는 것을 귀측에 알린다. 우리의 사전 통보 조치는 어디까지나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들은 금강산댐에서 북한강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허영게 드러난 파로호 사정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 반, 고기 반’이라던 파로호 고기잡이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 무렵 한 북한강 소녀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눈물겨웠습니다.

‘대통령아저씨, 죽어가는 파로호 때문에 화천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어둡습니다. 파로호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몸이 많이 아파 할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기어이 울고 말았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파로호에서 고기를 잡는 아빠 친구 한분은 아침에 아이가 등교하면서 학교에 가져가야 된다고 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를 오히려 때려서 보내고 술을 마시고 말았다는 얘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해 6월 3일, 약속대로 북쪽에서 물이 내려 왔습니다. 24일 동안 파로호 사람들은 그 귀한 물에 손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그날 오후 ‘8.15 경축선물’인지 또 물을 내려 보내 주겠다는 전화통지문이 답지했습니다. 2년 전 꿀맛 같은 금강산댐 물맛을 봤던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약속대로 물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물을 보내달라는 정부의 끊임없는 요청에 화답한 것입니다. 이 두 차례의 ‘인도적 정신’으로 포장된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비로소 빠져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을 보내는 것도, 안 보내는 것도 모두 북쪽 맘 먹기 나름이라는 것을.

### · 한강이 1, 2, 3 ‘북파’

그러나 북한강은 흘러야 합니다. 북한강을 되살리기 위해 수달을 ‘평화의 대사’라며 북쪽으로 ‘파견’하는 현대의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수달은 몸길이가 63~75cm, 꼬리길이는 41~55cm, 몸무게는 5.8~10kg 쯤 되는 쪽제빗과의 천연기념물(330호)입니다. 납작한 원형머리, 동글동글한 코, 주름가죽에 덮여 털 속에 묻혀 있는 작은 눈, 작은 귀...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입니다.

2006년 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한국수달연구센터에는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미아 수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 수달이니까 고아인 셈입니다. 6개월 후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후 이 수달은 매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선 강원대학동물병원에서 18cm쯤 배를 가르고 전자 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북한강 ‘흐르지 않는 강’에 방사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그는 오작교 교각 밑을 지나고 철책선을 비집고 들어가 남쪽 사람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북쪽 북한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파 수달’의 암호는 ‘한강이’, 특수임무는 배터리 수명을 다하는 2년 동안 1초 간격으로 툭, 툭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2008년 북한강가의 작은 도시 화천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주관하는 제10차 국제수달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강이의 방사는 그때 보고될 DMZ수달생태연구(DMZ Otter Project : DOP)의 일환으로 착수된 것입니다.

2006년 10월 28일 오후 2시, 북한강 안동포구에서 노란 상

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밖을 살피던 한강이는  
 쏜살같이 상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흙, 스텝, 점프 그리고 풍  
 터. 마치 3단 뛰기 선수처럼 물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2초나  
 3초? 방사의식은 눈 깜작할 사이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북한강에 한 생명을 입주시킨 사건은 오랜 여운을 남  
 겠습니다. 수달은 하천이라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종입니다. 그  
 선이 오래전 DMZ로 단절됐습니다. 한강이는 단절된 그 선을  
 잇기 위해 방사된 것입니다. DMZ의 높고 견고한 철책은 야생  
 동물들의 남북왕래를 오래 전부터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  
 속의 작은 틈을 빠져 다니기를 좋아하는 수달에게 물속의 철책  
 은 즐거운 정글 놀이기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방사된 수달들은  
 물속을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유일한 동물이 될 것입니다. 남북  
 한의 수달의 종 교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수달 방사는 보다 인간적  
 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한강이를 북한군이나 과학자가 발  
 견했다면, 그들은 한강이의 복강 속에 정교하게 장착된 비군사  
 적 전자 칩을 발견할 것입니다. 전자 칩의 뚜 뚜 뚜 소리와 함  
 께 한강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북한 과학자가 통보해  
 온다면, 그것이 씨앗이 돼 남북한은 북한강에서 수달공동연구  
 의 과제를 들고 머리를 맞대게 될지 모릅니다. 이는 이데올로기  
 가 단절시킨 남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냉전  
 의 강이 평화를 잉태하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 더 북쪽으로 멀  
 어지던 한강이의 발신음이 들리지 않게 된다면, 이 사업은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강은 이념만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곳에 흐르던 연간 18억t의 물줄기는 오래 전 금강산댐에서 물길을 돌려 동해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골짜기에서 일렁이는 검푸른 물줄기는 화천댐에 가뒀 둔 물이 역류하고, 금성천이라고 하는 작은 개울이 DMZ 속으로 흘러와 합류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사이 19km의 옛 북한강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미 강의 기능을 상실한 그 인공 와디, 하곡, ‘흐르지 않는 강’에 한 생명이 입주한 것입니다.

한강이의 방사는 ‘흐르지 않는 강’에 생명을 잉태시킨 것입니다. 좀 과장하면 인간은 본의든 타의든 그 강을 ‘불임의 강’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마지 못해 한 생명을 인공수정 시킨 것입니다. 원래 생명질서란 엄청난 과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인간도 4~5 $\mu$ m 크기의 납작한 아몬드처럼 생긴 단세포 정자가 난자를 만나 형성된 존재입니다. 한강이의 적응여부에 관계없이 ‘한강이 2’, ‘한강이 3’이 방사됐습니다. 마치 납작 아몬드 형상을 한 2개의 정자처럼 ‘흐르지 않는 강’, ‘불임의 강’이라고 과학적 진단을 받은 그 자궁 속에 3마리의 씩씩한 수달이 인공수정 되는 것입니다.

북한강 수달 동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예정대로 제10차 국제수달총회가 개막됐습니다. 수달이라는 한 가지 종에 대한 보존과 보호를 논의하는 회의인데도 36개국에서 15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2년 전 ‘흐르지 않는 강’으로 간 한강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웬

일인지 그 족제비과 동물은 정말 족제비처럼 낯짝 한 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종잡을 수 없는 “뚜 뚜 뚜”를 보내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러나 동물학자들은 어느 대회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강이 스토리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의로 그날 한강이는 ‘Peace Ambassador of Korea(평화대사)’ 작위를 받았습니다. 한강이를 추억하는 특별한 여행도 마련했습니다. 페리 물빛누리호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평화의 댐부터는 버스에 나눠 타고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안동철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강이가 3단 뛰기 선수처럼 멋진 폼으로 강으로 뛰어든 안동포구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강이 1, 2, 3이 북한으로 갔는지, 다시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토록 평화 생명, 생명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북한강에서는 더 이상 ‘평화대사 수달’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북한강에서 ‘기득수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남북간 새로운 물 분쟁의 시한폭탄이 언제 카운트를 시작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아무런 일도 그 강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도 평화와 평화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깐 평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과 갈등 사이 잠시 짧은 평화가 북한강에 놀러와 앉아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 5

##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도 못다 담은 고지전

### 1 “아, 양구! 거긴 고지전입니다.”

‘하늘에 우리소리 땅위에 아우성/불바다 피투성이 세우기 몇 밤/이나  
라 해병들이 명예걸메고  
/목숨내건 싸움터 도솔산일세/오~ 도솔산 높은 봉/해병대 쌓올린 승  
리에 산/오늘도 젊은 피 불길을 뿜는다’

우리나라 해병들이 핏대를 올리며 밤낮으로 부르는 ‘도솔산가’입니다. 도솔천(兜率天)은 석가모니가 인간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머물던 곳으로, 현재는 미륵보살이 지상에 내려갈 때를 기다리며 머무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해병들은 도솔산이 상상의 산이려니 하며 저 군가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양구에서 열리는 ‘무적해병 전승 기념식’에 참석한 한 노해병은 “난 평생 도솔산이 바닷가 어딘줄 알았어.”라며 너털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돌산령에서 바라본 도솔산

양구에서 해안분지로 가는 길엔 ‘돌산령터널’이 뚫렸습니다. 터널 옆으로 옛 고갯길이 굽이굽이 돌산령 정상을 올라갑니다. 도솔산(兜率山)은 돌산령 정상에 뿌리를 박은 침탑처럼 150여 m나 높히 솟아있습니다. 밑변이 짧은 삼각형, 뾰족한 바위산입니다.

“저 산이 뭐길래, 저기서 죽기살기로 싸웠지?”

세계 전투사에 유래가 없는 한국전쟁 고지전은 그런 질문에 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는 그 고지전의 ‘발상지’이자, 9개의 고지전을 치른 고지전의 교과서, 그 보다는 고지전의 박물관입니다. 한국전쟁 고

지전의 절반이상이 양구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1951년 6월 4일 양구군 최남단 남면 광치령에서 도솔산 전투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28일 방산면 어은산 일대에서 9번째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를 끝냈습니다. 224일, 단 반년, 9번의 고지전에서 공산군 측 5만 4,411명, 국군을 포함한 UN군측 1만 2,184명, 무려 6만 6,584명이 희생됐습니다.

2019년 현재 양구군 인구는 2만 3,121명. 그 땅에 살아 있는 사람의 3배나 되는 사람, 그것도 꽃다운 청년들이 단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며 “벼 한포기, 배추 한포기 심을 수 없는 이 높고 험준한 산이 뭐길래 목숨과 바꿔야 하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참전한 UN군, 중국군들은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너무도 무심했던 고지전 얘기를 이제 다시 꺼내 봐야 합니다.

도솔산에 오르면 피아간 7만여 명이 목숨을 끊어논 9개의 고지전 현장이 북쪽을 향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도솔산에서 가칠봉까지는 8km가 넘는 긴 능선입니다. 능선이 밧줄이라면 고지는 매듭입니다. 해발 1,000m에 이르는 능선의 밧줄에 싸움터들이 매듭처럼 맺혀있습니다. 첫 번째 매듭 도솔산(1,148m), 두 번째 매듭 대우산(1,179m) 사이에는 왼쪽으로 983-940-773 고지 등 3개의 매듭이 달린 피의 능선이 펼쳐집니다. 가칠봉(1,242m)은 이 밧줄의 마지막, 남한의 북쪽 끝 매듭입니다.

저기서 북동쪽으로 날개를 퍼듯 1026, 924, 702, 660고지

등 편치볼 전투의 고지군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단장의 능선(894, 931, 851고지), 백석산(1,142m), 949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고지(1,090m)가 날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능선의 밧줄에 맺혀있는 고지의 매듭들의 펼쳐진 모습은 흡사 갑각류 동물 같습니다. 종군기자들이 저 밧줄과 매듭을 보았다면 작명의 도사들은 바닷가재를 연상해 '랍스타 능선(Lobster Ridge)'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고지전은 고지 하나를 점령하면, 좌우 고지의 전투와 보조를 맞추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선을 북상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히말리아의 알피니스트처럼 그 9좌의 봉우리들이 어렵게, 어렵게 때론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정복돼 갔습니다.

도솔산 전투(1951. 6. 4~6. 20)는 양구군 남면 광치령에서 대암산, 도솔산에 이르는 높고, 길고, 험준한 능선에서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이 험난한 산을 정복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었습니다. 해안분지 북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발판을 만들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북한군의 중요한 보급기지 해안분지를 뚫히 내려다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쪽으로 이어지는 양구~인제간 도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가 포기한 공격을 한국 해병이 성공시킨 것은 이 전투에서 대통령의 휘호를 받은 '무적해병'의 용맹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해병은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글로 죽 가당보른 큰큰헌 소냥이 나옵니다게. 그딴서 노단펜으로 돌아상 돌으멍갑서.”

그들은 대부분 제주출신이란 강점을 살려 제주방언을 동진 비밀 병기로 쓰는 바람에 북한군의 감청을 무력화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來鳳莊)에서 첫 휴전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공산군측은 10일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공산군 측의 회담 복귀를 압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엔군 측은 해안분지 서쪽 능선에서 양구군 동면 비아리 쪽으로 치우쳐 있는 고지를 주목했습니다. 멀리 북쪽으로 단장의 능선 사태리 계곡이 바라보이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고지였습니다. 도솔산 전투를 끝내고 단잠을 꿈꾸던 한국군 해병 1연대가 미2사단 그리고 네덜란드군과 함께 재투입됐습니다.

대우산 전투(1951. 7. 8~7. 31)는 그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 유엔군은 주요 쟁점 타결 수단으로 고지전을 활용했습니다. 공산군은 유리한 휴전조건 강요 목적으로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결국 판문점에서는 설전(舌戰), 전선에서는 고지쟁탈의 혈전이 전개됐습니다. 대우산은 휴전회담 전투의 첫 총성이 울린 고지입니다.

대우산에서 내려다보면 양구군 동면 월운리 잘록한 고개로 금강산 가는 31번 국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낮은 고개가 비둘기 목처럼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비둘기 고개입니다. 그 이름이 변해서 비독고개가 됐습니다. 거기가 비둘기의 목이라면 도솔산 쪽으로 펼쳐진 능선은 비둘기의 오른쪽 날개입니다. 반대편 983, 940, 773 고지 연봉은 왼쪽 날개입니다.

대우산 전투로 압박했는데도 공산군은 판문점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장마가 끝나자 국군 제5사단 38연대와 미

2사단은 비둘기 왼쪽 날개를 강타했습니다. 고지명은 지명이나 사람 이름 등을 따다 은유적으로 붙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날개의 전투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피의 능선(Bloody Ridge)’. 피의 능선전투(1951, 8. 18~9. 7)는 하루 최대 3만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9일간의 전투는 국군과 미군 4,000여 명, 북한군 1만 5,000여 명, 피아간 1만9천여 명, 하루 1,000명씩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의 능선’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감독 강제규)에서 나오는 마지막 전투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영화는 폐허 고지에 ‘피아의 구분 없는’ 이름 모를 못 생명들의 쓰러진 모습을 클로즈업했지만, 사실 리얼리티는 영화보다 더 참혹했을 것 이란 짐작입니다.

피의 능선 전투의 압박 효과 때문인지 8월 들어 휴전회담이 재개됐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유리하게 확보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그건 공산군 측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고지전은 휴전선을 어떻게 금 그을 것이냐를 놓고 땅뺏기 전쟁이 되었습니다. 유엔군은 도솔산 대우산을 점령함으로써 해안분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분지내의 북한군 동태를 낚날이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해안분지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분지 북쪽 능선에서 버티고 있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편치불 전투(1951. 8. 30~9. 20)는 이같은 필요에 따라 미해병대1사단과 한국군 해병대 1연대가 해안분지 북쪽 능선의 고지군을 공격한 전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안분지 서쪽 주봉 가칠봉, 단장의 능선, 백석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선

은 이제 양구 서쪽 끝 북한강에서 동쪽 끝 해안분지에 이르는 같은 위도 위에 형성됐습니다.

아직 해안분지 북쪽 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치볼 전투는 끝나지 않았는데, 분지 서북쪽 능선의 주봉에서는 가칠봉 전투(1951. 9. 4~10. 14)가 시작됐습니다. 가칠봉은 해안분지 서북쪽 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한국군 5사단은 가파른 고지로 올라가며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적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항공지원은 물론 포병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국군은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편치볼 전투, 가칠봉 전투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자 피의 능선 정면에서 북쪽을 향해 고구마처럼 높게, 길게 그리고 넓게 엮드려 있는 894, 931, 851 고지 능선을 주목했습니다. 고구마 능선은 서쪽 백석산과 동쪽 가칠봉 사이에 썩기처럼 남쪽을 향해 박혀있는 돌출부였습니다. 미 2사단은 일주일 전인 9월 7일 피의 능선 전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는 프랑스 대대 및 네덜란드 연대와 함께 단장의 능선 전투(1951. 9. 13~10. 13)에 돌입합니다.

북한군 제6, 12, 13사단은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고지에는 북한군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에 프랑스군, 네덜란드군이 있었던 것처럼, 공산군측에서도 중국군 제68군 제204사단이 있었습니다. 피아간 피의 능선 전투보다 더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유엔군 3,700명, 공산군 2만 1,000명이 희생됐습

니다. '단장(斷腸)의 능선(Heart Break Ridgeline)'이라는 처절한 표현이 그때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1951년 9월 양구는 전투 시즌입니다. 한국군 제5사단은 동쪽 가칠봉에서, 미 제2사단은 단장의 능선에서 그리고 한국군 제7사단과 8사단은 백석산 전투(1951. 9. 24~1951. 10. 1)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석산(1,142m)에서 북한군 12사단과 32사단을 격퇴함으로써 양구~문동리를 잇는 현 31번 국도를 장악할 수 있었으며, 가칠봉, 단장의 능선과 잇는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휴전선을 현재의 상태로 복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949고지 전투(1951. 11. 17)는 백석산 서쪽에 형성된 전선을 949고지까지 밀어올리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 제9군단 한국군 6사단, 미 제 10군단과 국군 8사단은 북한강 연안에 주둔했던 중공군 제68군 201사단, 204사단을 어은산 북쪽으로 후퇴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1951. 12. 25~12. 28)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현 휴전선은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1951년 11월 27일 판문점 휴전회담에서는 당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휴전이 성립되면 이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기로 한 조건부 휴전이 합의됐습니다. 중국군이 이 조건부 평화의 리듬을 깨버렸습니다.

양구 문동리 계곡 서쪽 어은산(1,250) 남쪽 고지군 중 하나인 1150고지를 한국군 7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오후 6시는 이미 해가 저물었을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

넉, 중국군은 이 무명고지를 판문점 합의를 무시하고 기습 공격합니다. 4일간 수차례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그나마 휴전선이 현재의 모양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투의 값진 선물입니다. 양구의 9개 고지전. 이들 전투가 양구를 공산치하에서 건져냈습니다.

## 2 두타연 계곡의 '전쟁의 기억'

'단장의 능선'은 고개모양이 비둘기목을 닮았다는 비득고개 넘어 사태리에 남북으로 뻗어있는 능선입니다. 옛 '금강산 가는 길'이 이 능선을 가운데 두고 사태리 쪽과 문동리 쪽, 두 갈래로 쪼개졌다가 이 산줄기가 끝나는 청송리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사이에 길이 18 km, 폭 4km, 931, 894, 815 등의 고지등 표고 800~1,000m에 이르는 산 덩어리가 남북으로 걸터 앉아있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겨 살집이 두꺼울 것 같지만 사실은 바위산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날카로운 능선입니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지금도 산양이 바위타기를 하는 험준한 돌산전투였습니다. 전쟁사에 많은 기록을 남긴 전투였습니다. 헬리콥터작전이 사상 처음 시도됐으며, 22만 9,724발에 달하는 포사격지원, 항공기 출력 842회, 폭탄투하 250톤. 마지막 날에는 수류탄과 화염방사까지 동원한 육탄전으로 최종목표인 851고지와 931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으면 장이 끊어진다고 했겠습니까? 종군기자 스탠 카터(Stan Carter)는 한 대대 구호소에서 앓던 부상병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단장(斷腸)의 능선(Heart Break Ridgeline)은 그렇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린 병사의 절규를 되새기며 여전히 “고지전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기억을 재생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이 능선의 이야기가 다 지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워서는 안됩니다.

#### · 풍포트 중대의 ‘최후의 한 발’

미 제2사단 23연대 피터·풍포트 중대는 이 전투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며 해질 무렵 목표지점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탄막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탄환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풍포트 대위는 피로 점령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포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주변을 철통같이 엄호하라!”

사단장의 명령으로 밤새도록 그들의 주변으로 포탄의 벽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대가 고지에 올랐을 때 풍포트 대위는 탄환하나 없는 기관총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모든 병사들의 탄띠나 소총에는 단 한 발도 남은 탄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마지막 탄환을 발사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 · 주검으로 옛 전장에 돌아온 노병

옛 전장으로 죽어서 돌아온 프랑스 병사의 영웅담도 있습니다. 미 제2사단 23연대에는 프랑스군 대대가 배속돼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한국전에 3,400여 명이 참전하였습니다. 전사 269, 부상 1,350, 포로 12, 실종 7명이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던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만 260명의 부상자와 60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투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10월 파리 개신문에서 ‘단장의 능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제복을 입습니다. 군악대의 정식 의전 후에는 참전용사들과의 대화 시간도 갖습니다.

2007년 9월 22일, 단장의 능선에서는 개신문 ‘단장의 능선 행사’에 참가하던 한 프랑스 노병에 대한 이색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故 모리스 나바르(Maurice Navarre). 그는 중공군의 3차 공세와 1.4후퇴에 이어 4차 공세가 한창이던 1951년 2월에 일등병으로 참전합니다.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의 대원으로 단장의 능선 전투에 참전합니다.

1951년 10월 12일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밤 10시경 그는 야간공격 중 적의 마지막 저항선 851고지에서 가슴에 유탄 파편을 맞았습니다. 1952년 2월 프랑스로 귀국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953년 3월 한국전에 다시 참전합니다. 그는 1953년 10월에 하사로 진급해 귀국합니다.

그는 전투를 스포츠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1954년 5월 인도차이나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장의 능선 전투를 잊지 못했습니다. 2004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골을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한국의 격전지 931고지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프랑스 참전 기념비’ 제막행사와 함께 유골을 바람에 날리는 풍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유골로 돌아온 그는 부인의 가슴에 안겨 단장의 능선에 올랐습니다. 한 나폴레옹의 후예가 그렇게 단장의 능선에 묻힌 것입니다.

#### · 두타연의 켄터키식 벽난로

그 ‘금강산 가는 길’가에 폐허 하나가 숲 속에 묻혀있습니다. 두타연 옆 전물장병 추모비가 서있는 별판 한 귀퉁이 지뢰밭속입니다. 물체는 여름내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풀들이 힘이 잃는 가을이면 뻑뻑이 우거진 나뭇가지 틈새로 검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커먼 사각형 입과 굴뚝같은 뿔을 단 이 물체는 신비롭기까지 했다. 빨간 역삼각형 지뢰표지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마 DMZ 병사들은 더러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비득고개 너머 검문소로 누가 면회를 왔거나, 휴가 특명을 받아 집으로 갈 때, 전역 특명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골짜기를 영원히 벗어날 때도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의 기억 속에는 병풍

처럼 둘러싼 절벽 꼭대기 늪은 소나무위로 천연기념물 제243호 검독수리 한 마리가 떴었습니다. 거기는 결코 썩 마음 내키는 곳은 아닙니다.

1994년 여름 민통선북방지역 자연자원 조사가 ‘금강산 가는 길’의 두타연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한 학자 한 사람이 정체가 불명확한 그 물체를 ‘켄터키 벽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이 커다란 것이 특징인 켈터키식 벽난로와 아주 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군은 전쟁 중에도 견고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할 만큼 한껏 여유를 부린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군인들에는 더러 그 일대를 ‘미군 막사 터’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벽난로라는 주장은 개연성이 있어보였습니다.

그 구조물이 ‘켄터키식 벽난로’로 입증됐을 뿐 아니라 ‘버스비 벽난로’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 것은 페렌바크(T. R. Fehrenbach)가 지은 ‘어떤 전쟁(This Kind of War)’의 한 줄짜리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장의 능선 후면의 계곡에는 버스비 중대의 월동을 하기 위한 아담한 병커들이 세워져 있었다.”

미 제2사단은 창자를 끊어내는 희생의 대가로 이 산 덩어리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해 10월 25일 2사단은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이 능선을 철수했습니다. 그 뒷자리를 미 7사단이 인수받았습니다. 부대는 가을 내내 ‘전투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진격도 후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따금 정찰전을 벌이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버스비 중대는 7사단 32연대 1대대 ‘아더.

## B. 버스비'대위가 통솔하던 부대.

흑갈색 눈에 얽은 검은 색 머리칼을 한 동부 텍사스 발음의 중대장은 광고업 지배인을 하다 전쟁에 동원된 38세의 사나이였습니다. 그해 12월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특별휴가를 얻어 귀국할 때까지 버스비는 단장의 능선 후사면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월동용 막사가 지어졌을 것입니다. 켄터키 식이든, 버스비의 고향 텍사스 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난로를 빨리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구조물은 그때의 미군용 벽난로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난장의 능선 후사면 두타연 일대를 천연의 자연이 있는 곳이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전적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단장의 능선 전투의 유일한 증인 '버스비 벽난로'를 전쟁 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 3 그 깊은 골짜기 숨어있던 문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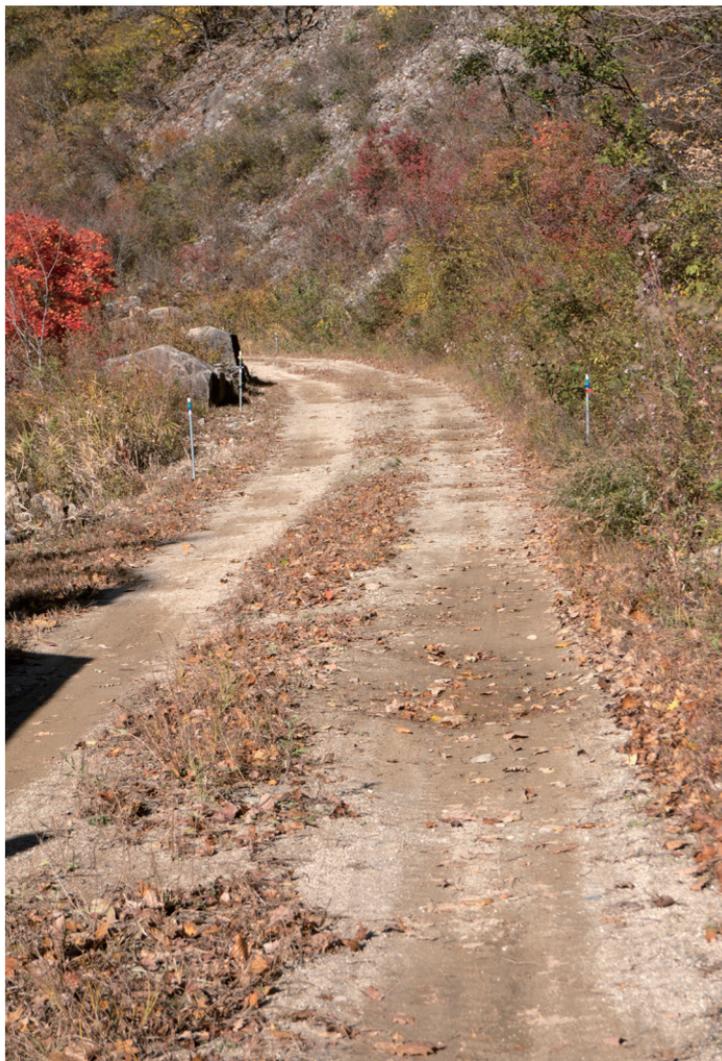
그 높은 고지에서 왜 싸웠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단장의 능선 깊은 골짜기에 금강산 가는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문등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등리에 동양에서 제일 큰 형석광이 있었습니다. 고지전은 그 보물들을 캐내기 위한 '노다지 전쟁'이었을지 모릅니다.

비둘기목처럼 부드러워 비득고개. 그러나 현실은 고개 이름

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민간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는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31번 국도입니다. 우마차 길만 한 좁은 길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아리(比雅里)를 지나 산사태가 많이 났다는 사태리(沙汰里) 드렛골 삼거리에서 끝납니다. 31번국도 단절 팻말이 그곳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직도 금강산을 향해 더 갈 수 있습니다. 드렛골에서 단장의 능선 서쪽 골짜기로 들어가 두타연, 건솔리(乾率里), 안건배를 지나 수입천을 가로지르는 철책선에서 끝납니다. 끊길 듯 이어지다 결국 끊기고 마는 ‘내금강 가는 길’입니다. 멀리 수풀 넘어 누워있는 북쪽 벌판은 옛 문동리(文登里)입니다. 문동리 뒷편의 검은 산은 청송령(靑松嶺). 그 고개를 넘으면 회양군(淮陽郡) 내금강면(內金剛面) 발휘리(末輝里), 금강산입니다.

31번국도는 부산에서 신고산 타령으로 유명한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까지 가는 총연장 75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1938년 일제는 이 가운데 양구를 기점으로 한전리(閑田里), 도사리(都沙里), 지석리(支石里), 비득고개, 비아리, 사태리, 문동리, 청송령, 회양군 내금강면 발휘리에 이르는 총길이 76km의 길을 냈습니다. 이보다 늦게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松峴里)에서 문동리까지 수입천을 따라 16km의 도로가 또 뚫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구에서 금강산 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생겼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은 애당초 관광 목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문동리 계곡에 매장돼 있는 형석(螢石 fluorite)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형석은 제철, 제동의 용해원료, 법랑이나 광



사태리에서 끊어진 금강산 가는 길

학기기, 심지어 ‘불소치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광물입니다. 그러나 이 돌맹이의 진가는 가열하면 반딧불처럼 인광을 내며 튀어 오르는 폭발성입니다. 폭탄의 원료인 것입니다. 일제는 금강산 관광루트가 아닌 ‘노다지’ 루트를 개설한 것입니다.

양구군지(楊口郡誌)에 따르면 문등리 형석광은 1929년 서울 ‘문등광업주식회사’가 광구등록을 했으나 10여 년 동안은 방치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은 형석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문등리에는 채광용 자가발전소가 생겼으며, 광산인부가 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940년엔 이들 광부들의 수요에 따라 문등사설우체국이 등장했습니다. 문등리는 옛날에도 큰 마을이었습니다. 영조 35년에 이른다섯 가구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때는 2,7일장이 서고 보통학교가 있었으며 일본어 교습소까지 있었던 전기불이 들어오는 도시였습니다.

말휘는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이어지는 금강산전기철도의 29번째 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철도의 시발점 철원에서는 경원선이 원산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석의 원석 더미는 말휘로 수송됐으며, 철원, 원산을 거쳐 일본으로 옮겨졌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은 단장의 능선 밑에 쳐 박힌 채 숨어있는 그 옛날 ‘플로라이트 로드’인 것입니다. 이 루트는 일본이 떠나간 후에도 활용됐습니다. 일본은 문등리에 산더미처럼 원석을 쌓아 놓은 채 패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구 소련은 이 루트를 통해 형석을 실어갔습니다. 한국전쟁 후 문등리는 DMZ 속에 갇혀 버렸습니

다. 형석광산도 남북한 누구의 소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공공롭게 광구 하나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노다지'의 꿈을 끈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광구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버럭 더미를 생각해 냈던 모양입니다.

1970년 이 원석 버럭이 단 2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옮겨져 잘려나간 반쪽 '플로라이트 루트'를 통해 실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다지 사업은 소문 없이 끝났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들먹이며 강력히 항의했다는 무성 한 소문이 그 노다지의 꿈을 접게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정말 형석불빛을 닮은 반딧불처럼 피어오르다 사라진 문등리 역사입니다.

문등리 앞으로는 청송령에서 발원해 파로호에서 서천(西川)을 만나 북한강으로 흐르는 길이 34.8km의 수입천(水入川)이 흐릅니다. 1965년 수입천 변 고방산리(古方山里), 송현리, 장평리, 금악리, 오미리 등 강마을 전역에 전깃불이 밝혀졌습니다. 군청소재지 양구읍이 화천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불을 밝힌 1967년보다 2년이나 앞섰습니다. 장평리 직연폭포에 소수력발전소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 강마을의 '눈부신 개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강마을 사람들은 전깃불로 불야성을 이루던 문등리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장평리 정석중(鄭錫仲) 방산면장이 직연폭포에 자력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한

때 문등리 형석광산의 전기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면소재지인 현리와 장평리 사람들이 전깃불을 밝혔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신식 정미소 하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 발전소는 사라졌습니다. 20년 후, 바로 그 자리에 강원도가 쌀 3천 가마 값을 들여 발전소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1971년 방산면 전역에 양질의 전기가 공급되면서 이 발전소도 폐쇄됐습니다.

#### 4 수입천 ‘카올린 로드’, ‘머스크 로드’

양구 방산 백석산 전투는 1951년 9월 24일부터 딱 1주일 간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석산을 찾지 못했다면 31번국도를 찾지 못했고, 그 국도를 찾지 못했다면 문등리 형석광산으로 향하는 ‘플로라이트 로드’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또 다른 길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옛날 한양에서는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수리에서 북한강으로 들어서면 가평, 춘천을 지나 화천에 이릅니다. 소금배가 닿던 방구매 나루에서 북한강 원 줄기를 버리고 수입천으로 들어서면 방산, 여기서 금강산은 걸어서 하룻길입니다. 이 금강산 가는 길은 역으로 양구 방산 백토, 고령토(Kaolin)가 실려 가던 ‘카올린 로드 (Kaolin Road)’입니다.

1994년 4월 28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한국산 ‘모란 무늬청화백자접시’ 한 점이 도자기 경매사상 최고가인 308만 달러(당시 24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청화백자, 그 조선백

자는 조선시대 사옹원(司饔院)이 관영 사기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으로 운영하던 경기도 광주분원에서만 생산하던 것입니다. 광주분원의 백토는 ‘카올린 로드’를 따라 실려 오던 방산의 그 백토입니다. ‘흰 돌산’ 백석산 옹기 흙인 것입니다.

방산 백토는 그 옛날 화천, 흥천, 인제, 저 멀리 횡성 사람까지 동원해 경기도 광주 분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조선 영조실록에는 ‘광주분원에서 사용할 백토를 백성이 부역으로 강원도 양구에서 캐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방산백토의 수송기록이 더 자세합니다.

“방산 물토(白土)는 연간 550석이 봄, 가을 북한강 유역의 고을 백성의 부역으로 운반됐다. 백토 생산지인 양구는 할당량이 없었다. 대신 화천 110석, 춘천 220석, 흥천 120석, 인제 60석으로 운송 책임량이 매겨졌다.”

방구매 나루는 북한강과 방산 수입천, 양구 서천이 만나는 북한강 상류 마지막 나루. 마포 나루에서 소금배가 올라오던 마지막 하항(河港)입니다. 백토는 겨우내 등짐이나 달구지에 실려 방구매 나루로 옮겨져 춘삼월 북한강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새 봄 첫 돛배 ‘갯떼기’배가 뜰 때 백토가 실려 졌습니다. 첫 뗏목에도 실렸을 것입니다.

백토 뗏목은 북한강을 따라 화천, 춘천, 가평, 청평을 지나 양수리에 이르면 이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경안천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물길이 금사리(金沙里) 광주분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토는 궁중 그릇으로 빚어져 궁궐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왕실용 옹기 흙이 양구 백석산에 묻혀있었던 것입

니다. 조선시대 양구 방산은 한양과 그렇게 ‘카울린 로드’를 내었습니다. 방산은 은밀히 왕실과 핫라인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 개연성을 증명할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2년 10월 6일 그 해 가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강원도청 산업과에서는 회양군청 직원 그리고 내금강면 24개 리에서 차출된 주민들과 합동으로 금강산에서 방화선 개착공사(땅 밑을 파 나감)를 하던 중 우연히 석함을 발견했습니다. 사발 4개, 향로 1개, 은제 사리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백자에 씌어있는 여러 글귀 가운데 대명홍무 24년 신미 4월 일 방산사기장 심의(?) 동발원 비구신관(大明洪武 二十四年辛未 四月日 方山砂器匠沈意(?)同發願比丘信寬)이란 글이 단서가 됐습니다.

고려 말의 무신 이성계는 장차 왕이 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양구 방산에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그것을 몰래 강원도 금강산에 묻었습니다. 금강산 비로봉에서 보면 저쪽에 뜨는 달이 마치 이 봉우리 끝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는 월출봉 기슭입니다. 홍무 24년(1391)은 조선 태조의 건국(1392년) 바로 전 해이고 백자를 만든 사람은 심씨 성을 가진 도공입니다. 발원구는 제작연대가 분명하고 제작자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런 프로필을 갖추고 있는 고려백자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DMZ연구팀’은 사기장 심의(沈意)를 ‘심용(沈龍)’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조선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전리랑장 심용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함께 발굴된 사리기에 기록된 박자청도 증랑장으로 개국공신으로 추서된 것을 보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교수

신문(2018년 5월 14일자)에 밝힌 대목입니다.

그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그는 1388년 고려의 요동출정 당시 曹敏修의 휘하에서 李成桂의 위화도 회군을 도왔던 沈德符의 아버지이다. 또한 심덕부는 태조의 부마 沈淙과 세종의 국구 沈溫의 아버지다. 개국 한 해 전 이성계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사리구에 이름을 올린 심용과 그 3년 전 위화도 회군의 중추 중 한 명이었던 심덕부의 아버지 심용. 분명한 것은 심용이 방산면의 자기장으로, 1391년 이성계가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드린 佛事의 백자 사리구를 만들고 같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고려 말 이미 방산면에서 백자와 백토를 생산했고, 백자를 만들었던 자기장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대로라면 양구 방산은 조선 건국 때도 이미 왕실과 핫라인이 형성된 셈입니다. 옛 사람들은 ‘카올린 로드’를 개척하다 ‘금강산 가는 길’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구한말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쓴 영국 여행가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 북한강을 따라 금강산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수리에서 북한강으로 진입해 춘천, 화천을 거쳐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뱃머리를 되돌렸습니다. 그녀는 방구매 나루를 찾다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수입천의 ‘카올린 로드’에 금강산 가는 길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카올린 로드’로 수입천을 거슬러 올라가 ‘플로라이트 로드’를 따라 갔다면, 강을 따라 금강산으로 간 최초의 여행기를

남겼을 것입니다.

‘흰 돌산’ 백석산 그리고 ‘흰 바위산’ 백암산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명희는 그의 시 ‘비목’에서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라며 그곳에 사향노루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960년 대 초입니다. 그후 그 일대에서 사향노루 그 궁노루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선 세종실록에도 ‘사향은 국산이 아니요 희귀한 것이기에 약으로 쓴다는 핑계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교지가 실려있습니다.

사향이 왜 국산이 없었겠습니까? 그 만큼 귀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환경부는 최근 그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타구니 달고 사는 사향 노루가 그곳에서 다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귀하신 몸의 안전을 위해 서식 위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흰 돌산이든 흰 바위산이든 북한강 골짜기는 사향노루의 산지입니다.

궁노루 울다 지친 가곡 비목의 그 골짜기가 숨겨둔 사향의 산지였다면 그 미약은 어디로 공급됐겠습니까? 옛말에 사향당상(麝香堂上)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향은 희귀한 사랑의 묘약이어서 이를 대감의 첩에게 은밀히 바쳐서 얻은 당상 벼슬이란 뜻으로 효과적인 뇌물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먹에 사향을 섞은 사향떡, 그 사향떡으로 그린 사군자도 효과적인 뇌물이 되었습니다. 방안에 걸어 두면 그 향이 그윽했을 겁니다. 얼굴은 별로인데도 손님을 남달리 끄는 기생을 두고 ‘사향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미약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양 한복

판 부자 동네로 갔을 겁니다. 사향먹으로 그린 사군자에서도 향기 난다면 사향 한 덩어리를 툭 떼어 품에 품고 가는 이에게서는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단위 무게 당 가장 비싼 물질 중 하나입니다. 사향을 품에 끼고 한양 천리를 간다면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게 뻔합니다.

마침 한양까지 '카올린 로드'가 뚫려 있었습니다. 백토 더미에 풀 찢러놓기만 하면 궁궐까지 이보다 안전한 수송방법은 없을 겁니다. '카올린 로드'는 덤으로 '사향(麝香)의 길', '머스크 로드(Musk Road)'를 냈습니다. '카올린 로드'는 한때 단절될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조선 숙종 35년이었던 1709년, 백토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토를 캐어다 배나 뗏목이 뜰 수 있는 나무까지 쳐 날라야 하는 것이 백성들에겐 보통 노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그릇 제작소 사용원에서는 유독 방산백토를 고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때에는 두 번이나 백성들의 불평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백토는 포장이고 사향이 알맹이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 5 '윤석 구덩이'가 익혀낸 편치불 문화

고지전의 서막이었던 양구 도솔산 전투는 그 뾰족한 삼각봉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산군은 커다란 뒤옹박처럼 생긴 분지를 병참기지로 삼고 끊임없이 물자와 병력을 전선으로 공급했습니다. 더욱이 돌산령을 넘어



겨울 해안분지

해안분지를 관통한 후 인제 또는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공산군에게는 생명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해병이 도솔산을 점령함으로써 해안분지의 전략적 가치는 유엔군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정작 해안분지의 가치는 그런 전략적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1987년 원종관 교수 등의 현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안분지의 평면상 형태는 장경 11.95km(남북), 단경 6.6km(동서)의 감자 모양으로 면적은 57.50km<sup>2</sup>. 분지 중앙부의 고도는 410m, 주변 최고봉 대암산은 1,304m로 최대 고도차는 894m’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 지질학회지 3권 1호(1967년)에 실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지 서부의 가칠봉(加七峰 1,242m) 대우산(大愚山 1,179m) 및 도솔산(兜率山 1,148m) 대암산(大岩山 1,304m)의 능선과 동부의 달산령(807.4m), 먼뎡재 등의 산릉으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길쭉한 장방형. 그 범위는 「38° 15′ ~38° 20′ N, 128° 15′ ~128° 10′ E」이다.’

속 깊은 사발? 그 보다는 꼭지를 잘라내고 속을 판 뒤옹박이 더 리얼합니다. 바로 위 능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중군기자는 이 분지를 내려다보고 화채그릇처럼 생겼다고 ‘펀치볼(Punch Bowl)’라고 했습니다. 분지 속에서 돌도끼, 빗살무늬토기 등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에도 인간이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파충류가 파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고려 때 지명이 ‘변화(蟠花)’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해안(海安)’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바다만한 호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뱀이 들끓어 한 고승의 충고대로 바다 ‘해(海)’를 뱀과 상극인 돼지 ‘해(亥)’로 바꿔 ‘해안(亥安)’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亥)’는 깊은 연못으로도 풀이 됩니다. 한때 연못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1981년. 그해는 해안분지가 변화, 해안, 펀치볼에서 운석분지(隕石盆地)로 다시 태어나던 해입니다. 11월 22일. 분지의 아침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그 아침 해안분지의 소식이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 한국일보 사회면 톱기사는 ‘6.25격전지 양구 해안분지 「펀치·볼」세계 최대 운석분지 판명’라는 제목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문

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펀치볼(Punch Bowl)로 널리 알려진 6.25격전지 해안분지(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가 1천만년 전 거대한 별뿔이 떨어져 생긴 세계최대의 운석구덩이(隕石盆地)로 밝혀졌다. 강원 양구 동북쪽 20km, 휴전선 바로 남쪽 민통선 안에 자리잡은 이 분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운석 구덩이일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 애리조나 운석 구덩이(직경 1.2km, 깊이 130m) 보다 7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한국과학기술원 이병호(李炳昊)박사팀의 「펀치볼은 운석분지」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는데, 이 박사팀은 이 논문에서 해안분지는 ▲주변의 경사와 주위 윤곽이 구면(球面)대칭을 이루고 있고 ▲운석의 주석분인 철과 니켈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3,4배 많은데다 ▲분지의 바깥쪽 가장자리 경사면이 화산분지와 전혀 다른 울퉁불퉁한 형태의 험한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지형은 물론 지질학적 구성이 운석구덩이의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운석구덩이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사팀은 또 이 지역의 우물물에 많은 양의 철분이 녹아있어 끓이면 빨간 색깔로 변하고 개천에는 철분 투성이 검은 모래가 해안분지를 기점으로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지의 북쪽에 자리 잡은 해발 1,242m의 가칠봉(加七峰) 산허리에서 조개 껍질과 배 조각 등이 발견돼 해안분지가 오래 전에 널따란 호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난 10월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E·J·외피크 박사(미 아르마천문대)의 이론에 따라 해안분지가 직경 188m, 무게 2억4천700만 톤짜리의 거대한 운석이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하늘로부터 음속의 2백배에 달하는 초속 66.5km로 떨어져 직경 8km, 깊이 810m의 운석구덩이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또 운석이 떨어진 햇수는 대략 1천만 년 전쯤이 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연세대 천문학과 나일성(羅逸星)교수의 코멘트도 실려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 지구표면엔 크고 작은 많은 수의 운석이 떨어져 도처에 운석구덩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이들은 풍화작용에 의해 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깨끗한 형태로 남아 있는 직경 8km 정도 큰 규모의 운석구덩이가 보존되어 있다면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분지의 사람들은 상기됐습니다. 그때 75세이던 김희준(金希濬)씨는 일제시대 해안면장을 지낸 해안분지의 유지였습니다.

“해안(亥安)의 ‘해(亥)’는 깊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운석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몰라도 여기가 깊은 연못이었다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는 도솔산(兜率山)이란 예사롭지 않은 이름도 백두산 천지처럼 깊고 넓은 산정호수 위에 솟은 그 영험한 모습에서 유래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해방 전 가칠봉 여기저기서 조개 껍질이 발견되고, 돛대나 닻줄 감는 말뚝, 배 조각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독 지질학자들만 냉정했습니다. 1985년 7월 강원대 지질학과 원종관(元鍾寬), 이문원(李文遠) 교수가 해안분지로 들어가기 위해 먼뫼재를 올라갔습니다. 먼뫼재는 해발 700m의 분지의 동쪽 가장 자리 능선입니다. 두 학자는 그 고개에서 분지를 내려다보며, “운석구덩이 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별뫼이 지구에 충돌할 때 생기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운석구덩이는 어디나 땅이 불탄 흔적이나 깎여 나간 자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지 안쪽 벽이 마치 물에 씻겨나간 것처럼 생긴 대목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은 차별침식 분지를 구별하는 가장 고전적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가칠봉까지 올라갔다 돌아 온 두 학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석구덩이의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안분지는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편마암과 가운데의 화강암간의 차별적 풍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 차별침식 분지입니다.”

1987년 6월 자연보호중앙협의회회의 ‘민통선 북방지역 자원조사단’이 해안분지를 다녀갔습니다. 지질, 지리, 토양을 연구하는 7명의 학자가 해안분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도 ‘해안분지는 운석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만 분지를 깎아 내린 토양이 분지 동쪽에 쌓이면서 댐 역할을 하는 바

람에 과거 거대한 연못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병호 교수도 자신의 이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90년 4월 16일 자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해안분지는 '떨어진 별똥자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운석구덩이 설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분지가 호수였을 것으로 전제, 그 안에 빗물이 괴고 증발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즉, 중부지방 강우량과 증발량의 차가 1년에 83.2mm이므로 비가 와서 분지에 물이 다 차려면 1천500여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산을 깎는 하천작용(상대 삭박율 : 1,000에 45cm)에 따라 낮아진 가장자리로 빠져나가는 물은 한해에 2.3cm.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2만 2,000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안분지는 2만 3천8백여 년 전에 생성됐을 것으로 이 교수는 추정했습니다.

문제의 별똥별의 크기 미국 E.J.외피크 박사(아르마천문대)의 이론에 의하면 직경 213m, 무게 4,000만 톤. 이 거대한 별똥별이 음속의 200배인 초속 66.5km로 달려와 충돌하면서 해안분지의 땅덩어리를 파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분지를 차별침식 분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해안분지 생성에 관한 원인규명의 열쇠는 분지중앙의 구릉지대인 센트럴힐(Central Hill)에 있다. 풍화작용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해안분지가 만들어졌다면 부서지기 쉬운 마사층(磨砂層)이 센트럴힐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지역에 니켈, 철 성분이 많은 광물이 출토되는 것, 분지를 둘러싼 외곽선이 둥글다는 것,

풍화작용에 강한 편마암이 아닌 약한 마사 층이 센트럴 힐을 구성하고 있는 것, 단면의 요철이 심한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안분지는 운석분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분지의 ‘센트럴힐’은 해발 500m의 언덕, 해안분지 한 가운데의 낮은 산을 말합니다. 지명이 ‘자월(子月)’이란 점도 흥미롭습니다. 혹시, 센트럴힐 땅속에 묻여있을 직경 213m의 별뿔별을 지칭하는 ‘달의 자식’이란 뜻인지 모릅니다.

양구에서 해안분지로 가는 길은 이제 해발 890m나 되는 돌산령을 넘지 않습니다. 팔랑리에서 2,995m의 돌산령터널을 빠져나가면 바로 해안분지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였다.’라고 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첫 문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깊은 산속에 이렇게 큰 별판이 전개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구군은 해안분지의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돌산령의 긴 터널을 지나자 무릉도원이였다’란 문장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4월 해안분지는 온통 살구꽃 나라입니다. 거긴 우리나라 인삼재배의 본산이고, 씨레기 생산의 본산입니다. 농장일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샷을 주는 풍습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자마을입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슬로건을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살구꽃 피는 무릉도원인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후 5,6년 동안 이 분지에는 민간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 기간을 거쳐 1956년 4월 25일 160가구 965명

의 민간인이 첫 입주를 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단 9%, 43가구가 전쟁 전에도 해안분지에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춘천, 홍천, 인제 그리고 경기도, 경상도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투와 풍습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다듬어 지고 동화되며 해안식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해안분지 477가구 2,000여 명의 주민은 한국판 다문화 사회, 멜팅 팻(Melting Pot)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편치는 각종과일을 섞어 만든 우리의 화채같은 음료입니다. 해안분지를 화채그릇, 편치볼이라고 명명한 것은 참 탁월한 센스였습니다.

# 6

## DMZ 자연 제 갈길을 가다

### 1 돼지열병 그리고 DMZ 바이러스 2제

2019년 민통선의 가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DMZ와 민통선을 따라가며 번졌습니다. 이 병은 9월 16일 파주 양돈 농가에서 첫 발생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DMZ 멧돼지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급기야 DMZ 일대의 멧돼지들을 발견되는 대로 사살하거나 포획해 처리하는 대대적인 ‘멧돼지 제거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사실상 멧돼지는 최전방 군인들과 께찮은 사이의 친구였습니다. 병사들은 잔밥을 멧돼지 먹이로 주고, 멧돼지들은 병사들에게 리얼 ‘동물의 왕국’을 선사해왔습니다. 저격해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멧돼지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천국이라고 하던 DMZ 자연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살육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연의 천국’ ‘청정 지대’... DMZ 자연에 붙여지던 그런 수사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돼지열병 추세로 보면 DMZ는 바이러스 오염지대, 백신조차 없는 괴질이 창궐하는 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DMZ의 바이러스 공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는 야생동물들이 광견병을 퍼뜨려 민통선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보다 더 오래전인 한국전쟁 동안엔 들쥐 떼가 유행성출혈열을 퍼뜨려 많은 군인들이 희생됐습니다. 무엇보다 모기떼가 옮기는 DMZ 말라리아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 · 등줄쥐가 정복한 DMZ

등줄쥐(Apodemus agrarius), 담배 2갑 무게인 몸무게 200g의 작은 쥐. 등에 흰줄이 있는 쥐, 그러나 보통 들쥐, 한국의 대표 쥐입니다. 한탄강 유역에 9종의 들쥐가 서식하지만 이 가운데 85%가 그들입니다. 그 쥐의 단정치 못한 화장법, 배설법이 문제입니다. 등줄쥐는 화장을 좋아합니다. 외출 중에도 설 새 없이 앞발에 침을 발라 양증스런 모습으로 화장을 합니다. 앞다리를 잘근잘근 씹거나, 침 묻힌 발로 온 몸을 마사지하기도 합니다. 작은 체구의 이 쥐의 배설량은 정말 ‘쥐 오줌’만큼입니다. 그 작은 양의 오줌을 아무 데나 질금거립니다. 그러나 침으

로 얼굴을 닦는 지저분한 버릇이나, 방정치 못한 배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침과 오줌 속에 우글거리는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流行性 出血熱, epidemic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의 병원균, 한탄바이러스 그것이 문제입니다. 등줄쥐들이 아무데나 쏟아 놓는 바이러스가 공기에 섞여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은 독감과 비슷하게 전신 쇠약, 식욕부진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40℃가 넘는 고열과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은 두통, 가끔 위장출혈로 맹장염으로 오진되기까지 할 만큼 심한 복통, 그리고 눈, 코, 얼굴, 가슴에 출혈반점이 생기다가 신장이 파괴돼 소변이 나오지 않게 되며 자주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는 병입니다. 대개 1~2개 월 만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망률이 7%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에서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중 처음 환자가 발생해 어떤 해는 2,000명이 이 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꾸준히 발생해 대한의학협회지 1988년 6월 호에 따르면 1985년 697명, 1986년 706명, 1977년 701명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8년 가을 철원평야는 유행성 출혈열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DMZ의 군인들과 민통선 농민들은 등줄쥐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등줄쥐의 약 15%가 폐 속에 수억 마리씩 한탄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풀밭

이나 논, 밭은 등줄쥐의 터전입니다. 그곳은 군인들과 농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인과 농민은 그 병에 노출된 ‘위험군(危險群)’인셈입니다. 군인들에게는 ‘함부로 풀밭에 세탁물을 말리거나 눕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원군 보건소 직원들은 갈 건이에 나선 농민들에게 반드시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라”고 종용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에서는 개간된 농경지 밖의 풀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의 숲은 전쟁 때 매설된 지뢰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지뢰미확인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행성 출혈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을철엔 등줄쥐가 지뢰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DMZ에서는 총을 쏘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뢰와의 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국전쟁 중 미군들이 원인 모를 병을 앓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휴전회담은 2년 17일 동안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그 사이 미군은 전투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기치 않았던 전력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부전선 경기도 지역에서부터 괴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떨다가 갑자기 혈압이 툭 떨어지고 구토, 딸꾹질을 하다가 결국은 쇼크를 일으키며 사망하기도 하는 병이 삼시간에 번졌습니다.

증세는 1930년 대 소련 극동지방에서 나타났던 ‘신증후출혈열’이나 1940년 대 만주에서 발생한 송고열(songo fever)와 비

슷했습니다. 1951년부터 휴전까지 미군 3,200명이 이 병을 앓았으며, 그 중 70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학자들이 한국전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51년부터 15년간 4천만 달러를 쏟아 부으며 이병의 병원체를 찾았으나, 이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이 들쥐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사실외에는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교실 이호왕(李鎬汪)박사가 미국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이 병원균 연구에 착수했을 때 이 병은 이미 세계적으로 연간 20만 명이 감염되며 이 중 7%가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있었습니다. 의학계서는 유행성 출혈열을 말라리아, 간염과 더불어 세계 3대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의 연구도 6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의 폐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쥐의 모든 기관을 다 조사해보았지만 폐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병은 식욕부진 얼굴과 목에 출혈이 일어나고 신장이 파괴돼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세이기 때문에 폐에 원인균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했습니다. 두 달 만에 쥐의 폐조직속에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가 수억 마리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76년이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 발견!’

타임지는 세계 의학사상 대사건을 그런 제목으로 대서특필했

습니다. 실험용 등들쥐들은 한탄강 유역 경기도 동두천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라고 명명했습니다.

1979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의 혈청이 이 박사의 연구소로 배달됐습니다. 그 환자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으며 시골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행성출혈열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이 박사는 그 아파트 지하실에서 15마리의 쥐를 잡아 조사해 보았습니다. 4마리가 바이러스를, 6마리가 바이러스 감염 뒤 항체를 가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쥐에서는 자라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서울 쥐의 6%에 감염돼 있음을 추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서울바이러스(Seoul viru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발견해 한국 지명을 따 명명된 두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그 무렵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괴질이 발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병원체는 한탄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박사는 1982년부터 이 바이러스의 예방백신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989년 이 병의 진단방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예방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의 예방백신 한타박스(Hantavax)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 · 예방주사를 맞는 야생동물들

유행성 출혈열의 백신 한타박스(Hantavax)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DMZ는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방

주사를 맞은 민통선 농민들은 이제 그런 열병쯤은 걱정 없다는 표정으로 농사일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DMZ서는 또 다시 음산한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1993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1993년 10월 7일 강원도 가축위생연구소는 한 달 전 미쳐 날뛰다 죽은 김모씨가 기르던 수놈 발바리는 진성 광견병이었다고 병성(病性) 감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오지리는 몇 년 전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더 밀어 올리면서 민통선에서 해제된 마을입니다. 민통선 초소의 바리게이트가 치워진 오지4거리는 작은 먼소재지처럼 변화해졌습니다. 슈퍼마켓이 생겼고, 철원평야의 땅 부자들이 주 고객인 다방과 술집, 민통선 어린이들이 “왜 우리 동네는 없느냐”고 성화이던 피아노 학원도 들어섰습니다.

광견병(Rabies)은 개, 고양이 등 가축이나 애완동물에서 여우, 늑대, 노루, 고라니 등 야생동물 그리고 꿩, 올빼미, 박쥐같은 조류에 이르기까지 온혈동물이면 다 광견병 바이러스(Rabies Virus)를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185년 프랑스 세균학자 파스퇴르(Louis Pasteur)가 백신을 개발한 후 이미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일단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무서운 인수공통전염병의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7년 첫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매년 200~800건씩 발생하다가 차츰 줄어들어 1984년 단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미친 개’란 말은 옛날 얘기 속이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광견병은 잊혀진 병이었습니다. 하필 그 병이 막 민 통선으로부터 벗어난 오지리,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된 청정지역이라고 믿고 있던 그 마을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밤 김씨는 잠결에 발바리가 심하게 짚어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굉장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오소리 한 마리가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발바리도 상처를 입은 것 같았으나 의기양양했습니다. 내 솜씨가 어떠냐는 듯 꺾충꺾충 뛰며 김씨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오지리는 평야 한 가운데 있었지만 마을 뒤로 DMZ까지 연결된 낮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누구도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지리미확인 지대입니다. 역삼각형 빨간 지뢰 표시판이 붙어있는 그 산에는 야생동물이나 살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오소리가 간밤에 그 산에서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다 발바리에게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소리는 썩기처럼 생긴 땅딸막한 몸매인데다 네다리, 특히 앞다리는 바위를 들어내는 강한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밴텀급의 체격의 전형적인 인파이터입니다. 김씨의 개는 발이 짧아 발바리입니다. 그 발바리가 야성의 오소리를 잡아 놓혔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발바리의 용맹은 삼시간에 이 마을, 저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씨를 받겠다고, 암놈 발바리를 이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개가 그런데 우쭐해져 갑자기 버릇이 나빠질 리는 없습

니다. 그런데도 발바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느닷없이 제 나이와 같은 옆집 소년을 문 것입니다. 이어서 놀러 온 두 마리의 친구 발바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쏜 살 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그때 발바리의 광기 어린 파란 눈을 보았습니다.

발바리는 이틀 후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수의사들은 발바리가 광견병에 감염돼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오소리라 싸웠고, 그때 자신도 레비즈 바이러스를 옮겨 받았으며, 1개월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풀이했습니다.

광견병 소동이 잊혀진 채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94년 2월 12일 경기도 연천에서 광견병이 발생했습니다. 조심할 겨를도 없이 이튿날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서 그 병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인 15일, 광견병은 ‘진원지’인 철원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발 1,073m의 적근산과 1,074m의 대성산 등 연봉이 흘러가는 군인 아파트촌이었습니다.

군인 아파트촌에서는 이번에도 발바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전 9시, 2년 생 발바리는 9세 소년의 얼굴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이어 오후 1시와 2시 멀쩡히 걸어가던 군인가족 두 사람의 다리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발바리는 충을 들고 달려 온 군인들에게도 달려들었다가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개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광견병이 마지막으로 노출되는 최종 희생자일 뿐, 어느 동물이 개에게 끊임없이 그 병을

옮겨 놓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20일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서 미친개가 나타나 사람을 물었으며, 25일은 다시 문혜리에서 그런 개가 나타나 사람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26일은 동송읍 장흥리에서 30대 여자가, 27일은 동송읍 이평리에서 50대 여자와 그녀의 30대 아들이 자신들의 개에 당했습니다.

광견병은 DMZ를 따라 더 서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하며 그 해 2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은 소강상태였다가 1995년 6건, 1996년엔 5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중적인 방역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19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더니, 1998년엔 무려 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94년 이후 더 이상 사람은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2001년 초봄 DMZ 인근지역에 광견병 미끼 백신(Rabies bait vaccine)을 살포했습니다. 미끼 백신이란 동물들이 좋아하는 미끼에 예방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백신 성분을 넣어서 비행기로 산악지방에 뿌리거나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에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는 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성냥갑 크기의 미끼백신 1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봄눈이 녹기 전에 강원도 철원, 화천지역에 뿌렸습니다. 이는 DMZ 남쪽에 폭 10km의 방역대(防疫帶)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풍토병이 되다시피 한 광견병의 남하를 막자는 것입니다. 2001년 5월 미끼백신은 76%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소리일까? 아니면 너구리나 집을 나온 들고양이, 또

는 등줄쥐? 누군가 이 ‘예방음식’을 주워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DMZ 야생동물들은 누구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 2 서양민들레 돼지풀의 민통선 귀화

「길가의 민들레는 노랑저고리/ 첫 돌맞이 우리아기도 노랑저고리/  
아가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서당 마당가에 피는 앓은뱅이꽃. 강소천의 동요에서도 민들레는 이른 봄 길가에 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DMZ로 가는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있습니다. DMZ를 동으로 서로 따라가며 피어있습니다. 동요처럼 이른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봄에서 늦가을까지 피었다 지었다 줄기차게 피고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한탄강을 건너 광주산맥 대성산 적근산을 타넘고 북한강을 건너 백암산 백석산 문등리 계곡, 단장의 능선, 펀치볼, 향로봉산맥을 타고 내려 동해에 닿을 때까지 강가에도 들에도 높은 산에도 피어있습니다.

그 민들레가 첫돌맞이 우리 아기 노랑저고리 같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두 서양에서 건너온 귀화민들레, 서양민들레들입니다.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자가 수정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벌 나비 없어도 어찌다 꽃 한 송이만 피우면 종족은 한없이 퍼져나갑니다. 토종민들레는 고집부리다 망했습니다. 고고한 척 겨우 3~5월 꽃을 피우고 벌 나비 증매

를 기다리는 그 순수를 고집하다가 DMZ 민들레 영토를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눈 씻고 찾아도 이제 앓은뱅이꽃 우리 민들레는 없습니다.

약초나 식품으로 재배하는 민들레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진짜 우리 민들레인지, 개발된 신품종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서양민들레, 저들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을 점령해 주인 노릇을 하는 걸까요? 그때, 지구 반대편 어느 항구였을 것입니다. 하늘을 날던 민들레 꽃씨는 동방의 작은 나라 전쟁터로 떠나는 배를 보았습니다.

“거기선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터로 가는 저 어린 병사는 얼마나 두려울까? 포탄 떨어지는 고지마다 내가 노란 꽃을 피워 두려운 마음을 달래줘야지.”

민들레 꽃씨는 살며시 병사의 철모 위에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랜 항해 끝에 한국의 항구에 상륙했고 민들레 꽃씨는 병사를 따라 높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높은 고지까지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옛날 전장은 모두 민들레 밭입니다. 해안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칠봉, 대우산, 도솔산, 대암산 능선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전의 현장입니다. 정말 희생된 병사들의 넋을 달래 주려는 듯 민들레가 지천으로 피어있습니다.

민들레는 평화를 상징하는 꽃인가 봅니다.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언덕에도 눈이 모자르는 민들레 밭입니다.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에서는 아예 기차가 민들레 벌판을 횡단합니다. 아우슈비치 철조망 아래서 웃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도 민들레입니다. 옛 동서독 국경의 동독 장갑차 순찰로도 온통 민

들레 받입니다. 그러니 동서 두 진영의 세기적 전투 현장이었던 DMZ가 민들레 밭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 · ‘워커’와 상하이 농구화

전쟁터를 찾아온 또 다른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돼지는 커녕 어떤 놈은 한 여름내 키가 4~5m나 자랄 만큼 너무 늘씬해서 울타리용으로 심고 싶은 전혀 돼지 같지 않은 풀. 빅토리아시대, 대영제국의 탐험가들이 코카사스 지방에 자생하는 이름 없는 풀을 들여왔다가 큐 왕립정원을 초토화 시킨 악명 높은 풀, 게걸스럽게 퍼먹고 평평 살만 찌는 못 생긴 돼지 같기만한 게 아니라, 꽃가루나 줄기 속의 진이 심각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초. 시멘트 터미에서도 고개를 내밀고, 아스팔트 균열을 뚫고도 몸을 비비고 나오는 지겹게 끈질긴 풀. 돼지 풀, 영어로 호그위드(Hog Weed)라고 하는 고약한 식물입니다.

그 풀은 ‘죽어도 사는 풀’입니다. 이 질긴 독초를 DMZ의 군인들은 잘 압니다. 전선의 봄은 늘 산 아래서 오기 마련입니다. 산 아래 서성이던 연두색 봄이 조금씩, 조금씩 산정을 향해 기어 올라올 때면 늘 쑥처럼 생긴 이파리 몇 개를 단 낮선 풀이 먼저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나 벌거벗은 산비탈을 찾아다니며 잎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여름 그 낮선 풀이 훌쩍 자라 키를 넘으면 병사들은 그 풀밭이 두려워졌습니다.

“북쪽의 저들이 저 속에 숨어 들어올지 몰라. 없애버려!”

그때마다 희끄무레한 색깔의 보잘것 없는 꽃을 가득 피웠던 풀밭은 절규하듯 꽃가루를 내뿜었습니다. 그런 날 밤이면 병사들은 세상에 복수하는 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곤 했습니다. 풀밭을 용감히 짓밟던 용사들의 옆구리, 팔엔 하나같이 가득 두드러기가 돋는 것입니다.

“너는 고약한 성미의 풀. 썩도 아닌 것이 썩처럼 생겨 두드러기를 돋게 하는 네 이름은 두드러기 썩!”

돼지풀은 1970년대 한 식물학자가 이 귀화식물의 존재를 밝혀내기 전까지 DMZ 일대에서 ‘두드러기썩’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DMZ를 따라가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번국도를 따라가다, DMZ를 만나 동으로 가는 동안 임진강가에, 한탄강가에, 철원평야에, 펀치볼 분지에, 동해선 철길에도 봄에는 연두색 어린 싹으로, 여름엔 대숲처럼, 가을엔 갈나무 숲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DMZ에 나타난 것일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돼지풀은 크게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L.)과 그냥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두 가지. 단풍잎돼지풀은 말이 잡초지 키나 줄기 굵기가 해바라기보다도 더 크고, 피마자처럼 큰 잎을 달고 있어서 차라리 나무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돼지풀은 외양이 동양적입니다. 좀 키가 작고 이파리나 줄기도 단풍잎돼지풀에 비해 가냘프며 썩과 비슷합니다.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이풀의 원산지가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온 독초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정원용으로 큐 왕립 식물원에 심었다가 다른 식물의 생육을 교란할 만큼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낭패를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게걸스럽게 먹고 자라는 돼지를 비유한 ‘돼지풀(Hog-Weed)’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1970년대는 영국의 제니스스란 팝 그룹이 식물 한 포기 때문에 절절매던 당시를 풍자한 ‘자이언트 호그 위드’란 노래를 불러 공전의 히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식물도감은 약 200종이나 자생하고 있는 이 풀 가운데 키작은 돼지풀이 만주지방에도 자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비롯한 UN군의 군화를 ‘워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군인들은 ‘상하이 농구화’라는 형겹 군화를 신었습니다. 따라서 단풍잎돼지풀은 ‘워카’에 묻어서, 돼지풀은 ‘상하이 농구화’ 바닥에 달라붙어 이 땅에 귀화했다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압록강에는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 도하한 부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돼지풀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실을 증명하듯 압록강 중국 쪽 강가에는 돼지풀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서양민들레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은 지금 자연생태계 교란종으로 낙인 찍혀있습니다. 대암산, 대우산 능선에 지천으로 피어있던 서양민들레는 군인들이 보이는대로 뽑아버린 모양입니다. 2019년 여름 서양민들레를 촬영하러 갔던 사람들은 빈 카

메라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야말로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DMZ의 벗겨진 땅에 녹색물감을 칠하기 위해 달려갔던 자연생태계 회복의 1등 공신인지 모릅니다. 저들은 전쟁을 틈타 불법 채류하다가 귀화해 버린 식물이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파견됐던 자연섭리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DMZ가 구성해가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일원일 뿐 침입자가 아닐 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 3 개느삼, 전쟁을 건너 냉전을 견딘 풀

약재 고삼(苦參)은 맛은 쓰고, 효능은 삼(參)만 하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뿌리 모양이 보기 싫어 ‘도둑놈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느삼이라고도 합니다. 개느삼은 생김새는 느삼만 하지만 효능은 떨어진다고 고삼 아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Echinosophora koreensis*’. 암호문 같은 개느삼의 학명 속에는 콩과 낙엽활엽관목인 이 식물이 전 세계에 한국에서 밖에 자라지 않으며, 발견된 곳도 한국인 한국특산종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1속(屬) 1종(種)의 희귀종이어서 천연기념물 제372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개느삼은 1918년 5월 10일 일본인 이시도야가 함남 북청 동정공원에서 발견한 것이 첫 채집기록입니다. 이듬해 10월 10일 정태현(鄭台鉉, 1882~1971)과 이시가와에 의해 또 채집됐

습니다. 그리고 1940년 수우(樹友) 이창복(李昌福)박사가 평남 맹산군 동면 대흥리에서 이 풀을 채집했으며, 25년 후인 1965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산 기슭에서 다시 이 풀을 찾아냈습니다. 이 토종 중의 순 토종은 북쪽으로 북청이 분포 한계선이고, 양구가 남쪽 한계선인 것입니다. 양구를 자연생태계의 점이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양구의 상징이 된 이 희귀종이 세상에 알려져 천연기념물 대접받게 된 극적인 과정을 이창복 박사는 자신의 ‘이창복 박사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60년 5월 초 경희대 생물학과 학생한테서 개느삼이 양구에 자생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몇 년 후 이름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학생은 졸업 후 사회로 나갔으며 양구는 그리 좁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양구중학교에 들러 학생들이 수집한 표본을 동정하여 주고, 개느삼을 수집한 학생을 찾아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식물명은 모르면서 식물을 찾아내는 학생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개느삼은 함남 북청에서 발견된 다음 맹산과 양구에서 그 분포가 알려졌습니다. 개느삼이 자라는 곳은 흙이 한 톨도 없는 왕모래 땅입니다. 뿌리를 옆으로 내려 자라면서 균총을 형성하는 힘은 비탈면 사방에 활용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양구읍 한전리에 자라는 것을 천연기념물 37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UN고지-양구읍 한전리- 동면 임당리’에 이르는 선은 1954년 1차로 수복지구로 편입한 곳입니다. 공교롭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마지막 발을 멈춘 개느삼이 이 라인에서 발견됐습니다. 개느삼 박사도 개느삼이 자라는 곳에는 ‘흙이 한 톨도 없는 왕모래 땅’이라고 했습니다. 수 없이 포탄을 맞았기 때

문일까? 개느삼 군락지인 한전리 뒷산은 흙 없는 왕모래 산이었으며, 개느삼은 용케도 그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흘러내리는 모래를 뿌리로 붙들어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른의 무릎 높이만 할까? 개느삼은 그렇게 작은 키에 아가시아처럼 생긴 가는 잎을 곧 부러질 것 같은 가는 가지에 매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지 겨드랑이 5월이면 손톱만한 길이의 꽃을 피웁니다. 혼자 피지 않고 대여섯 송이씩 모여 핍니다. 어렵사리 피운 꽃인 만큼 한 번 핀 꽃은 7월까지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5월 메마른 땅에서 황금색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이 꼭 무럭무럭 자라는 수복지구 어린이들처럼 아름답습니다. 1992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자라지 않는 개느삼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리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 양구교육청은 한전초등학교를 개느삼 보호지정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양구에만 있는 줄 알았던 개느삼은 그 후 2001년 6월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됐습니다. 2008년 6월에는 인제군 남면 부평리 야산 일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산종이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생지가 발견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2010년 5월에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수목원에서도 이 희귀종이 꽃을 만개했습니다. ‘멸종위기 2급’ 딱지를 붙이고 있는 이 식물이 태안반도까지 남하한 것은 개느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귀한 풀의 씨앗을 받아다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특산식물 정도가 아니라 미선나무나 금강초롱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개느삼의 가계’ 그 자체가 특산인 이 식물이 잘 못 될 세라 아끼는 그 마음도 황금색 그 꽃만큼 아름답습니다.

#### 4 대암산 용늪에서는 ‘과거를 물어주세요.’

대암산은 양구군과 인제군에 걸쳐있는 땅입니다. 남서쪽 능선이 두 군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정상(1,304m)과 이 산의 핵이자 대한민국 단 하나밖에 없는 고층습원 용늪은 인제 땅입니다. 그러나 접근하기는 양구가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통제지역인 그 산을 지키는 군부대도 양구에 있습니다. 이 산의 식물생태계는 태백산맥 서쪽의 식물구계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이는 동식물의 남북한계, 동서분계 지점인 대암산이 생물지리상 중심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대암산은 DMZ 자연생태계의 심볼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도 대암산은 ‘정중앙 양구’와 통합니다. 그러나 으레껏 양구 땅이려니 하지만 엄연히 인제 땅입니다. 그 산을 정복하러 가는 등산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상에 있는 용늪을 보기 위해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밟아 그 산에 오릅니다. 이 때도 양구 따로, 인제 따로 탐방객을 안내합니다. 해설사들이 탐방객을 안내하는 방법이 진지하고 전문적이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대암산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보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해설사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1973년 7월 10일 대암산, 도솔산, 대우산을 잇는 능선과 해안분지 일대 3천74만 3,940㎡를 천연기념물 제246호

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암산 고층습원일대 1.06km<sup>2</sup>는 1989년 12월 29일 다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997년 7월 28일 한국이 101번째 나라로 람사협약에 가입할 때는 대암산 용늪을 ‘람사습지’로 신청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암산은 해발 1,304m의 주봉에서 2km 거리에 또 하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쌍두봉입니다. 두 봉우리 사이는 넓은 평원입니다. 그리고 평원 속에 전설처럼 큰 용늪, 작은 용늪, 형제 늪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물이끼 이탄층이 쌓이고 쌓여 솟아오르는 고층습원(高層濕原, high moor)입니다. 함경북도 대택(大澤), 백두산 장지(醬池)와 오십리지(五十里池)에 이어 3번째, 울산 무제치늪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남한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DMZ자연생태계의 보물단지가 인간이 열광하는 뒤편에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996년 환경부는 충북대학 강상준 교수팀에게 이 늪지가 복원될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쫓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으나 늪은 옛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지 모를 만큼 점점 더 파괴돼 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늪의 나이를 4,50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1966년 한국자연보존연구소와 미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DMZ 학술조사를 실시했을 때 밝혀졌습니다. 1980년 대 중반만 해도 작은 용늪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큰 용늪은 살아 팔팔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늪은 길이 297m, 폭

225m, 넓이 3.15ha(9,200평)의 달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늪 한 가운데는 하늘을 향해 뿔려 있는 ‘늪의 눈’처럼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연못물은 아무 수서생물도 살 수 없는 지독한 산성수였습니다. 산성수가 분비나무 2그루를 늪 속에서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허영계 앙상한 줄기를 남겨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늪은 아메바처럼 주변의 나무들을 삼키며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늪이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띈 반세기, 무지한 인간이 그 소중한 보물단지를 깨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늪을 주둔 군인들이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늪에 군인들이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서 이탄층을 제거하고 제방을 쌓았으며,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점차 육화(陸化)가 진행돼 늪 특유의 습지식물의 생존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당시 연구용역의 가설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어느 날, 정말 큰 용늪의 아름다운 녹색 벨벳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늪 한가운데 길이 30m, 높이 1.5m, 폭 1m 정도의 독이 쌓여있었습니다.

“뭐야, 군인들이 노천 스케이트장을 만든 것 아니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천 스케이트장. 습원 아래쪽에 독을 막아 물을 채우면, 400m 링크가 나오고 남을 아이스 링크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 가장 높은 산정의 스케이트장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상상입니다. DMZ 군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40도나 내려가고, 2m나 눈이 쌓이는 겨울 고지의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그들은 그 산정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연 킨대 그 좁은 웅덩이에서 스케이트를 지치기 위해 그런 토목공사를 단행할 바보 지휘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암산 용늪을 병들게 한 혐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인들을 긴장시키는 냉전에 뒤야 할지 모른다. 군인들은 늘 북한군의 기습용 AN-2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이야말로 그 소리 없는 항공기들이 착륙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착륙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모릅니다.

그 웅덩이를 스케이트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도 공범입니다. 용늪이 고층습원으로 밝혀진 이래 그 늪을 가장 많이 밟아 친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 늪은 '생체실험'을 아마 100번도 더 받았을 것입니다.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달려오는 학술조사단은 이 연약한 늪을 유린했습니다. 늪의 깊이와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멍을 뚫으며, 곤충학자들은 습원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수생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는 작은 연못의 물을 뜨기 위해, 식물학자는 습지식물을 찾기 위해 늪을 밟고 다녔습니다. 뒤늦게 산을 올라 온 조사단은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찾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또 다시 늪을 밟았으며, 더 늦게 온 조사단, 그보다 더 늦게 온

조사단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늪을 보호해야 한다며 찾아오는 환경단체, 자연의 신비를 벗기겠다고 찾아 온 취재팀, 보호대책을 세우겠다고 현지 시찰을 나온 기관장들도 모두 용늪 스케이트장의 공범들입니다. 그러나 대암산 용늪 탐방객은 누구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5 수입천 두타연의 열목어 전설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에서 물철쪽으로 뒤덮인 수입천(水入川)을 따라 가면 DMZ 속에 묻힌 문등리(文登里)라는 마을이 있다. 1929년 형석(螢石)광산이 채굴을 시작했다. 금강산 가는 길 목의 문등리는 일약 광도로 발전해 갔다. 전기가 들어오고 심상소학교, 우편소, 여관, 술집이 들어왔다.

DMZ는 서쪽 어은산에서 시작돼 문등리 계곡으로 쏟아졌다가 단장의 능선을 타넘어 동쪽으로 이어집니다. 전선은 그 사라진 마을 문등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지의 봄은 늘 산 아래서 오고 있었습니다. 고지의 잔설이 아직 희끗희끗한 어느 날 산 아래 문등리에 붓끝으로 연두색 물감 한 점을 칠하면 그냥 봄입니다. 조금씩 연두색이 번져나가 문등리 벌판을 다 덮을 때면 봄은 고지를 향해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봄이 병사들의 기지를 지나 까마득히 높은 어은산을 타넘어 가는 것 같았을 때는 어느새 여름입니다.

가을은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봄이 올라갈 때보다 가을이 내려오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높은 산에 한두 점 붉은 물감이

떨어지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내리듯 달려 내려와 금방 문등리 별관까지 물들입니다. 문등리는 이때쯤 들풀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빈 마을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검은 시멘트 벽체들과 그 사이로 기어가는 금강산 가던 길, 31번국도, 형석 광산에서 흘러 온 버럭 더미, 기다랗게 누워 반짝거리고 있는 수입천과 그 위에 걸터앉은 끊어진 다리… 그 위로 가을 햇볕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등리 가을은 그렇게 전설 같았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이 전설의 마을에 정말 전설들을 덧씌웠습니다. 문등리는 그 옛날 문등이촌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마 ‘문등리’라고 할 수 없어 ‘문등리’가 됐고, 한창 전쟁 중이었을 때 북한군은 이 마을을 없애 버리기 위해 군사기지로 위장시켜 놓아 자연스럽게 미군의 공습을 받게 했으며, 그 바람에 폐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무너진 검은 시멘트벽엔 문둥이들이 그려놓은 벽화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천엔 온몸에 얼룩무늬를 그리고, 새빨간 눈을 가진 이상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불쌍한 문둥이들이 물로 뛰어들어 그 물고기로 변했으며, 아직도 슬피 울고 있어 빨갭게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다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노란 꽃가루를 날리며 기승을 부리던 ‘두드러기 썩’을 제거한 병사들은 예외 없이 두드러기가 돋았습니다. 수입천에 텀버딩 몸을 담갔으면 좋겠지만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에는 손조차 담가도 안 됩니다. 북쪽에서 독극물을 풀어놓을 수도 있을 테니까….

병사들은 살금살금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강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커다란, 정말 팔뚝만 한 물고기가 매우 거만한 몸짓으로 천천히 꼬리를 흔들면서 바위 뒤에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손을 뻗어봤습니다. 한 뺨이나 비켜났을까. 그는 매우 근엄척 했습니다. 이번엔 두 손으로 움켜쥐어보려고 했습니다. 아, 빨랐습니다. 그는 속 몸을 틀어 빠져나갔습니다. 게임을 포기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놈은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어느새 돌아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돌땅을 치고, 옷통을 벗어 덮으며 놈을 잡아냈습니다. 강바닥에 나자빠진 놈이 짜려보고 있었습니다. 빨강계 충혈 된 눈입니다. 전설의 물고기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은 심심해서 꾸며낸 얘기이고, 도대체 분을 참다못해 빨강계 충혈 된 눈으로 인간을 짜려보는 물고기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강이 북한에서 흘러오잖아. 북한군에게 세뇌된 빨갱이 물고기가 틀림없어. 이제부터 너를 김일성물고기로 명명한다!”

1983년 여름 두타연에서 민통선학술조사단 담수어팀이 민통선지역의 어류생태조사를 하고 있었다. 투망에 50cm가 넘어 보이는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황갈색을 바탕색으로 한 이 물고기는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길며, 비늘은 잘랐습니다. 머

리·몸통·등·기름지느러미에는 눈동자보다 작은 자갈색 반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강줄기에 살고 있는 문등리 전설의 물고기, ‘김일성 물고기’였습니다. 조사단이 놀라운 듯 소리쳤다.

“열목어다!”

열목어(熱目魚). 한국에서는 사라져가는 물고기입니다. 서식지 자체가 사라지자 1962년 강원도 정선군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73호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를 제74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열목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에서 조차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타연을 열목어 최다 서식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조사단은 이 숨어있는 열목어 서식지를 열목어 없는 천연기념물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타연은 열목어 최다 서식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일성물고기’는 비로소 제 이름 열목어를 되찾았습니다. 민통선 주민은 물론 군인들조차 열목어를 김일성물고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7

## 모든 길은 金剛山으로 통한다

### 1 '하늘내린 인제'에 서린 王氣

해안분지에는 34개의 작은 실개천들이 흐릅니다. 물골은 실개천들이 모여 개울을 이루며 분지를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사람들도 분지를 빠져나가려면 물골을 감싸고 있는 분지의 동쪽 가장 자리 능선 먼뿔재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인제 땅입니다. 정철은 여기를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궁예는 금강산에서 철원으로 가면서 이 고개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백산맥에서 가장 낮은 고개, 해발 450m밖에 안되는 삼재령이 바로 지척이기 때문입니다. 궁예는 금강산에서 남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 고개를 넘어 저족(猪足), 오늘날의 인제에 첫발을 디뎠을 것입니다.

인제의 옛 이름 저족(猪足). 이를 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돼

지 다리'가 되지만, 한국땅 이름학회 배우리 명예회장은 그런 뜻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을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돼지'의 옛말은 돌(돈). 따라서 '다리'의 뿌리 말 '달'이 그 '돌'이란 말 뒤에 붙어 '돌달'이 이 고을의 이름으로 자리 잡아 갔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입니다. 즉, '돌달'이 '돌다리'가 되고, 이것이 한자의 저족(猪足)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의 땅 이름에서는 '돌'이 대개 '두드러져 오른 곳' 즉 높은 지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인제는 그 옛날부터 '높은 터'였던 셈입니다. 요즘 인제를 '하늘내린 인제'라고 부릅니다. '하늘+내린(내린천)=하늘에서 내려준, 천혜의 고장인 인제군'이라는 뜻이지만 '두드러져 오른 곳'이라는 '높은 터'와도 의미가 통할 것 같습니다.

역사상 그 높은 터에서 왕권 쟁취를 도모한 최초의 인물은 아마도 궁예인 것 같습니다. 그는 철원으로 가기 위해 반대 방향인 명주(溟洲:강릉)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으로 북상해 다시 태백산맥을 넘었습니다. 산맥을 넘어 저족(猪足:인제)에 이르렀을 때 생천(牲川:화천), 부약(夫若:금성) 철원으로 가는 길이 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터'에 첫 발을 내디디며 새로운 왕국 건설의 결의를 다졌을 것입니다.

태조 왕건의 늙은 사위,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승하하자 고려 수도 개경의 신라유민들은 그의 능지를 경주로 잡았습니다. 신라유민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정신적 지주 경순왕 유해를 따랐습니다. 고려 경종은 당황했습니다. 1천리 경주로 이어지는 길

에서 반 고려 정서가 폭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왕의 운구는 황성에서 100리를 넘지 못 한다’는 왕의 예를 내세워 경순왕의 유해를 고랑포에 붙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개성의 정동쪽 인제 김부리에 경순왕의 큰 아들 마의 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태자는 통곡하며 신라향복에 반발했었습니다. 그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제를 중심으로 신라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개성, 고랑포, 김부리는 북위 37도 56분~59분,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려 왕실은 정동 300리에서 호시탐탐 개성을 넘겨다 보고 있는 인제 땅의 신라 부흥 기운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경순왕의 유해를 고랑포에 붙들어 놓은 깊은 뜻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인제 땅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높은터 20세기에도 여전히 도모의 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은 1952년 인제읍 합강리 산악부대 포병여단 초대 부대장을 지냈습니다. 1955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5사단장, 1957년 9월부터 9개월여 동안 7사단장을 지내면서 인제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한 이른바 ‘10·26사태’의 주범 김재규(金載圭)도 1971년 9월 23일부터 1973년 3월 6일까지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육군 제3군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1980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

신고를 받았습니다. 내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독실한 불교도인 그가 부대 안에 수호사(守護寺)란 절을 짓고 세운 기념비에 하필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듯 ‘남이(南怡)의 시’를 새겼는지 모릅니다. 조선 세조 때의 무신인 남이(1443-1468)가 여진족을 토벌할 때 읊었다는 시, ‘未平國(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이 ‘未得國(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조작돼 반역죄로 주살된 문제의 그 시 ‘白頭山石磨刀盡 頭滿江水飲 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 2일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한 것은 전혀 의외의 일이 아닙니다. 산 설고 물 설은 타향이지만, 유권자의 70~80%가 군인과 그 가족들이 산 설고 물 설은 피차 타향살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에게 인제는 정치적 고향이자 대권의 초석을 놓은 곳입니다. 제4대 민의원 선거가 치러지던 때 공교롭게 박정희 사단장의 관사는 인제군청에서 20m도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정부 여당의 선거 부정을 호소하기 위해 사단장 관사를 방문한 적 있다고 그의 책에 밝혔습니다. 유감스럽게 사단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단장이 박정희였던 사실은 훗날 알게 됐다고 합니다.

기연은 또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56년 12사단 52연대에서 소대장을 지냈습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을지부대의 한 연대입니다. 13년 후 경상도 출신 한 사병이 52연대로 전입해 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향로봉 산맥의

건봉산 OP에서 집안 어른 벌인 노무식 중령의 당번병, 상황병을 하며 34개월 간 복무하다 71년 전역합니다. 건봉산 정상에는 지금도 그가 근무했던 병커가 있습니다.

노태우 본관은 파주 교하, 노무현은 광산입니다. 노씨는 중국 안록산 사사명의 난을 피해 한반도로 피신을 한 뒤 뿌리내리게 됐으며, 광산 노씨가 첫째, 교하 노씨가 둘째 집안. 사실 두 대통령이 본관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집안인 셈입니다. 노태우는 좌파 김대중, 김영삼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노무현은 우파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오전 9시 59분 연희동을 떠나 점심 무렵 인제 용대리 백담사에 도착했습니다. 극락보전 왼쪽 화엄실은 만해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집필한 장소입니다. 그 방문 위엔 한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반세기 시공을 사이로 만해(萬海)와 일해(日海)가 동거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국회 5공 특위 청문회 증언을 위해 한차례 상경했던 것을 제외하고 백담사에 은둔해 왔다. 그리고 1990년 12월 30일, 은둔 2년 1개월 만에 하산했습니다. 그도 인제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인제와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1993년 춘천 대선 유세 때 “우리 며느리가 춘천대학(사실은 강원대)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고 공개해 강원도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도 인제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사람들 중에는 그가 현대건설에서 소양댐을 지은 장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양호는 인제에서 흘러가는 내린천, 북천물을 받아 담습니다. 따라서 인제와 이명박은 그 누구보다도 인연이 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朴槿惠)는 아버지 박정희가 인제에서 5사단장, 7사단장을 하던 때 사단장 관사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의 유별난 대통령 인연을 놓고 대통령학을 가르치는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한 고장이 이같이 여러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인제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인제군은 대통령 테마공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005년 12월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3만 3,000㎡ 부지에 인연실, 모의국회의사당, 기획전시실을 갖춘 2층 규모(710,74㎡)의 건물과 야외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 했습니다. 한국대통령학연구소에 대통령 자료 조사 및 사회교육자원 모델개발 용역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테마공원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리더십을 강의하고, 대선 후보 토론회도 하는 등 인제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친근한 대통령문화를 조성해 보려던 하늘내린 인제 사람들의 꿈은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담사 만해 마을로 가는 관광지 북쪽 끝 잡풀과 잡목 사이에 서있던 ‘대통령테마공원 부지’ 간판도 요즘은 안보입니다.

## 2 청산이 묻고, 바다가 삼킨 두 이야기

1974년 가수 조미미가 부른 ‘진부령 아가씨’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진부령 고갯길에 산새가 슬피 울면/ 길을 가던 나그네도 걸음을 멈추는데/ 굽이 마다 돌아가며 사연을 두고/ 말없이 떠나가는 약속한 님아/ 아, 울지마라 진부령 아가씨야’

진부령을 ‘슬프도록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진부령은 백두대간 남한구간의 최북단 마지막 고개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향로봉까지 684km 구간 중에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마침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아름다운 길은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기동 타격대의 남침루트였고, 지리산 빨지산들의 북행 루트였으며, 냉전기 간 국지전을 일으켰던 무장 공비들의 퇴각 루트였습니다. 진부령에서는 동쪽으로 동해가 바라보입니다. 금강산이 가까운 명태의 바다입니다. 아름다운 명태의 바다에는 명태 때문에 빚어진 해상 납북의 참혹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루트나 그 바다에는 지금 어디 하나 지난 날의 흔적이 없습니다. 천연의 자연, 평화스러운 바다에 묻혀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 속에서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든 남겨놓아야 합니다. 반세기 전 노래 ‘진부령 아가씨’의 노랫말이 남아있듯, 진부령 그리고 명태의 바다에 묻어 있는 ‘이상한 전쟁’ 얘기도 남겨져야 합니다.

## · 백두대간의 빨치산 루트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부근 해안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해안가의 바깥 다가서 있는 수상한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좌초된 북한 잠수함과 공비 침투 사실을 확인한 시간은 새벽 2시쯤. 일차적으로 공비들의 도주로와 예상 은거지역인 칠성산·망덕봉·괘방산 일대를 차단했습니다. 오후 3시 45분쯤, 정찰 중이던 군 헬기가 청학산 기슭에서 11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잠수함에 타고 온 해상처장을 비롯한 안내원과 승조원들이었습니다. 일행 중 공작조가 그들을 AK소총과 TT 권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침투 공비들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제22전대의 공작요원과 안내원, 그리고 승조원들이며 전원 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잠수함은 길이 35m, 폭 3.8m의 300톤 규모의 상어급 잠수함으로 특수 공작에 이용하기 위해 개조된 것이며, 침투시킨 공작조의 복귀를 위해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좌초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9일간의 소탕작전으로 1명 생포, 13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들 공작조에 의해 살해된 11명을 포함 총 25명이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주하면서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관 1명을 희생시켰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에서는 송이를 채취하던 주민 3명을 포함해 민간인 4명도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루트를 따라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산으로 도주한 후 발왕산, 계방산, 오대산, 내린천, 소양호 상류, 인제 용대리, 진부령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28년 전 또 한 무리가 북쪽으로 도주하던 길입니다. 1968년 10월 30일

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사이 북한 민족보위성정찰국 124군부대 소속 120명이 8개조로 나뉘어 경북 울진군 고평해안에 상륙, 울진·삼척·봉화·명주·정선 등지로 침투했습니다. 소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입니다.

이들은 1968년 7월부터 3개월간 유격훈련을 받고 10월 30일 오후 원산에서 배로 출발하여 그날로 울진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간첩 대책본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하여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에 ‘을중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향토예비군을 출동해 소탕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6일까지 3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나 연말을 맞아 작전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말이어서 작전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120명 중 사살하거나 잡힌 공비는 34명인데, 나머지 86명은 이미 태백산맥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산줄기를 따라 육상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그때 시도한 육상복귀 루트가 28년 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다시 한 번 답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트는 즉흥적으로 개척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은 1948년 11월부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줄기, 백두대간을 이르는 인민 유격대의 남파 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25 남침 직전에는 유격대 60명을 오대산, 계방산으로 침투시켜 아군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투 병력의 분산을 유도하고 후방지역 교란을 꾀하다가 아군의 토벌작전으로 55명이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루트의 지형, 지물을 숙지함으로써 6.25 남침에서부터, 후퇴 그리고 무장병력의 침투와 퇴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용하게 이용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남침 당시 북한군 제5사단과, 간성에 주둔한 제766 유격부대와 육전대인 제549부대가 이 루트를 통해 투입됐습니다. 특히 제5사단은 중국군 제164사단 출신 조선인 1만 명을 기간으로 1949년 8월 나남(羅南)에서 창설된 북한군의 정예사단입니다. 지리산 일대에 거점을 두었던 빨치산들의 퇴각로도 바로 이 루트였던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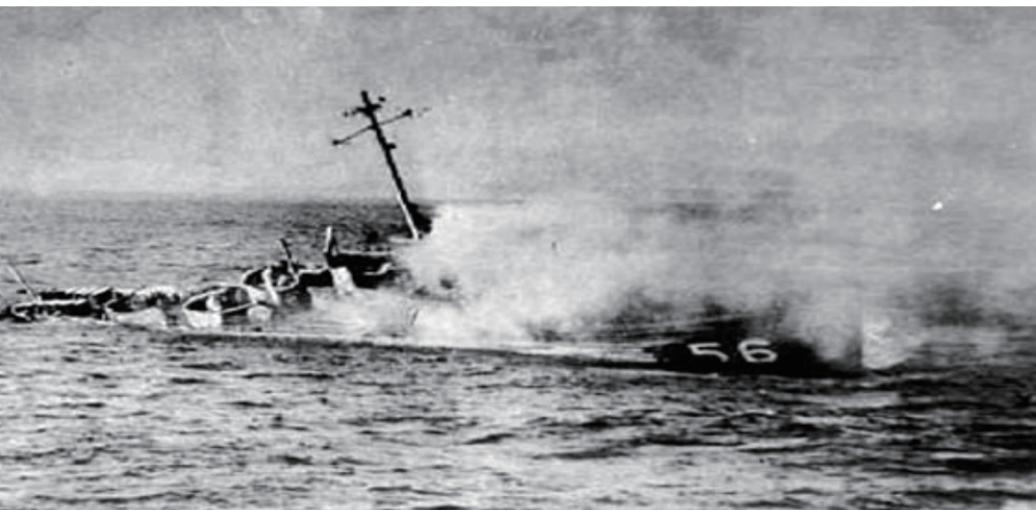
1997년 무장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침투했다가 도주한 그 무시무시한 루트가 관광 상품으로 둔갑했습니다. 강릉시청 산악회는 삼우봉-괘방산-괘일재-당집-화비령-청학산-임곡리로 내려오는 7.7km구간을 ‘안보체험등산로’로 개발했습니다. 그 코스는 강릉잠수함 사건의 생생한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입니다.

빨치산 출신 작가 이태(李泰)의 ‘남부군’은 철철 피를 흘리는 살점을 떼어다 썼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의 극한 체험이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1949년 이래 5년간 1만 717회의 교전에서 피아 2만명의 생명이 처절하게 죽어간 그 능선과 계곡들, 지리산에 숨죽이고 있던 그 남부군의 무대도 빨치산 루트란 이름으로 상품화 됐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코스는 지리산 남·북·동쪽 능선과 계곡 일대의 12개. 함양·산청·하동군 등 경남도 3개 군의 합작품입니다.

· 바다가 삼킨 해상테러 일지

동해엔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명태 잡이 어부들도 배에서 내렸습니  
다. 명태 잡이 이야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동해 이야기가 세월  
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박상우의 ‘말무리 반도’, 그 소설 속의 여자는 “모든 산은 바다로 뺨  
어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말처럼 금강산은 바다에 가  
라앉으면서도 자신의 자태를 말무리 반도에 해금강산이란 이름으로 남  
겨놓았는지 모릅니다. 산이 마지막 가라앉기 위해 불쑥 솟아 숨을  
몰아쉴 곳, 그 산의 끝이 수원단입니다. 거긴 등대가 있어 항로의 지  
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긴 당포함을 침몰시켰던 동굴  
해안포대가 숨어있는 곳이



침몰하는 당포함

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커먼 바위 그늘 속에는 늘 명태 떼를 쫓는 우리 어선을 끌고 가려는 패트롤 선이 숨어있던 곳입니다.

해무는 북한 해군의 고속 경비정들에게 좋은 은폐물입니다. 수원단에 해무가 내려앉으면 장전항을 살며시 빠져나온 북한의 고속 경비정 일명 ‘스캅구’가 수원단 부근을 배회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새까만 색깔을 칠해 위장하고 명태 잡이에 정신을 잃은 남쪽 어선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기다리는 이리처럼, 선단에서 떨어진 통통배가 먹이였을 겁니다. 그들은 쏠살같이 달려와 퇴로를 차단하고 낙엽처럼 떨고 있는 작은 어선들을 예인해 갔습니다. 기관총으로 위협해 끌고 갔으며, 어떤 때는 갈고리로 찍어 끌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다엔 고기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장을 잃은 어부들은 한 발짝이라도 더 북상해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서 ‘의거 월북’, ‘영해침범 간첩선’ 등 어떤 누명을 씌워도 그럴 듯 했으며, 남쪽은 대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풀밭을 보고, 경계를 넘지 않을 양떼는 없겠지요. 이를 막는 방법은 높은 담장을 치는 것입니다. 동해의 어로한계선은 그렇게 그어졌습니다. 1964년 6월 16일 농림부 예규 제32호로 북위 38° 35′ 45″에 처음 어로저지선이 설정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폭 1마일 정도의 완충 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충해역이 너무 좁았습니다. 당포함은 이 완충해역에서 어선들의 월선을 저지하다가 피격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어로저지선은 남하 조정되었습니다. 그해 12월 5일 수산청 훈령으로 어로저지선을 2마일 남쪽 38° 34' 4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1969년 3월 10일 해양경찰대의 건의에 따라 동해에서는 5마일 남쪽으로 이동시켜 북위 38° 3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칭도 어로한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1994년 1월부터는 '어로한계선'을 '어로허용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동해의 어로수역을 38° 33'에서 38° 34'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 사건은 1957년 11월 9일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원단에 숨어 있던 북한의 검정색 '스쿠가'가 명태 잡이 배들을 덮쳤습니다. 동력만으로는 힘이 팔려 돛도 함께 단느림보 어선 8척이 47명의 어부들을 실은 채 낚시 바늘에 꿰인 명태처럼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29일 오전 11시 40분 경 속초 선적 9.77t급 채낚기 어선 송창호가 강원도 거진 인근 해역에서 항해장비 고장에 따른 항로 착오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경비정에 나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 경 장전항을 출발, 속초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측에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귀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은 동해상에서 북한해군에 의한 우리어선이 나포된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돛 달린 명태잡이 8척에서 송창호가 나포되기까지 43년 동안 바다의 민통선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랍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 냉전일지는 바다

가 삼켜 버리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납북억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3,790명이며 이중 487명이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된 상태이며, 납북자 유형별로는 어부가 3,69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동해에서 피랍된 어선은 얼마나 될까? 한 기록은 1963년 11월 12일 해광호가 피랍된 사건을 기점으로 모두 128척, 어부 1,147명이 피랍됐으며, 이 가운데 11척 131명의 어부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생환한 어부라고 모두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1965년 5월 1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영준 판사는 선주 14명 어부 69명에게 각기 벌금형과 배를 몰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북한 무장선에 피랍됐던 사람들입니다. 명태 떼는 이들을 해금강 알섬 근처까지 유혹하였습니다. 이미 되돌아서기에 너무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뱃머리를 돌리려 했을 때는 검은 '스칸구' 2척이 비웃듯이 퇴로에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장전항으로 끌려간 그들은 원산, 평양 등지를 여행하였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원치 않는 여행이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여행이었을 겁니다. 이 기막힌 해상 테러 스토리들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 3 남강 2백리에 펼쳐진 자연사박물관

향로봉에서 동북쪽을 향해 달려가다가 해금강에서 바다에 가라앉은 높고 앙칼진 산줄기를 향로봉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향



건봉산에서 본 남강

로봉, 건봉산, 작은까치봉, 큰까치봉, 월비산까지 금을 긋고, 남강을 건너 금강산 남쪽 산록을 따라 올라가 개간령을 넘고, 남강 상류를 건너 국사봉, 무산을 거쳐 다시 향로봉까지 금을 이으면 커다란 삼태기 모양이 생깁니다. 이 삼태기 속의 옛 행정지명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그 삼태기 속으로 남강이 흐릅니다. 강은 금강산 유점사 부근에서 발원합니다. 신개골 흑연(黑淵)까지는 백두대간과 나란히 정남향으로 흐릅니다. 그 물줄기를 향로봉 산맥이 밀어냅니다. 해삼대, 송어적에 이르러서는 강은 동쪽으로 흐릅니다. 강은 사천, 고미성, 원대, 갈마고개, 사비, 형제고개, 사기점, 아랫마을까지 아름다운 강마을들을 만들며 북동쪽으로 방향을 튕니다. 드디어 토기점, 신대, 불당골, 백일포, 내면(內沔), 외면(外沔)에서는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처럼 정북으로 방

향을 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옛고성 적벽을 지나 해금강에서 바다를 만나 77km의 여정을 마감합니다.

백두대간은 동쪽으로는 강이라 부를만 한 물줄기를 터주지 않았습니다. 남대천, 북대천, 신계천, 북천, 오십천... 강이 되지 못한 천(川) 돌림의 물줄기들뿐인데, 유독 남강만 천(川)중(中)천(川)인양 강(江)자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강을 한 가운데 두고 DMZ가 지지 뚫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수동면 강마을들은 향로봉 산맥에서도, 금강산에서도 지구 반대편보다 먼 곳이 되었습니다. 금강산 육로 관광길은 옛 고성 구읍리 적벽에서 남강을 건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 받은 땅은 언제나 제 구실을 못하는 법입니다. 적벽이 얼마나 기막힌 풍광이었으면 남강을 적벽강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나 적벽강 적벽은 시시한 붉은 돌산이고, 돌산 밑 남강은 보통 개울입니다. 하물며 그 강이 흘러온 200리 길 옛 수동면이야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문을 연 이래 100만 명이 넘는 남쪽 관광객이 그 강을 건너가고 건너왔어도 수동면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쪽에선 양칼진 향로봉이 가로막아서, 북쪽에선 금강산이 가로막혀 더 가볼 라야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각조차 넘어가 보기 어려운 그런 첩첩산중 깊고 좁은 골짜기여서 더 오래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거긴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 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와 그 산의

나무 그리고 강에 산에 기대어 살던 과거 우리의 풍습과 풍속과 우리가 쓰던 말까지 고스란히 묻혀 있는 곳입니다.

1923년 조선총독부는 이 커다란 삼태기를 고스란히 동경제대 연습림으로 지정 허가하였습니다. 그때 만든 ‘동경제대 연습림 산림실태 조사자료’는 수동면 일대 금강산을 발가벗겨 놓고 있습니다. 지명, 산림면적, 땅의 경사도와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지황(地況), 그 땅의 비옥도, 수종, 수령, 기온, 강수량 그리고 임황(林況)지도를 자료로 조사한 것은 연습림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구, 생활상, 교통, 부락상황까지도 조사해 자료로 갖고 있었습니다.

연습림의 총 면적은 3만 481ha. 동경제대는 남강변에 자신들이 일본 내에 가지고 있는 7개 연습림을 다 합한 3만 2,449ha보다 더 큰 ‘자연사박물관’을 금강산 산록에 그때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 수동면민들의 기억 속에도 그 ‘자연사박물관’은 모든 게 풍부하고 다양하기만 합니다.

“봄이 오면 강이 눈 녹은 물로 홍수를 이루곤 했지. 눈이 한번 왔다 하면 한길을 금방 넘었지. 한식 무렵이면 눈 녹은 물을 타고 동해에서 황어가 올라와.”

봄 남강엔 동해에서 먼저 황어가, 뒤따라 은어가 올라옵니다. 여름이면 송어와 칠성장어가,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연어가 강

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 바닷고기들이 코를 박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수백 개도 넘는 골짜기엔 바다에서 올라온 송어가 되 돌아가지 않고 육봉화(陸封化)가 된 산천어가 지천입니다. 물의 동네 수동(水洞)은 물 반, 고기 반입니다.

동경제대 연습림을 관리하는 출장소가 신대리와 고미성리에 있었습니다. 동경제대생들의 사각모가 산골사람들의 향학열을 충동했지도 모릅니다. 이 좁은 골짜기에 소학교가 5군데, 면 소재지로서는 드물게 수동중학교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온 산에 빼곡했던 아름드리 금강송은 1930년대 중반부터 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강에 보를 만들어 베어낸 적송들을 모았다가 터뜨려 바닷가로 실어 날랐습니다. 금강산 금강송은 일본 본토의 건축자재로 실려 가거나, 철도 침목으로 땅에 깔렸습니다. 남강 상류 사천리와 면소재지 신대리에서는 닉켈 광산이 터졌습니다. 닉켈은 트럭과 우마차에 실려 흥남제철소로 날랐습니다. 그 수동면을 6.25전쟁이 마저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동면을 DMZ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일제와 해방과 인공 치하 그리고 DMZ가 지배하는 파란만장한 땅, 이름도 잃어버린 옛 수동면으로 한줄기 기억인양 남강이 숨어 흐릅니다.

#### 4 권력자마저 추억으로 만나는 화진포

낮술에 취한 양귀비가 황제 앞에서 자신을 해당화에 비유했다는 전설은 좀 유치합니다. 애잔하긴 동해의 오누이 전설입니다. 옛날 바닷가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관리들이 누이를 배에



이승만 별장앞 화진포. 낚시좌대가 있었다

태위 공녀로 데리고 가버린 후 혼자 남은 동생이 죽어 해당화 꽃으로 피어났다는 ... 해당화 군락지가 있어서 기념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화진리(花津里)는 그 꽃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금강 남쪽 절경 화진포도 해당화 피고 지는 호수여서 화진포(花津浦)가 되었습니다.

밟으면 우는 백사장이 있습니다. ‘택리지’를 쓴 이증환은 이를 ‘명사(鳴沙)’라고 불렀습니다. 명사 별판에 만개한 붉은 해당화는 얼마나 냇을 빼앗아갈까? 그 옛날 고성군수 택당 이식은 청사에 화진 8경을 써 붙이면서 평사해당(平沙海棠)을 앞에 뒀습

니다. 월안풍림(月雁楓林), 차동취연(次洞炊煙), 장평낙안(長平落雁), 금구농파(金龜弄波), 무운종성(茅雲鐘聲), 모화정각(茅花亭閣), 풍암귀범(楓岩歸帆). 어느 것 하나 뒤질 데 없지만 그래도 화진포의 으뜸은 ‘우는 모래 펼쳐진 백사장에 핀 해당화’라는 것입니다.

‘우는 모래 백사장’ 건너 편 작은 섬이 금구도(金龜島)입니다. 그 거북섬이 광개토대왕능이란 주장이 제기돼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연대기에 광개토대왕 3년(서기 394년) 8월경 화진포의 거북섬에 수릉(壽陵) 축조를 시작했으며, 광개토대왕 18년 8월에 화진포의 수릉축조 현장을 대왕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서거한 이듬해인 장수왕 2년(서기 414년) 9월 29일 화진포 거북섬에 광개토대왕의 시신을 안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광개토대왕능 수비대가 왕릉을 지키고 있었고, 계림(신라)의 군사와 수비대의 잦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문자명왕2년에 이곳에서 광개토대왕의 망제(望祭)를 지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화진포 거북섬의 광개토대왕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주몽의 건국기와 광개토대왕비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은 거북이의 도움으로 큰 강을 건너 고구려 건국의 동력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거북이는 일종의 고구려 수호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부왕인 미천왕의 시신을 전연(前燕)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 백천과 신계에 왕릉을 구축하고 그 곳에 부왕의 시신을 다

시 모시고 자신의 수릉도 만들게 되면서 반도 내에서 왕릉길지를 찾고 보호하는 것이 고구려 왕의 중요한 역사(役事)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역시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정의 정비에도 노력하여 장사(長史)·사마(司馬)·참군(參軍) 등의 중앙 관직을 신설했는가 하면, 역대 왕릉의 보호를 위해 수묘인(守墓人)제도를 재정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즉위 3년에 반도내 길지에 수능(壽陵)의 축조를 시작했고, 광개토대왕이 서거한 이듬해 장수왕 2년에 화진포 거북섬에 안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구도의 내력만으로도 화진포는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안식처가 될 만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별장’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화진포의 성(花津浦의城)’이 지닌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김동열·1984)’에 따르면 김일성 별장은 국내 결핵사업 선구자인 셔우드 홀 박사(Dr. Sherwood Hall)의 별장지로 건립되었습니다. 1937년 일제가 원산 외국인선교사 집단거주지역을 고성 화진포로 강제 이주시키킬 때 홀 박사는 휴양지 이전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진포 일대에 선교사촌락을 조성하면서 현재 화진포의 성 위치에 자신의 별장을 짓고 ‘The Castle at Wha Chin Po(화진포의 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3년 뒤인 1940년 일제는 외국인 선교사를 모두 추방했습니다.

광복 이후는 소련 군정치하의 ‘정양소(귀빈관)’로 이용되었습니다. 1948년 8월 당시 6세이던 북한 김정일이 소련군 정치사

령관 레베제프 소장의 아들과 별장 입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 ‘김일성 별장’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자유당 시대의 2인자 이기봉 별장은 이 호방한 건물 아래 쪽 소나무 숲에 앉아있습니다. 아담한 이 건물은 1920년대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집입니다. 해방 후에는 김일성 별장과 함께 북한공산당 간부 휴양소로 사용되었으며, 휴전 후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봉의 처 박마리아가 개인별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은 1945년 신축했다는 설과 1954년 수복과 함께 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961년부터 방치돼 있던 것을 1999년 7월 육군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별장을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부부가 사용한 침대·납시 도구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름드리 벚나무 그늘 길이 끝나는 갈대숲에 그가 납시를 즐겼다는 자리라며 좌대 한 채가 놓여있었습니다. 별 좋은 호수 가에서 노대통령 대신 커다란 나무의자가 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 이젠 화진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 5 해금강에서 해금강 길을 묻다

해금강은 어디일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금은 사전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군 동해 기슭의 수원단에서 옥교암에 이르는 4km의 해안 절경을 이르는 말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일포는 온정리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석호이고, 해금강은 이 삼일포에서 약 4km 되는 곳에 위치하며 해돋이 경관이 훌륭하다. 특히 풍화와 침식에 의해 형성된 천만 가지의 기묘한 생김새를 가진 해만물상이 유명하다. 총석정은 해금강 남쪽에 위치하며, 바다 기슭에 높이 솟은 암석기둥과 기묘한 모습의 동굴들이 아름답다」

한편 해금강은 삼일포에서 동해로 약 4km 되는 곳에 자리한 고성군 해금강리 앞 수원단으로부터 남쪽으로 해만물상, 입석, 칠성바위를 거쳐서 남강 하구의 대봉섬에 이르는 남북 6km, 동서 2km 내 좁은 범위의 명승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해금강은 꼭 오랜세월 파도가 파먹기라도 한 것처럼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금강의 기암들은 파식(波蝕)을 받아 독특한 모양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원단의 남쪽 바다에 솟은 만물의 형상을 가진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일러 ‘해만물상(海萬物相)’이라 하는데 쥐바위, 고양이 바위, 사자바위, 잉어바위, 지렁이바위, 얼굴바위, 부부바위, 동자바위, 노승바위, 서적바위, 누룩바위, 나한바위, 천황바위 등으로 불리는 기암괴석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촛대바위와 두 개의 바위 기둥이 마주서서 마치 대문처럼 열려진 듯 보이는 금강문과 해금강 입석의 경치가 가장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검은 해적선 스카우’가 숨어있던 수원단엔 정말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해도 좋을 선경진경도 숨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는 해만물상의 수원단일대만 해금강이라고 부르는 아쉽다는 듯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풀이하지 않습니다. 해금강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지역, 태백산맥의 산줄기가

바다까지 드리운 경승지로 송도(松島), 불암(佛巖), 대봉(大峯), 선암(船巖), 작도(雀島), 해만물상(海萬物相)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금강은 그 보다도 더 넓습니다. 넓은 의미의 해금강은 외금강의 동쪽 해안 일대, 즉 삼일포와 남강 하류에서 더 남쪽으로 영랑호(永郎湖), 감호, 화진포(花津浦)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금란굴과 총석정 일대까지도 포함하는 남북 약 30km 구간을 말합니다. 그 말은 화진포에서도 해금강 진경선경을 다 만나본다는 것입니다.

해금강이 좋기로는 삼일포, 영랑호, 감호, 화진포, 그 석호들이 간직한 8,000년 해안사(海岸史)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호(瀉湖 Lagoon)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톱을 형성해 만들어진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자연 호수입니다. 석호에는 맑은 개울이 흘러들어오고, 반대로 동해 바다가 모래톱을 흘려 타넘어 유입되기도 합니다. 거긴 담수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또 다른 생태계의 접이지대입니다. 어류 낙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새의 유토피아입니다. 생성 연대가 8,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석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화진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가장 북쪽의 석호입니다. 화진포를 시작으로 강릉시 풍호까지 동해안에는 18개의 석호가 남아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이 후대에 석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발굴도 하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호는 골프장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잃은 쌍호는 늪으로 변했습니다. 경포호는 1930년대에 비해 면적이 50% 이상 감소했고, 염개호와 순개호는 어망 따위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다시피했으며, 순포개호는 쓰레기 처리장과 별 다른없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가평리습지는 매립된 지 오래됐으며, 봉포호는 한 대학의 정원이 됐으며, 광포호, 천진호, 청초호는 최악의 부영양화 호수로, 선유담은 조사도 되기 전에 내륙화 현상으로 흔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겨우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영랑호, 매호, 향호, 경포호 등 7개 석호에 대한 가치 발굴 계획이 시작됐고, 나머지 11곳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잘 보존된 석호는 어디 없을까.

금강산 구선봉 앞 DMZ 속에 들어 앉아있는 나무꾼과 선녀의 감호(鑑湖)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호의 둘레는 3km 정도이지만 호수가 거의 원형으로 되어 있어 영랑호보다 오히려 더 넓다. 큰 호수치고는 물이 깊지 않아 얇은 곳은 무릎을 걷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호수 동쪽으로 약 300m 되는 사주(砂洲)가 있고, 이 사주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인접해 있습니다. 근처에는 차풍정터, 해금강 일부인 송도·선암 등이 있습니다. 조선 중엽의 명필 양사언이 경치가 좋아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비래정(飛來亭) 터가 전설과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이 개방돼 감호, 송도는 가까이 다가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늘 해금강에서 해금강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